

습관 경쟁

하루하루 남기다 보면 늘어나는 국어

하루하루 남기다 보면

늘어나는 국어

하루하루 남기다 보면 늘어나는 국어

#0 시작에 앞서

대상별 활용 방법

문제의 정답을 어떻게든 정한 후, 정답 및 해설을 보세요. 정답 논리와 근거를 스스로에게 설명해본 후에 해설을 차분히 읽어보면 많은 걸 얻어갈 수 있을 겁니다. 풀어 보지도 않고, 고민도 안 해보고, 스스로에게 설명도 못하면서, 냅다 해설부터 보고 '음~ 이게 맞지~ 그러치 그러치 나도 이렇게 생각했어~' 이라고 넘어가면 남는 게 없습니다. **실전과 같이 맞히고 틀려가면서 본인에게 남겨야만, 비로소 내 것이 되어 실력이 길러집니다.**

중학생·고1

이 자료로 본인이 고등 국어 '상위권'으로 수험생활을 시작할 수 있을지 판단 가능합니다. 50% 이상의 정답률을 보이고, 정답 근거를 대략적으로나마 '설명'해낸다면, 고등학교 내신·모의고사에서 상위권을 목표할 수 있습니다. 풀었는데 거의 다 틀린다거나, 해설이 도대체가 뭘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나오는 개념어조차도 생소하다면, 국어 공부량을 늘립시다.

고2

이 자료로 본인이 그간 국어 공부를 열심히, 꾸준히, 꼼꼼히, 잘, 해왔는지 점검 가능합니다. 100%에 가까운 정답률을 보이고, 이유까지도 열추 설명해낸다면 당신은 상위권일 것입니다. 하지만, 개념어가 부족하여 문제를 틀린다든지, 주관식으로 생각해보는 게 힘들고 어색하다든지, 해설지의 좋은 독해·풀이 습관이 잘 안된다면,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어 학습을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고3·N수

해당 자료로 국어 기초개념 및 기초습관이 잘 잡혀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100%에 가까운 정답률을 보이고, 이유까지도 막힘없이 설명해낼 수 있다면 당신은 수능에서 상위권을 목표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간간이 틀리는 문제가 있다면, 스스로 설명이 안 되고 막히는 문제가 있다면, 정답 및 해설을 토대로 개선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약점들이 수능 당일 당신의 발목을 잡을 수 있으므로, 아니 매우 높은 확률로, 아니 반드시 발목을 잡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늘 겸손할 수 있도록, 늘 긴장하고 자극받을 수 있도록, 혹은 내가 잘 해오고 있음을 확신할 수 있도록 이 자료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지문]

통화 정책은 중앙은행이 물가 안정과 같은 경제적 목적의 달성을 위해 이자율이나 통화량을 조절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통화 정책 수단인 ‘공개 시장 운영’은 중앙은행이 민간 금융 기관을 상대로 채권을 매매해 금융 시장의 이자율을 정책적으로 결정한 기준 금리 수준으로 접근시키는 것이다. 중앙은행이 채권을 매수하면 이자율은 하락하고, 채권을 매도하면 이자율은 상승한다. 이자율이 하락하면 소비와 투자가 확대되어 경기가 활성화되고 물가 상승률이 오르면, 이자율이 상승하면 경기가 위축되고 물가 상승률이 떨어진다. 이와 같이 공개 시장 운영의 영향은 경제 전반에 @파급된다.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이 의도한 효과를 얻기 위한 요건 중에는 ‘선제성’과 ‘정책 신뢰성’이 있다. 먼저 통화 정책이 선제적이라는 것은 중앙은행이 경제 변동을 예측해 이에 미리 대처한다는 것이다. 기준 금리를 결정하고 공개 시장 운영을 실시하여 그 효과가 실제로 나타날 때까지는 시차가 발생하는데 이를 ‘정책 외부 시차’라 하며, 이 때문에 선제성이 문제가 된다. 예를 들어 중앙은행이 경기 침체 국면에 들어서야 비로소 기준 금리를 인하한다면, 정책 외부 시차로 인해 경제가 스스로 침체 국면을 벗어난 다음에야 정책 효과가 @발현될 수도 있다. 이 경우 경기 과열과 같은 부작용이 ©수반될 수 있다. 따라서 중앙은행은 통화 정책을 선제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통화 정책은 민간의 신뢰가 없이는 성공을 거둘 수 없다. 따라서 중앙은행은 정책 신뢰성이 손상되지 않게 @유의해야 한다. 그런데 어떻게 통화 정책이 민간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견해 차이가 있다. 경제학자 프리드먼은 중앙은행이 특정한 정책 목표나 운용 방식을 ‘준칙’으로 삼아 민간에 약속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이를 지키는 ㉠‘준칙주의’를 주장한다. 가령 중앙은행이 물가 상승률 목표치를 민간에 약속했다고 하자. 민간이 이 약속을 신뢰하면 물가 불안 심리가 진정된다. 그런데 물가가 일단 안정되고 나면 중앙은행으로서는 이제 경기를 ©보양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문제는 민간이 이 비일관성을 인지하면 중앙은행에 대한 신뢰가 훼손된다는 점이다. 준칙주의자들은 이런 경우에 중앙은행이 애초의 약속을 일관되게 지키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민간이 사후적인 결과만으로는 중앙은행이 준칙을 지키려 했는지 판단하기 어렵고, 중앙은행에 준칙을 지킬 것을 강제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준칙주의와 대비되는 ㉡‘재량주의’에서는 경제 여건 변화에 따른 신속적인 정책 대응을 지지하며 준칙주의의 엄격한 실천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본다. 아울러 준칙주의가 최선인지에 대해서도 물음을 던진다. 예상보다 큰 경제 변동이 있으면 사전에 정해 둔 준칙이 장애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책 신뢰성은 중요하지만, 이를 위해 중앙은행이 반드시 준칙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문제] 진위판단 & 오지선다

1. 윗글은 통화 정책의 목적을 유형별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정답 : (참 / 거짓)
2. 윗글은 관련된 주요 용어의 정의를 바탕으로 통화 정책의 대표적인 수단을 설명하고 있다.
정답 : (참 / 거짓)
3. ㉠에서는 중앙은행이 정책 운용에 관한 준칙을 지키느라 경제 변동에 신속적인 대응을 못해도 이를 바람직하다고 본다.
정답 : (참 / 거짓)
4. ㉡에서는 ㉠과 달리, 통화 정책에서 민간의 신뢰 확보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정답 : (참 / 거짓)

23.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할 때 '경제학자 병'이 제안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어떤 가상의 경제에서 2000년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3개 분기 동안 중앙은행의 기준 금리가 4%로 유지되는 가운데 다양한 물가 변동 요인의 영향으로 물가 상승률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났다. 단, 각 분기의 물가 변동 요인은 서로 관련이 없다고 한다.

기간	1/1~3/31	4/1~6/30	7/1~9/30
	1분기	2분기	3분기
물가 상승률	2%	3%	3%

경제학자 병은 1월 1일에 위 표의 내용을 예측할 수 있었고 국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물가 상승률을 매 분기 2%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위해 다음 사항을 고려한 선제적 통화 정책을 제안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경제학자 병의 고려 사항]

기준 금리가 4%로부터 1.5%p*만큼 변하면 물가 상승률은 위 표의 각 분기 값을 기준으로 1%p만큼 달라지며, 기준 금리 조정과 공개 시장 운영은 1월 1일과 4월 1일에 수행된다. 정책 외부 시차는 1개 분기이며 기준 금리 조정에 따른 물가 상승률 변동 효과는 1개 분기 동안 지속된다.

*%p는 퍼센트 간의 차이를 말한다. 예를 들어 1%에서 2%로 변화하면 이는 1%p 상승한 것이다.

- ① 중앙은행은 기준 금리를 1월 1일에 2.5%로 인하하고 4월 1일에도 이를 2.5%로 유지해야 한다.
- ② 중앙은행은 기준 금리를 1월 1일에 2.5%로 인하하고 4월 1일에는 이를 4%로 인상해야 한다.
- ③ 중앙은행은 기준 금리를 1월 1일에 4%로 유지하고 4월 1일에는 이를 5.5%로 인상해야 한다.
- ④ 중앙은행은 기준 금리를 1월 1일에 5.5%로 인상하고 4월 1일에는 이를 4%로 인하해야 한다.
- ⑤ 중앙은행은 기준 금리를 1월 1일에 5.5%로 인상하고 4월 1일에도 이를 5.5%로 유지해야 한다.

#185 정답 및 해설

[지문]

통화 정책은 중앙은행이 물가 안정과 같은 경제적 목적의 달성을 위해 이자율이나 통화량을 조절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통화 정책 수단인 '공개 시장 운영'은 중앙은행이 민간 금융 기관을 상대로 채권을 매매해 금융 시장의 이자율을 정책적으로 결정한 기준 금리 수준으로 접근시키는 것이다. 중앙은행이 채권을 매수하면 이자율은 하락하고, 채권을 매도하면 이자율은 상승한다. 이자율이 하락하면 소비와 투자가 확대되어 경기가 활성화되고 물가 상승률이 오르며, 이자율이 상승하면 경기가 위축되고 물가 상승률이 떨어진다. 이와 같이 공개 시장 운영의 영향은 경제 전반에 @파급된다.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이 의도한 효과를 얻기 위한 요건 중에는 '선제성'과 '정책 신뢰성'이 있다. 먼저 통화 정책이 선제적이라는 것은 중앙은행이 경제 변동을 예측해 이에 미리 대처한다는 것이다. 기준 금리를 결정하고 공개 시장 운영을 실시하여 그 효과가 실제로 나타날 때까지는 시차가 발생하는데 이를 '정책 외부 시차'라 하며, 이 때문에 선제성이 문제가 된다. 예를 들어 중앙은행이 경기 침체 국면에 들어서야 비로소 기준 금리를 인하한다면, 정책 외부 시차로 인해 경제가 스스로 침체 국면을 벗어난 다음에야 정책 효과가 @발현될 수도 있다. 이 경우 경기 과열과 같은 부작용이 ©수반될 수 있다. 따라서 중앙은행은 통화 정책을 선제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통화 정책은 민간의 신뢰가 없이는 성공을 거둘 수 없다. 따라서 중앙은행은 정책 신뢰성이 손상되지 않게 @유의해야 한다. 그런데 어떻게 통화 정책이 민간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견해 차이가 있다. 경제학자 프리드먼은 중앙은행이 특정한 정책 목표나 운용 방식을 '준칙'으로 삼아 민간에 약속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이를 지키는 ㉠'준칙주의'를 주장한다. 가령 중앙은행이 물가 상승률 목표치를 민간에 약속했다고 하자. 민간이 이 약속을 신뢰하면 물가 불안 심리가 진정된다. 그런데 물가가 일단 안정되고 나면 중앙은행으로서 이제 경기를 ©보양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문제는 민간이 이 비일관성을 인지하면 중앙은행에 대한 신뢰가 훼손된다는 점이다. 준칙주의자들은 이런 경우에 중앙은행이 애초의 약속을 일관되게 지키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민간이 사후적인 결과만으로는 중앙은행이 준칙을 지키려 했는지 판단하기 어렵고, 중앙은행에 준칙을 지킬 것을 강제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준칙주의와 대비되는 ㉡'재량주의'에서는 경제 여건 변화에 따른 신속적인 정책 대응을 지지하며 준칙주의의 엄격한 실천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본다. 아울러 준칙주의가 최선인지에 대해서도 물음을 던진다. 예상보다 큰 경제 변동이 있으면 사전에 정해 둔 준칙이 장애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책 신뢰성은 중요하지만, 이를 위해 중앙은행이 반드시 준칙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현장독해]

- 통화 정책 = 이자율 or 통화량 조절
- '공개 시장 운영'
- = 이자율 조절 통화 정책 <- 중앙은행이 민간 채권 매매
- [전문용어 개념 정리] [인과관계 정리]
- 채권 매수-> 이자율 하락 -> 소비와 투자 확대 -> 경기 활성화 -> 물가 상승률 증가
- [비례관계 정리] [차이점 정리]
- vs 채권 매도-> 이자율 상승 -> 경기 위축 -> 물가 상승률 하락
- 정부에서 공개적으로 채권 사서 시장에 영향주니까 '공개' 시장 운용인 듯?[전문용어가 이름 지어진 이유 지문 표현으로 파악]
- 선제성 vs 정책 신뢰성 [차이점 정리]
- 선제성 = 예측해서 미리 대처 [전문용어 개념 정리]
- 기준 금리 결정하고 채권 매매하며 공개 시장 운용한 효과가 실제로 나타날 때까지의 시차 = 정책 외부 시차
- [전문용어 개념 정리]
- 그니까 효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고, 시간이 지나고 나타난다는 소리
- [나만의 편한 표현으로 핵심 정리]
- 경제가 스스로 침체 국면을 벗어났는데, 그제서야 공개 시장 운용 효과가 발휘되면 오히려 경기 과열.
- 민간의 신뢰 = 정책 신뢰성 [지문 앞 뒤 비슷한 표현 연결]
- 프리드먼 준칙주의 = 약속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지키는
- 물가가 안정되고 나면 중앙은행은 태세 전환해서 경기 부양하려고 할 수도 있지 -> 비일관성 -> 신뢰 훼손 [인과관계 정리]
- 준칙주의자 : 물가 안정되어도 물가 상승률 목표치까지 일관성 지켜 [지문 표현을 이용한 나만의 편한 표현으로 핵심 정리]
- 준칙주의 vs 재량주의
- = 변화에 따라 신속적 대응 + 준칙주의 엄격히 지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
- 큰 경제 변동 -> 준칙주의가 오히려 장애물
- '반드시' 준칙주의할 필요는 없다 [극단적 표현 주의]

[문제] 진위판단 & 오지선다

1. 위글은 통화 정책의 목적을 유형별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정답 : (참 / 거짓)
2. 위글은 관련된 주요 용어의 정의를 바탕으로 통화 정책의 대표적인 수단을 설명하고 있다.
정답 : (참 / 거짓)
3. ㉠에서는 중앙은행이 정책 운용에 관한 준칙을 지키느라 경제 변동에 신속적인 대응을 못해도 이를 바람직하다고 본다.
정답 : (참 / 거짓)
4. ㉡에서는 ㉠과 달리, 통화 정책에서 민간의 신뢰 확보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정답 : (참 / 거짓)

23. 위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할 때 '경제학자 병'이 제안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어떤 가상의 경제에서 2000년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3개 분기 동안 중앙은행의 기준 금리가 4%로 유지되는 가운데 다양한 물가 변동 요인의 영향으로 물가 상승률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났다. 단, 각 분기의 물가 변동 요인은 서로 관련이 없다고 한다.

기간	1/1~3/31	4/1~6/30	7/1~9/30
	1분기	2분기	3분기
물가 상승률	2%	3%	3%

경제학자 병은 1월 1일에 위 표의 내용을 예측할 수 있었고 국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물가 상승률을 매 분기 2%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위해 다음 사항을 고려한 선제적 통화 정책을 제안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경제학자 병의 고려 사항]

기준 금리가 4%로부터 1.5%p*만큼 변하면 물가 상승률은 위 표의 각 분기 값을 기준으로 1%p만큼 달라지며, 기준 금리 조정과 공개 시장 운영은 1월 1일과 4월 1일에 수행된다. 정책 외부 시차는 1개 분기이며 기준 금리 조정에 따른 물가 상승률 변동 효과는 1개 분기 동안 지속된다.

*%p는 퍼센트 간의 차이를 말한다. 예를 들어 1%에서 2%로 변화하면 이는 1%p 상승한 것이다.

- ① 중앙은행은 기준 금리를 1월 1일에 2.5%로 인하하고 4월 1일에도 이를 2.5%로 유지해야 한다.
- ② 중앙은행은 기준 금리를 1월 1일에 2.5%로 인하하고 4월 1일에는 이를 4%로 인상해야 한다.
- ③ 중앙은행은 기준 금리를 1월 1일에 4%로 유지하고 4월 1일에는 이를 5.5%로 인상해야 한다.
- ④ 중앙은행은 기준 금리를 1월 1일에 5.5%로 인상하고 4월 1일에는 이를 4%로 인하해야 한다.
- ⑤ 중앙은행은 기준 금리를 1월 1일에 5.5%로 인상하고 4월 1일에도 이를 5.5%로 유지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1.거짓, 2.참, 3.참, 4.거짓, 23.㉠번

1. 선택지 '통화 정책의 목적' = 지문 '물가 안정과 같은 경제적 안정을 달성하기 위해'. '목적'을 유형별로 나누어 제시하진 않네. 거짓 [선택지 표현과 비슷한 지문 표현 떠올려 보기]
 2. 선택지 '주요 용어의 정의' = 지문 '공개 시장 운용'. 선택지 '통화 정책의 대표적인 수단' = 지문 '이자율이나 통화량 조절'. 참. [선택지 표현과 비슷한 지문 표현 떠올려 보기]
 3. 선택지 '준칙을 지키느라 경제 변동에 신속적 대응을 못해도' = 3문단 '어떤 상황에서도 약속을 지키는' = 3문단 마지막 '애초에 약속을 일관되게 지키는 편이 바람직'. 참. [선택지 표현과 비슷한 지문 표현 떠올려 보기]
 4. 선택지 '민간의 신뢰 확보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vs 지문 4문단 마지막 '정책 신뢰성은 중요하지만'. 거짓. [선택지 표현과 반대되는 지문 표현 떠올려 보기]
- + 민간의 신뢰 확보 자체는 중요하지. 그러나 확보를 위해 준칙 주의를 지키는 것이 현실적으로 힘들고, 심지어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것. 단점이 있다고 해서, 아예 필요 없다고 없애자는 극단적 생각 조심

23. - 기준 금리 4% [지문과 연관된 출제요소 파악]

- 2분기에 3%로 물가 상승률이 오르네 [지문과 연관된 출제요소 파악]

- 2%로 유지해야? 그러면 2분기 3분기는 정부가 조절해야겠네. [지문과 연관된 출제요소 파악]

- 선제적 통화 정책해야 되는데? 왜 안 받아들여졌지...

- 금리 1.5%p 변하면-> 물가 상승률 1%p 달라짐[인과관계 정리]
- 금리 1.5%p 올리면-> 물가 상승률 1%p 떨어짐.

[출제자의 애매한 중립적 표현의 방향성을 스스로 구체화해보기]

- 정책 외부 시차 1개 분기 = 효과는 1개 분기 뒤에 나타난다.
-> 그러면 1월 1일에 기준 금리 4%를 선제적으로 1.5%p 올려야, 2분기에 3%될 걸로 예상되는 물가 상승률이 1%p 떨어져서 2%가 되겠지. 그리고 4월 1일에는 5.5%p를 그대로 뒀서 물가 상승률도 그대로 2%가 되게 해야지.

[선택지로 냅다 넘어가기 전에, <보기>와 지문 내용을 연결시켜 정답을 주관식으로 생각해보기]
-> 내가 주관식으로 푼 거랑 비슷한 거 찾으면... 정답 ㉠번

[나의 투박한 표현과 의미가 유사하면서도, 고소까지 염두에 둔 출제자의 엄밀한 표현 찾기]

하루하루 남기다 보면 늘어나는 안국어

#186 멘토링

프로들의 모습4. 안정감이 드는 순간, 겸손하게 다가올 위기를 대비한다.

권근의 [주옹설] 분석하다가 기억에 남아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하루하루 남기다 보면 늘어나는 국어 #173 문학’참고)

사람 마음이란 게 참 번덕스러워서요.
평탄한 땅에 편히 서 있으면 느긋해지기 마련입니다.
험한 지경이 코앞까지 닥쳐야만 그제서야 두려워하고 조심하게 됩니다.

느긋해하지 않고 늘 두려워하면서 대비를 해도,
위기가 찾아오면 흔들리기 마련인데요.
대부분은 흐트러져서 스스로 위기를 불러오는 경우가 더 많아요.

제가 만났던 학생 중에서도
부모님이 워낙 부자라 이미 삶이 너무 풍족했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스스로 뭘 안하게 되고,
결국 혼자선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는,
그런 학생이 되어 버렸죠.

책 한 권도 혼자 못 사요.
선생님들이 다 사다줬거든요.
버스 타고 혼자 집도 못 옵니다.
평소에는 기사님이 데려다 줬고,
기사님 없으면 그냥 택시 탔으니깐요.

어차피 부잔데 뭐가 문제냐 싶겠지만요.
명절 날 어른들 앞에서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해서 창피 당하고,
아파트 지하 카페 나가는 것조차도 못하니까,
부모님이 시킬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물려줄 가업이 있어도 물려줄 수 없고,
가게 차려줄 돈이 있어도 차려줄 엄두가 안 나신 겁니다.

내일 모레 성인될 애가,
집에 틀어 박혀 하루 종일 롤하고 폰 붙들고 있고,
졸리면 오후 3시에도 자빠져 자다가,
새벽 4시에 혼자 깨서는 배고프다고 배달음식 시켜서 온가족 다 깨우는,
이런 꼴 보는 것도 하루이틀이지,
1년 365일을 이려고 있으니깐 부모님도 복장 터지시는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입에 물려 있던 그 금수저가,
세상 풍파 다 막아줄 부모라는 황금 우산이,
오히려 독이 된 거예요.

주옹은 말합니다.

스스로 아무것도 지켜낼 수 없는 쓸모없는 인간이 되어
물결에 휩쓸리고 바람에 날아가 죽을 바에야,
차라리 흔들리는 바다에서 늘 위험을 딛고 살며 항상 조심하겠다구요.

세상 자체가 거대한 물결처럼 끊임없이 흔들리고,
세상인심도 바람처럼 수시로 바뀌는데,
이런 세상에라도 어떻게든 껴보겠답시고
눈치 보며 떴다 잠겼다 하지 않겠답니다.

스스로 자기 배의 평형을 잡을 능력이 있어야만,
평형을 지키기 위해 늘 두려워하며 조심해야만,
풍랑이 거세게 인다 해도 동요하지 않을 수 있고,
비로소 내 안위를 지킬 수 있다는 거죠.

당장의 편안함에 안주해 있는 자신의 모습이,
사실은 가장 위태로운 상태에 있는 상황임을 깨닫고,
늘 삼가고 대비해야만
풍랑이 와도 겨우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겁니다.

기업하시는 분들도요.
이 한 여름에 34도의 땡벌에서 겨울 상품 준비하고 테스트하고 계세요.
다가올 예상 시나리오와 시나리오별 플랜을 ABC까지 세워 두고도,
벌벌 떨어서 컨설팅 맡기고 전략 수정하십니다.
이렇게 하는데도 폐업하는 기업들 수도룩해요.

이게 프로들의 세상입니다.
여러분들이 곧 내던져질 냉혹한 세상이기도 하구요.

어쩌면요.
이미 세상은 너무 각박하고 여유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어린 여러분조차도 이미 프로의 모습을 갖춰야만,
겨우겨우 입시에 성공하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어린,
어려도 껴야 할 여러분들에게 참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하루라도 빨리 프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처절하게 성장하고 어떻게든 살아남아서,
나중에 사회에서 봤으면 좋겠네요.

하루하루 파이팅

[지문]

(가)

아도르노는 문화 산업에 의해 양산되는 대중 예술이 이윤 극대화를 위한 상품으로 전락함으로써 예술의 본질을 상실했을 뿐 아니라 현대 사회의 모순과 부조리를 은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도르노가 보는대중 예술은 창작의 구성에서 표현까지 표준화되어 생산되는 상품에 불과하다. 그는 대중 예술의 규격성으로 인해 개인의 감상 능력 역시 표준화되고, 개인의 개성은 다른 개인의 그것과 다르지 않게 된다고 보았다. 특히 모든 것을 상품의 교환 가치로 환원하려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대중 예술은 개인의 정체성마저 상품으로 ①전락시키는 기제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아도르노는 서로 다른 가치 체계를 하나의 가치 체계로 통일시키려는 속성을 동일성으로, 하나의 가치 체계로의 환원을 거부하는 속성을 비동일성으로 규정하고, 예술은 이러한 환원을 거부하는 비동일성을 지녀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렇기 때문에 예술은 대중이 원하는 아름다운 상품이 되기를 거부하고, 그 자체로 추하고 불쾌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에게 있어 예술은 예술가가 직시한 세계의 본질을 감상자들에게 체험하게 해야 한다. 예술은 동일화되지 않으려는, 일정한 형식이 없는 비정형화된 모습으로 나타남으로써 현대 사회의 부조리를 체험하게 하는 매개체여야 한다는 것이다.

아도르노는 쇤베르크의 음악과 같은 전위 예술이 그 자체로 동일화에 저항하면서도, 저항이나 계몽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을 높게 평가한다. 저항이나 계몽을 직접 표현하는 것에는 비동일성을 동일화하려는 폭력적 의도가 내재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불협화음으로 가득 찬 쇤베르크의 음악이 감상자들에게 불쾌함을 느끼게 했던 것처럼 예술은 그것에 드러난 비동일성을 체험하게 함으로써 동일화의 폭력에 저항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도르노에게 있어 예술은 사회적 산물이며, 그래서 미학은 작품에 침전된 사회의 고통스러운 상태를 읽기 위해 존재한다. 그는 비동일성 그 자체를 속성으로 하는 전위 예술을 예술이 추구해야 할 바람직한 모습으로 제시했다.

(나)

아도르노의 미학은 예술과 사회의 관계를 통해 예술의 자율성을 추구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예술은 사회적인 것인 동시에 사회에서 떨어져 사회의 본질을 직시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의 미학은 기존의 예술에 대한 비판적 관점을 제공한다. 가령 사과를 표현한 세잔의 작품을 아도르노의 미학으로 읽어 낸다면, 이 그림은 사회의 본질과 ②유리된 '아름다운가상'을 표현한 것에 불과할 것이다.

하지만 세잔의 작품은 예술가의 주관적 인상을 붉은색과 회색 등의 색채와 기하학적 형태로 표현한 미메시스일 수 있다. 미메시스란 세계를 바라보는 주체의 관념을 재현하는 것, 즉 감각될 수 없는 것을 감각 가능한 것으로 구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세잔의 작품은 눈에 보이는 특징의 사과가 아닌 예술가의 시선에 포착된 세계의 참모습, 곧 자연의 생명력과 그에 얽힌 농부의 삶 그리고 이를 ③응시하는 예술가의 사유를 재현한 것이 된다.

아도르노는 예술이 예술가에게 포착된 세계의 본질을 감상자로 하여금 체험하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미적 체험을 현대 사회의 부조리에 국한시킴으로써, 진정한 예술을 감각적 대상인 형태 그 자체의 비정형성에 대한 체험으로 한정한다. 결국 ④아도르노의 미학에서는 주관의 재현이라는 미메시스가 부정되고 있다.

한편 아도르노의 미학은 예술의 영역을 극도로 축소시키고 있다. 즉 그 자신은 동일화의 폭력을 비판하지만, 자신이 추구하는 전위 예술만이 진정한 예술이라고 주장하며 ⑤전위 예술의 관점에서 예술의 동일화를 시도하고 있다. 특히 이는 현실 속 다양한 예술의 가치가 발견될 기회를 ⑥박탈한다. 실수로 찍혀 작가의 어떠한 주관도 결여된 사진에서조차 새로운 예술 정신을 ⑦발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베냐민의 지적처럼, 전위 예술이 아닌 예술에서도 미적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 또한 대중음악이 사회적 저항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례도 있듯이, 자본의 논리에 편승한 대중 예술이라 하더라도 사회에 대한 비판적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도 있다.

[문제] 진위판단

1. (가)는 (나)와 달리 화제와 관련된 개념을 정의하고 개념의 변화 과정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서술 방식의 차이가 있다.
정답 : (참 / 거짓)
2. 아도르노가 보는 대중 예술은 모든 것을 상품의 교환 가치로 환원하려는 자본주의 사회의 속성을 은폐한다.
정답 : (참 / 거짓)
3. ㉠의 이유는 비정형적 형태뿐 아니라 정형적 형태 역시 재현되기 때문이다.
정답 : (참 / 거짓)
4. ㉠의 이유는 미적 체험의 대상이 사회의 부조리에서 세계의 본질로 변화되기 때문이다.
정답 : (참 / 거짓)
5. ㉠의 이유는 미적 체험의 과정에서 비정형적인 형태가 예술가의 주관으로 왜곡되기 때문이다.
정답 : (참 / 거짓)
6. ㉠의 이유는 예술가의 주관이 가려지고 작품에 나타난 형태에 대한 체험만이 강조되기 때문이다.
정답 : (참 / 거짓)
7. (가)의 '아도르노'의 관점을 바탕으로 ㉠에 대해 반박할 때, 전위 예술은 동일성과 비동일성의 구분을 거부하므로 전위 예술로의 동일화는 새로운 차원의 비동일성으로 전환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정답 : (참 / 거짓)
8. (가)의 '아도르노'의 관점을 바탕으로 ㉠에 대해 반박할 때, 동일화를 거부하는 속성이 전위 예술의 본질이므로 전위 예술을 추구하는 것은 동일화가 아니라 비동일화를 지향하는 것이라는 점을 들 수 있다.
정답 : (참 / 거짓)
9. (가) 아도르노의 관점에 따르면, '시골 마을의 서정적인 풍경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그림으로 색감과 조형미가 뛰어나 오랫동안 기억에 잔상으로 남았던 작품'에서 서정성과 조형미는 부조리에 대한 저항과는 괴리가 있다. 사회에 대한 저항을 직접적으로 드러낸 예술이어야 진정한 예술이라고 할 수 있다.
정답 : (참 / 거짓)
10. (나)의 글쓴이의 관점에 따르면, '제목은 '자화상'이었지만 얼굴의 형상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기괴한 모습이었고, 제각각의 형태와 색채들이 이곳저곳 흩어져 있어 불편한 감정만 느껴졌던 작품'은, 흩어져 있는 형태와 색채가 예술가의 표현 의도를 담고 있지 않더라도 그 작품에서 예술적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
정답 : (참 / 거짓)

※ 2023학년도 2022년 고3 9평 4번 ~ 9번 비문학 지문 참조

- 스스로 정답을 정하고, 그 근거도 정리해본 후에, '정답 및 해설'을 보셔야 합니다 -

#187 정답 및 해설

[지문]

(가)

아도르노는 문화 산업에 의해 양산되는 대중 예술이 이윤 극대화를 위한 상품으로 전락함으로써 예술의 본질을 상실했을 뿐 아니라 현대 사회의 모순과 부조리를 은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도르노가 보는 대중 예술은 창작의 구성에서 표현까지 표준화되어 생산되는 상품에 불과하다. 그는 대중 예술의 규격성으로 인해 개인의 감상 능력 역시 표준화되고, 개인의 개성은 다른 개인의 그것과 다르지 않게 된다고 보았다. 특히 모든 것을 상품의 교환 가치로 환원하려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대중 예술은 개인의 정체성마저 상품으로 ㉠전락시키는 기제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아도르노는 서로 다른 가치 체계를 하나의 가치 체계로 통일시키려는 속성을 동일성으로, 하나의 가치 체계로의 환원을 거부하는 속성을 비동일성으로 규정하고, 예술은 이러한 환원을 거부하는 비동일성을 지녀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렇기 때문에 예술은 대중이 원하는 아름다운 상품이 되기를 거부하고, 그 자체로 추하고 불쾌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에게 있어 예술은 예술가가 직시한 세계의 본질을 감상자들에게 체험하게 해야 한다. 예술은 동일화되지 않으려는, 일정한 형식이 없는 비정형화된 모습으로 나타남으로써 현대 사회의 부조리를 체험하게 하는 매개여야 한다는 것이다.

아도르노는 쇤베르크의 음악과 같은 전위 예술이 그 자체로 동일화에 저항하면서도, 저항이나 계몽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을 높게 평가한다. 저항이나 계몽을 직접 표현하는 것에는 비동일성을 동일화하려는 폭력적 의도가 내재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불협화음으로 가득 찬 쇤베르크의 음악이 감상자들에게 불쾌함을 느끼게 했던 것처럼 예술은 그것에 드러난 비동일성을 체험하게 함으로써 동일화의 폭력에 저항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도르노에게 있어 예술은 사회적 산물이며, 그래서 미학은 작품에 침전된 사회의 고통스러운 상태를 읽기 위해 존재한다. 그는 비동일성 그 자체를 속성으로 하는 전위 예술을 예술이 추구해야 할 바람직한 모습으로 제시했다.

(나)

아도르노의 미학은 예술과 사회의 관계를 통해 예술의 자율성을 추구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예술은 사회적인 것인 동시에 사회에서 떨어져 사회의 본질을 직시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의 미학은 기존의 예술에 대한 비판적 관점을 제공한다. 가령 사과를 표현한 세잔의 작품을 아도르노의 미학으로 읽어 낸다면, 이 그림은 사회의 본질과 ㉡유리된 '아름다운 가상'을 표현한 것에 불과할 것이다.

[현장독해]

- 아도르노(A) vs 문화 산업에 의해 양산되는 대중 예술(B) = 이윤 극대화를 위한 상품(B) vs 예술의 본질(A)을 상실(B)

[차이점 파악]

- 현대 사회의 모순과 부조리(A)를 은폐(B)
- 아도르노(A)가 보는 대중예술(B)
- 표준화(B)되어 생산되는 상품(B) = 규격성(B)
= 개인의 감상 능력 역시 표준화(B) = 개인의 개성이 다른 개인의 개성과 다르지 않게 된다고(B) [비슷한 표현 묶기]

- 개인의 정체성마저 상품으로 전락(B)
- 어~느새~부터~힙~힙~은안멋져~이건~하나의~유행~혹은TV쇼~
[나만의 예시를 들어 이해도 높이기]

- 하나의 가치 체계로 통일(B) = 동일성(B) = 하나의 가치 체계로의 환원(B) vs 환원(B)을 거부(A) = 비동일성(A)[차이점 파악]

- 대중이 원하는 아름다운 상품(B)
vs 예술은 추하고 불쾌한 것이 되어야(A)
- 예술가가 직시한 세계의 본질(A)
- 동일화(B)되지 않으려는(A), 일정한 형식(B)이 없는 비정형(A)
= 현대 사회의 부조리(A) 체험의 매개 = 예술가가 직시한 세계의 본질을 감상자들에게 체험하게 해야 [비슷한 표현들 묶기]

- 쇤베르크 = 전위 예술 = 동일화(B)에 저항(A)
-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음(A)
- 직접 표현하는 것(B)도 비동일성(A)을 동일화(B)하는 폭력적 의도(B)
- 불협화음(A) = 불쾌감(A)
= 비동일성 체험(A)
vs 동일화의 폭력(B)에 저항(A)

- 작품에 침전된 사회의 고통스러운 상태(A)를 읽기 위해(A)
- 비동일성(A) = 전위예술(A)

- 예술의 자율성(A)
- 사회에서 떨어져 사회의 본질을 직시하는 것(A)
- 기존의 예술(B)
- 사과를 표현한 세잔의 작품(B)
- 사회의 본질(A)과 유리된(B) 아름다운 가상(B)을 표현한 것에 불과

*유리된 : (동사) 따로 떨어지게 되다. [상위권 어휘력]

하지만 세잔의 작품은 예술가의 주관적 인상을 붉은색과 회색 등의 색채와 기하학적 형태로 표현한 미메시스일 수 있다. 미메시스란 세계를 바라보는 주체의 관념을 재현하는 것, 즉 감각될 수 없는 것을 감각 가능한 것으로 구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세잔의 작품은 눈에 보이는 특성의 사과가 아닌 예술가의 시선에 포착된 세계의 참모습, 곧 자연의 생명력과 그에 얽힌 농부의 삶 그리고 이를 **☉응시하는 예술가의 사유를 재현한 것**이 된다.

아도르노는 예술이 예술가에게 포착된 세계의 본질을 감상자로 하여금 체험하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미적 체험을 현대 사회의 부조리에 국한시킴으로써, 진정한 예술을 감각적 대상인 형태 그 자체의 비정형성에 대한 체험으로 한정한다. 결국 **㉠아도르노의 미학에서는 주관의 재현이라는 미메시스가 부정되고 있다.**

한편 아도르노의 미학은 예술의 영역을 극도로 축소시키고 있다. 즉 그 자신은 동일화의 폭력을 비판하지만, 자신이 추구하는 전위 예술만이 진정한 예술이라고 주장하며 **㉡전위 예술의 관점에서 예술의 동일화를 시도하고 있다.** 특히 이는 현실 속 다양한 예술의 가치가 발견될 기회를 **㉢박탈한다.** 실수로 찍혀 작가의 어떠한 주관도 결여된 사진에서조차 새로운 예술 정신을 **㉣발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베나민의 지적처럼, 전위 예술이 아닌 예술에서도 미적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 또한 대중음악이 사회적 저항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례도 있듯이, 자본의 논리에 편승한 대중 예술이라 하더라도 사회에 대한 비판적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도 있다.

[문제] 진위판단

1. (가)는 (나)와 달리 화제와 관련된 개념을 정의하고 개념의 변화 과정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서술 방식의 차이가 있다.
정답 : (참 / 거짓)
2. 아도르노가 보는 대중 예술은 모든 것을 상품의 교환 가치로 환원하려는 자본주의 사회의 속성을 은폐한다.
정답 : (참 / 거짓)

- 미메시스
- 세계를 바라보는 주체 = 예술가 **[비슷한 표현 연결하기]**

- 눈에 보이는 특정 사과의 재현(B)
- 예술가의 시선에 포착된 세계의 참모습(A)을 응시하는 예술가의 사유 재현(B속의 A)
- = 그냥 재현이면 B지만 예술가의 관념, 사유의 재현이니까 B속의 A

★ 2015학년도 수능 신채호 '비아 속의 아' 떠올렸으면 최상위권

- 예술가에게 포착된 세계의 본질(A)을 감상자로 하여금 체험하게 하는 것
- 현대 사회의 부조리(A)
- 비정형성(A)
- **㉠그니까, 아도르노 이 양반은 '재현' 들어가면 다 싫어한다. '주관의 재현'은 좀 예외로 들만 한데도 부정한다.**

[밑줄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보고 넘어가기]

- 아도르노 미학(A)은 예술의 영역을 극도로 축소(A속의 B)
- 동일화의 폭력(B) 비판(A) vs 전위 예술'만' 진정한 예술(B)

- **㉡전위 예술의 관점에서 예술의 동일화 시도(A속의 B)**
- = 아도르노 당신 동일화(B) 그렇게 싫어하면서 본인은 '전위 예술'로 동일화시키네. 이거 내로남불 자기모순 아냐? 아도르노(A) 속 동일성(B), 2015학년도 수능 신채호 '아 속의 비아'같은 거네

[밑줄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보고 넘어가기]

- 다양한 예술의 가치가 발견될 기회 박탈(A속의 B)
- 심지어 '실수'는 '주관' 안 들어갔지만 그렇다고 해서 B가 아니고 A일 수 있는데. 반례 not A but A.
- 전위예술(A) 아닌 예술(B)에서도 A 있을 수 있는데. 반례 B속의 A.
- = 대중음악(B)이 사회적 저항의 메시지 전달(A) = B속의 A
- 자본의 논리에 편승한 대중 예술(B)이 사회에 대한 비판적 기능(A) 수행 = B속의 A

[정답 및 해설] 1.거짓, 2.참, 3.거짓, 4.거짓, 5.거짓, 6.참, 7.거짓, 8.참, 9.거짓, 10.참

1. '(나)와 달리' 부분은 우선 지우고, (가)에 대해 먼저 판단해보면 2문단에 아도르노가 동일성, 비동일성을 규정한 건 있으나 개념의 '변화 과정'은 없지. 거짓. **['달리'문제 해체해서 풀기]** + 개인의 정체성이 대중예술에 의해 상품으로 전락하는 건 나오지만 개인의 정체성에 대한 정의가 나오지는 않고.
2. 아도르노(A)가 보는 대중 예술(B) = 모든 것을 상품의 교환 가치로 환원하려는 자본주의 사회의 속성을 은폐(B). 사회의 모순과 부조리(A)를 드러내야지 은폐하면 B지. B가 B했다. 참. + 안 좋은 걸 숨겨줬다는 것도 역시 안 좋은 것.

★★★ 비문학 독해 기초 : 비슷한 표현끼리 묶어서 연결해가며 읽는다. ★★★

- A : 아도르노
- A속의 B : 아도르노 속 동일성 강요(자기모순)
- B : 대중예술
- B속의 A: 대중예술 속 아도르노와 유사점

이렇게 'A', 'B', 'A속의 B', 'B속의 A' 크게 4가지 틀로 지문 표현들을 연결해 4개 그룹으로 묶어가며 독해했다면 지문 이해도가 많이 높아졌을 것입니다. 비슷한 표현끼리는 연결해서 묶고 및 반대되는 표현들은 다른 그룹으로 구분하면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하는 것을 물었던 지문이었습니디. 2015학년도 수능 국어 '신채호' 지문 많이 까다로우셨을 텐데, 그 지문도 '아' '비아' '아 속의 비아' '비아 속의 아' 4개 그룹으로 묶어서 읽어보면 많이 편해질 겁니다.

수능 국어 비문학 독해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글을 읽으실 때, 의미는 비슷한데 표현만 다른 것들끼리 연결지어가며 글을 읽으시면 좋습니다. 또한 이러한 표현들을 같은 편, 다른 편, 니편, 내편으로 그룹 지어가며 읽어보세요. 글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주는 좋은 독해 습관입니다. 이런 좋은 독해 습관을 갖고 있는지 확인하고, 갖추고 있을 것을 요구하는 게 수능 비문학 출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수능 국어뿐만 아니라 수능 영어에서도 의미는 사실상 같은데 표현만 다른 것들을 연결해 가며 독해해 보세요. 지문 이해도가 더욱 높아질 겁니다. 마찬가지로 국어의 지시대명사, 지시관형사와 영어의 대명사, it, that 등도 앞에 비슷한 의미의 표현을 떠올려 가면서 읽어 보세요. 지문 이해도가 높아질 겁니다.

최근에는 수능 비문학의 출제 난이도가 높아지며, 위와 같은 '동어반복 - 그룹 짓기 - 그룹 간 공통점 차이점 비교하기'만으로 문제를 풀기는 쉽지 않는 지문과 문제도 등장하게 되었습니다만, 여전히 기초적인 독해법으로서 출제자가 요구하고 있으니깐요. 좋은 독해 습관으로 만들어두시기 바랍니다.

#188 문학

[문제]

아래 제시된 '태도'의 의미를 자신만의 표현으로 정리해본 후,
각 태도들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일지 스스로에게 설명해보시기 바랍니다.

회의적 태도 :
비판적 태도 :
비관적 태도 :
체념적 태도 :
순응적 태도 :

냉소적 태도 :
자조적 태도 :

성찰적 태도 :
회고적 태도 :

도피적 태도 :
관조적 태도 :

예찬적 태도 :
동경적 태도 :

의지적 태도 :
낙관적 태도 :

달관적 태도 :
탈속적 태도 :

자연친화적 태도 :
조화적 태도 :

#188 정답 및 해설

[정답 및 해설]

* 맥락에 따라 태도들의 의미는 확장·응용될 수 있습니다.

* 각 태도들이 서로 완전히 대립되는 개념은 아니며, 둘 이상의 태도를 동시에 가질 수도 있습니다

회의적 태도 : **의심**을 품어 판단을 보류하거나 중지하고 있는, 믿지 않는 태도

비판적 태도 : 현상·사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밝히거나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태도

비관적 태도 : 인생을 어둡게만 보아 슬퍼하거나 절망스럽게 여기는 태도(**현실·미래를 부정적으로 보는**)

체념적 태도 : 희망을 버리고 아주 단념한 태도(**미래 포기**)

순응적 태도 : 환경·변화·운명에 적응하여 익숙하여지거나 체계, 명령 따위에 적응하여 **따르는** 태도

냉소적 태도 : **쌀쌀한** 태도로 비웃는 태도

자조적 태도 : **스스로 자기를** 비웃는 태도

성찰적 태도 : 자기의 마음을 **반성**하고 살피는 태도

회고적 태도 : 지나간 일을 **돌이켜** 생각하는 태도

도피적 태도 :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일에서 몸을 사려 **빠져나가는** 태도

관조적 태도 : 고요한 마음으로 사물이나 현상을 **관찰**하거나 비추어 보는 태도

예찬적 태도 : 무엇이 훌륭하거나 좋거나 아름답다고 **찬양**하는 태도(*칭찬은 애매. 위에서 아래가 아니라

동경적 태도 : 어떤 것을 간절히 **그리워**하여 그것만을 생각하는 태도

의지적 태도 : 어떠한 일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태도

낙관적 태도 : 인생·사물·**미래를 밝고 희망적인 것으로 보는** 태도

달관적 태도 : 사소한 사물·일에 얽매이지 않고 세속뿐 아니라 개인의 집착까지도 벗어난 태도(**초월적**)

탈속적 태도 : 부나 명예와 같은 현실적인 이익(**속세**)을 추구하는 **마음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태도

자연친화적 태도 : **자연**을 오염하지 않고 자연과 잘 어울리고자 하는 태도

조화적 태도 : (**자연 아닐 수도**) 어긋나거나 부딪침이 없이 서로 고르게 잘 어울리고자 하는 태도

#189 문법

[보기]

‘뿐’은 품사에 따라 앞말에 붙여 쓰는 경우가 있고, 띄어 쓰는 경우도 있는 등 띄어쓰기가 달라진다. ‘나에게는 너뿐이야.’에서처럼 ‘너’라는 체언 뒤에 붙어서 한정어 뜻을 나타낼 때의 ‘뿐’은 조사이기 때문에 앞말에 붙여 써야 한다. 그런데 ‘그녀는 조용히 웃을 뿐이었다.’에서의 ‘뿐’은 체언을 수식하는 관형어 ‘웃을’ 뒤에 붙어서 ‘따름’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의존 명사이기 때문에 앞말과 띄어 써야 한다. ‘뿐’과 같이 띄어쓰기가 달라지는 대표적인 예로 ‘대로’, ‘만큼’이 있다.

[문제] 띄어쓰기가 바르게 된 문장을 모두 고르시오

1. 아는 대로 모두 말하여라.
2. 마음이 약해질 대로 약해졌다.
3. 모든 것이 자기 생각대로 되었다.
4. 손님들은 먹을만큼 충분히 먹었다.
5. 그 사람은 말 만큼은 누구보다 앞선다.

정답 : ()

※ 2019년 고1 6월 14번 문법 지문 참조

#189 정답 및 해설

[보기]

‘뿐’은 품사에 따라 앞말에 붙여 쓰는 경우가 있고, 띄어 쓰는 경우도 있는 등 띄어쓰기가 달라진다. ‘나에게는 너뿐이야.’에서처럼 ‘너’라는 체언 뒤에 붙어서 한정적 뜻을 나타낼 때의 ‘뿐’은 조사이기 때문에 앞말에 붙여 써야 한다. 그런데 ‘그녀는 조용히 웃을 뿐이었다.’에서의 ‘뿐’은 체언을 수식하는 관형어 ‘웃을’ 뒤에 붙어서 ‘따름’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의존 명사이기 때문에 앞말과 띄어 써야 한다. ‘뿐’과 같이 띄어쓰기가 달라지는 대표적인 예로 ‘대로’, ‘만큼’이 있다.

[문제] 띄어쓰기가 바르게 된 문장을 모두 고르시오

1. 아는 대로 모두 말하여라.
2. 마음이 약해질 대로 약해졌다.
3. 모든 것이 자기 생각대로 되었다.
4. 손님들은 먹을만큼 충분히 먹었다.
5. 그 사람은 말 만큼은 누구보다 앞선다.

[현장독해]

- 체언 뒤에 붙어서 한정적 뜻을 나타낼 때는 조사이므로 앞말에 붙여 쓴다.
- 체언을 수식하는 관형어 뒤에 붙어서 ‘따름’의 뜻을 나타내면 의존 명사이기 때문에 띄어 쓴다
- 대로, 만큼으로 문제 내겠네.

[정답 및 해설] 1, 2, 3

1. ‘아는’이 체언을 수식하는 관형어. 띄어 씀.
2. ‘약해질’이 체언을 수식하는 관형어. 띄어 씀.
3. 체언 ‘생각’ 뒤에 붙어서 한정적 뜻 나타내는 보조사. 붙여 씀.
4. ‘먹을’이 체언을 수식하는 관형어. 띄어 씀.
5. 체언 ‘말’ 뒤에 붙어서 한정적 뜻 나타내는 조사. 붙여 씀.

★★★ 의존명사 vs 조사·접사·어미(형식형태소) ★★★

아래와 같은 한글맞춤법 조항 및 해설들을 보면 의존명사는 띄어 써야 하고, 조사·접사·어미 등의 형식형태소는 붙여 써야 합니다.

한글맞춤법 제4장 제2절 제15항 용언의 어간과 어미는 구별하여 적는다.

한글맞춤법 제4장 제3절 제19항 ~ 제26항 접미사가 붙어서 된 말

한글맞춤법 제4장 제4절 제27항 ~ 제 31항 합성어 및 접두사가 붙은 말

한글맞춤법 제5장 제1절 제41항 조사는 그 앞말에 붙여 쓴다

한글맞춤법 제5장 제2절 제42항 의존 명사는 띄어 쓴다

대로

- 의존명사 : 용언의 관형사형 전성어미 '-는' 뒤에 쓰여, 상태 등을 나타내는 의존명사 ㉠ 아는 대로만 하자
- 보조사 : 앞에 오는 말에 근거하거나 달라짐이 없음을 나타내는 보조사 ㉠ 규정대로, 말대로

만큼

- 의존명사 : 앞의 내용에 상당한 수량이나 정도임을 나타내는 의존명사 ㉠ 먹을 만큼만 먹어
- 격조사 : 체언의 뒤에 붙어, 말과 비슷한 정도나 한도임을 나타내는 격조사 ㉠ 집을 대궐만큼 크게 짓다.
- 보조사 : 체언의 뒤에 붙어, 비교의 대상과 거의 비슷한 정도임을 나타내는 보조사 ㉠ 나도 언니만큼 요리를 잘할 수 있다.

만

- 의존명사 : 시간의 경과·횟수·거리, 앞말이 뜻하는 동작이나 행동에 타당한 이유가 있음을 나타내는 의존명사 ㉠ 그럴 만도 해
- 보조사 : 한정·강조·비교의 뜻을 나타내는 조사 ㉠ 이것만 하고 잘게요

뿐

- 의존명사 : 용언의 관형사형 전성어미 '-을' 뒤에 쓰여, 다만 어떠하거나 어찌할 따름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의존명사. / ~다 뿐이지' 구성으로 쓰여, 오직 그렇게 하거나 그러하다는 걸 나타내는 의존명사 ㉠ 가만히 미소나 지을 뿐이다 / 유명하지 않다 뿐이지 좋아.
- 조사 : 한정의 뜻을 나타내는 조사 ㉠ 진짜 이것뿐입니다

지

- 의존명사 : 어떤 일이 있었던 때로부터 지금까지의 동안을 나타내는 의존명사 ㉠ 말이 끝난 지 십 분도 안됐는데요.
- 연결어미 -르지 : 추측에 대한 막연한 의문이 있는 채로 그것을 뒤 절의 사실이나 판단과 관련시키는 데 쓰는 연결 어미. ㉠ 갈지 말지 정하자

프로들의 모습5. 주변의 가히 모든 걸 성장의 자양분으로 삼는다.

‘스마트폰 좀 그만 보고 주위를 더 보면서 다니고 있어요.’
‘이번 기회에 이어폰 꽂고 노래들으며 걷는 습관 버렸어요.’
‘이상한 행동 보이고 이상한 소리 들리면, 괜히 쳐다보지 말고 바로 튜려구요.’
‘그냥 독서실에 처박혀서 안 나오면 그게 제일 안전한 거 아님? 집-스카-학원만 돌면 밖에 오래 있을 일이 없음~’

이번 칼부림 사태에 대해 얘기하던 중 학생들에게 들은 얘기인데요.
어린 학생들임에도 불구하고, 저도 따라하고 배울 정도로 지혜롭네요.

요새도 마스크 쓰고 다니는 분이 계셔서 왜 그런지 물어봤는데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코로나 때 마스크 쓰는 습관이 들었는데, 미세먼지도 몸에 안 좋고 하니까 앞으로 평생 마스크 쓰려고 한다.’
저도 아직 마스크 집에 많이 남았는데, 계속 써볼까 해요.

최근 교육부 킬리지문 저격 사건 때,
존경하는 현우진 선생님께선
‘애들만 불쌍하지... …… 매번 말씀드리듯이
6,9,수능은 독립시행이니
앞으로는 더 뭐가 어떻게 어떤 난이도로 출제될지 종잡을 수 없으니
모든 시나리오 다 대비하는 수밖에 없네요. ……
여러분이 학습하는 자료의 문제가 아니라
평소 받아들이는 태도의 문제가 커지겠네요.
비판적인 사고는 중요하지만 **적어도 테스트에서는
모든 것이 나올 수 있다는 비비판적인 사고로 마음을 여시길**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6월 ~ 8월을 한번 돌이켜 보죠.
교육부 발언으로 여러분 공부 방향 크게 바뀐 거 있으세요?
이감·상상·한수·바탕 콘텐츠나 강사분 커리 교재 풀고,
EBS 심화분석·연계변형 콘텐츠 풀고 있잖아요.
여전히 어려운 고난도 지문이란 실전모의고사 계속 도전하고 계시구요.

사실 바뀐 건, 바뀌었어야 할 건
현우진 선생님 말씀처럼 ‘태도’였습니다.
시험이 쉽게 나오면 잔실수 때문에 재수할 수 있으니,
잔실수 최대한 없애려고 고민하고 연구했어야 합니다.
EBS를 해설지까지 읽고 관련 배경지식 공부도 더 하는 등,
EBS에 전보다 더 신경 쓰자는 ‘마인드’가 좀 생겼어야 합니다.
이에 더해 어려운 문제가 나올 1%의 가능성까지도 대비하는
‘비비판적 사고’도 잃지 않았어야 했구요.

요지는 이렇습니다.
칼부림이 나고, 코로나가 터지고, 정부에서 지침을 바꾸고 역까를 해도,
주위에서 가히 어떤 상황이 펼쳐져도,
그걸 본인의 태도·마인드·습관을 개선하는 계기로 삼는 게 프로입니다.
이게 바로 현우진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태도의 문제’일 겁니다.

하루하루 남다르게 실력이 늘고
시간이 갈수록 더 멋있어지는 사람들은,
사소한 경험과 상황 변화조차도
자기 성장의 수단으로 삼아 성장 속도를 높이더군요.

말이야 좀 가볍게, 싸가지 없게, 실제와 다르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었고,
바뀌기까지의 시간차는 좀 있었어도,
프로들은 결국 바뀐 그 상황에서조차 성과를 낼
태도·마인드·습관을 갖춰내더군요.

사소한 경험이든 중대한 상황이든 가리지 마시고,
눈앞에 펼쳐진 가치 모든 경험으로부터 자기를 고쳐나가셔야,
사소하답시고 그냥 넘기고
심지어 중요해 보여도 귀찮다면 대충하는
아마추어를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스스로를 바꾸는데서 더 나아가,
나보다 잘난 사람을 목표로 두고 그 사람을 계속 관찰해보세요.
나보다 성적 좋은 저 친구는 왜 저런 행동을 할까? 공부에 어떤 도움이 될까?
성공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할까? 효과·의도가 뭘까?
분석도 해보시구요.
남들이 어떤 행동은 하고 또 어떤 행동은 하지 않는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반드시 있습니다.

더 큰 용기를 발휘해 직접 물어보셔도 됩니다.
인성까지 좋은 분이라면
친절히, 상세히, 아낌없이 알려줄 겁니다.

요새 재는 DNA부터가~ 개는 부모가~
어쨌든 나랑 달라서 배우는 게 오히려 안 좋을 수도 있고~
뭘 이런 얘기들 하시는데요.
그래도 분명히 있어요 배울 점.

돌이켜 보면 초중고대학교 시절,
제가 배울 점이 없었던 사람은 정말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스스로가 겸손하지 못하고 오만방자해서, 배울 마음이 없어서,
못 배웠던 거고 성장이 더뎠던 겁니다.
여러분은 저처럼 후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를 만나든 나도 하면 좋을 점들을 파악하고,
그걸 자기 걸로 만들어내는 게 프로입니다.

잘난 사람이 되려고 그들을 본받는 와중에,
본인보다 못한·못난 사람들까지 돌아보며,
뺄지 말고 하지 말아야할 단점을 찾아 보완해보세요.
모자라 보이는 그 사람처럼 되지 않기 위해,
잘난 사람들의 집단에 더 어울리는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게 프로입니다.

사소한 경험, 못한 모습들, 안 좋은 상황조차도 성장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그래서 하루하루 경쟁자들보다 더 많이 성장하기를 응원합니다.

[지문]

암 치료에 사용되는 항암제는 세포 독성 항암제와 표적 항암제로 나뉜다. ㉠파클리탁셀과 같은 세포 독성 항암제는 세포 분열을 방해하여 세포가 증식하지 못하고 사멸에 이르게 한다. 그러므로 세포 독성 항암제는 암세포뿐 아니라 정상 세포 중 빈번하게 세포 분열하는 종류의 세포도 손상시킨다. 이러한 세포 독성 항암제의 부작용은 이 약제의 사용을 꺼리게 하는 주된 이유이다. 반면에 표적 항암제는 암세포에 선택적으로 작용하도록 고안된 것이다.

암세포에서는 변형된 유전자가 만들어 낸 비정상적인 단백질이 세포 분열을 위한 신호 전달 과정을 왜곡하여 과다한 세포 증식을 일으킨다. 암세포가 종양으로 자라려면 종양 속으로 연결되는 새로운 혈관의 생성이 필수적이다. 표적 항암제는 암세포가 증식하고 종양이 자라는 과정에서 어느 단계에 개입하느냐에 따라 신호 전달 억제제와 신생 혈관 억제제로 나뉜다.

신호 전달 억제제는 암세포의 증식을 유도하는 신호 전달 과정에서 특정 단계의 진행을 방해한다. 신호 전달 경로는 암의 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신호 전달 억제제는 특정한 암에만 치료 효과를 나타낸다. 만성골수성백혈병(CML)의 치료제인 ㉡이마티닙이 그 예이다. 만성골수성백혈병은 골수의 조혈 모세포가 혈구로 분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혈액암이다. 만성골수성백혈병 환자의 95% 정도는 조혈 모세포의 염색체에서 돌연변이 유전자가 형성되어 변형된 형태의 효소인 Bcr-Abl 단백질을 만들어 낸다. 이 효소는 암세포 증식을 유도하는 신호 전달 경로를 활성화하여 암세포를 증식시킨다. 이러한 원리에 착안하여 Bcr-Abl 단백질에 달라붙어 그것의 작용을 방해하는 이마티닙이 개발되었다.

신생 혈관 억제제는 암세포가 새로운 혈관을 생성하는 것을 방해한다. 암세포가 증식하여 종양이 되고 그 종양이 자라려면 산소와 영양분이 계속 공급되어야 한다. 종양이 계속 자라려면 종양에 인접한 정상 조직과 종양이 혈관으로 연결되고, 종양 속으로 혈관이 뻗어 들어와야 한다. 대부분의 암세포들은 혈관내피 성장인자(VEGF)를 분비하여 암세포 주변의 조직에서 혈관내피세포를 증식시킴으로써 새로운 혈관을 형성한다. 이러한 원리에 착안하여 종양의 혈관 생성을 저지할 수 있는 약제인 ㉢베바시주맙이 개발되었다. 이 약제는 인공적인 항체로서 혈관내피 성장인자를 항원으로 인식하여 결합함으로써 혈관 생성을 방해한다. 베바시주맙은 대장암의 치료제로 개발되었지만 다른 여러 종류의 암에도 효과가 있다.

[문제] 진위판단

1. ㉠은 ㉡과 달리 세포의 증식을 방해한다 정답 : (참 / 거짓)
2. ㉢은 ㉠과 달리 암세포가 분비하는 성장인자에 작용한다. 정답 : (참 / 거짓)

[문제] 26번. 밑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 ㉡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어떤 암세포를 시험관 속의 액체에 넣었다. 액체 속에는 산소와 영양분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액체 속의 암세포는 세포 분열을 하여 1~2mm의 작은 암 덩이로 자란 후 더 이상 증식하지 않았다.

같은 종류의 암세포를 실험동물에게 주입하였다. ㉡주입된 암세포는 커다란 종양으로 계속 자라났고, 종양의 일부 조직을 조사해 보니 조직 내부에 혈관이 들어차 있었다.

- ① ㉠에서는 혈관내피 성장인자 분비를 통한 혈관 생성이 이루어지지 못했겠군.
- ② ㉠와 함께 Bcr-Abl 단백질을 액체에 넣는다면 암세포가 큰 종양으로 계속 자라겠군.
- ③ ㉡와 함께 세포 독성 항암제를 주입한다면 암세포의 분열이 억제되겠군.
- ④ ㉡가 종양으로 자랄 수 있었던 것은 산소와 영양분이 계속 공급되었기 때문이겠군.
- ⑤ ㉡가 종양으로 자라는 과정에서 암세포의 증식을 유도하는 신호 전달 경로에 비정상적인 단백질의 개입이 있었겠군.

※ 2016학년도 2015년 고3 9평 25 ~ 26번 비문학 문제 참조

#191 정답 및 해설

[지문]

암 치료에 사용되는 항암제는 세포 독성 항암제와 표적 항암제로 나뉜다. ㉠파클리탁셀과 같은 세포 독성 항암제는 세포 분열을 방해하여 세포가 증식하지 못하고 사멸에 이르게 한다. 그러므로 세포 독성 항암제는 암세포뿐 아니라 정상 세포 중 빈번하게 세포 분열하는 종류의 세포도 손상시킨다. 이러한 세포 독성 항암제의 부작용은 이 약제의 사용을 꺼리게 하는 주된 이유이다. 반면에 표적 항암제는 암세포에 선택적으로 작용하도록 고안된 것이다.

암세포에서는 변형된 유전자가 만들어 낸 비정상적인 단백질이 세포 분열을 위한 신호 전달 과정을 왜곡하여 과도한 세포 증식을 일으킨다. 암세포가 종양으로 자라려면 종양 속으로 연결되는 새로운 혈관의 생성이 필수적이다. 표적 항암제는 암세포가 증식하고 종양이 자라는 과정에서 어느 단계에 개입하느냐에 따라 신호 전달 억제제와 신생 혈관 억제제로 나뉜다.

신호 전달 억제제는 암세포의 증식을 유도하는 신호 전달 과정 중 특정 단계의 진행을 방해한다. 신호 전달 경로는 암의 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신호 전달 억제제는 특정한 암에만 치료 효과를 나타낸다. 만성골수성백혈병(CML)의 치료제인 ㉡이마티닙이 그 예이다. 만성골수성백혈병은 골수의 조혈 모세포가 혈구로 분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혈액암이다. 만성골수성백혈병 환자의 95% 정도는 조혈 모세포의 염색체에서 돌연변이 유전자가 형성되어 변형된 형태의 효소인 Bcr-Abl 단백질을 만들어 낸다. 이 효소는 암세포 증식을 유도하는 신호 전달 경로를 활성화하여 암세포를 증식시킨다. 이러한 원리에 착안하여 Bcr-Abl 단백질에 달라붙어 그것의 작용을 방해하는 이마티닙이 개발되었다.

[현장독해]

- 세포 독성 항암제 vs 표적 항암제 [차이점 구분]
 - ㉠파클리탁셀 = 세포 독성 항암제
 = 세포 분열 방해 -> 세포 증식 못함 -> 사멸 [인과관계 정리]

- 정상 세포 중 세포 분열 많이 하는 애도 손상. 단점, 한계네.
 vs 표적 항암제 = 암세포에 '선택적'으로 작용. 장점, 해결책이네
 - 한계-해결책 전개방식이네[빈출 출제요소 사전예측 : 전개방식]

- 변형된 유전자-> 비정상적 단백질 생성-> 세포 분열을 위한 신호 전달 과정 왜곡-> 과도한 세포 증식 발생 [인과관계 정리]

- 암세포 -> 새로운 혈관 생성 -> 종양. 필수적이라면서, 한 문장씩 집어넣고 그냥 넘어가네.[필수적'과 같은 극단적 표현 주의]
 [출제자가 불친절하게 설명하고 넘어간 부분 주의]

- 신호 전달 억제제 : 세포 증식 단계에 개입하겠지
 vs 신생 혈관 억제제 : 혈관 생성 단계에 개입하겠지

[문단 앞 표현 바탕으로 차이점 구분]

- 신호 전달 경로는 암의 종류에 따라 달라서 특정 암에만 치료 효과 vs 1문단 정상 세포도 손상시키는 단점 보완

[문단 연결] [차이점 구분]

- ㉡이마티닙 = 신호 전달 억제제.

- 돌연변이 유전자(=2문단 변형된 유전자) -> Bcr-Abl 단백질(=2문단 비정상적인 단백질) = 이 효소(=Bcr-Abl) -> 신호 전달 경로 활성화(=2문단 신호 전달 과정 왜곡) -> 암세포 증식(=2문단 과도한 세포 증식)

[앞뒤 문단, 앞뒤 표현 연결] [인과관계 정리]

- Bcr-Abl에 달라붙어, 그것의 작용(=신호 전달 경로 활성화)를 방해 [이 효소, 그것 등 지시어의 의미 명확히 하면서 독해]

신생 혈관 억제제는 암세포가 새로운 혈관을 생성하는 것을 방해한다. 암세포가 증식하여 종양이 되고 그 종양이 자라려면 산소와 영양분이 계속 공급되어야 한다. 종양이 계속 자라려면 종양에 인접한 정상 조직과 종양이 혈관으로 연결되고, 종양 속으로 혈관이 뻗어 들어와야 한다. 대부분의 암세포들은 혈관내피 성장인자(VEGF)를 분비하여 암세포 주변의 조직에서 혈관내피세포를 증식시킴으로써 새로운 혈관을 형성한다. 이러한 원리에 착안하여 종양의 혈관 생성을 저지할 수 있는 약제인 **②베바시주맙**이 개발되었다. 이 약제는 인공적인 항체로서 혈관내피 성장인자를 항원으로 인식하여 결합함으로써 혈관 생성을 방해한다. 베바시주맙은 대장암의 치료제로 개발되었지만 다른 여러 종류의 암에도 효과가 있다.

[문제] 진위판단

1. ①은 ②과 달리 세포의 증식을 방해한다 정답 : (참 / 거짓)
2. ③은 ④과 달리 암세포가 분비하는 성장인자에 작용한다. 정답 : (참 / 거짓)

- 신생 혈관 억제제 = 새로운 혈관 생성 방해
- 산소와 영양분이 계속 공급되어야 = 2문단 혈관 생성이 필수적인 이유 여기에서 알려주네
[앞-뒤 문단 연결해 읽기 : 앞에 특 던지고 뒤에서 주워 담기]
- 암세포 증식-> **종양이 되고**-> 산소 영양분 공급-> 종양 성장
[인과관계 정리]
- 암세포 -> 혈관내피 성장인자(VEGF) 분비 -> 혈관내피세포 증식 -> 새로운 혈관 형성
[인과관계 정리]
- '혈관내피' 세포를 '성장'시키니까' 혈관내피 성장인자러 지었나 보네
[전문용어가 이름 지어진 이유 생각해보기]
- 종양의 혈관 생성 저지 = 신생 혈관 억제제 = ②베바시주맙
= 인공적인 항체
vs 항원 = 혈관내피 성장인자
[항원-항체 배경지식]
- 대장암
+ 다른 여러 종류의 암에도 사용. 단순사실판단으로 낼 듯?
[출제요소 예측]

[정답 및 해설] 1.거짓, 2.참, 3.㉠번

1. ①파클리탁셀= 세포 독성 항암제 = 세포 분열 방해로 세포 증식 방해. 맞고.
vs ②베바시주맙= 신생 혈관 억제제 = 혈관내피 성장인자에 달라붙어 혈관내피세포 증식을 방해. 맞네.
- 둘다 세포 증식을 방해하네. '달리'가 틀렸으니 거짓.
2. ③베바시주맙= 혈관내피 성장인자에 달라붙어. 맞고.
vs ④이마티닙= Bcr-Abl 즉, 돌연변이 유전자가 만들어낸 단백질. 성장인자가 아님. 틀리네.
- ③맞고, ④틀리고, ②과 ④ 다르니까, 참.

[문제] 26번. 밑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 ㉡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어떤 암세포를 시험관 속의 액체에 넣었다. 액체 속에는 산소와 영양분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액체 속의 암세포는 세포 분열을 하여 1~2mm의 작은 암 덩어리로 자란 후 더 이상 증식하지 않았다.

같은 종류의 암세포를 실험동물에게 주입하였다. ㉡주입된 암세포는 커다란 종양으로 계속 자라났고, 종양의 일부 조직을 조사해 보니 조직 내부에 혈관이 들어차 있었다.

- ① ㉠에서는 혈관내피 성장인자 분비를 통한 혈관 생성이 이루어지지 못했겠군.
- ② ㉠와 함께 Bcr-Abl 단백질을 액체에 넣는다면 암세포가 큰 종양으로 계속 자라겠군.
- ③ ㉡와 함께 세포 독성 항암제를 주입한다면 암세포의 분열이 억제되겠군.
- ④ ㉡가 종양으로 자랄 수 있었던 것은 산소와 영양분이 계속 공급되었기 때문이겠군.
- ⑤ ㉡가 종양으로 자라는 과정에서 암세포의 증식을 유도하는 신호 전달 경로에 비정상적인 단백질의 개입이 있었겠군.

26번.

- 산소와 영양분이 충분함 = 종양되고 나서 혈관 없이도 자라겠네. [**<보기>-지문 연결해 출제요소 파악**]
- 뭐야 종양 왜 안 자라났지?

vs ㉡는 종양됐는데?

- 시험관 = 종양O, 혈관X, 증식X

vs 실험동물 = 종양O,혈관O,증식O

[**차이점 정리**]

[**선택지로 넘어가기 전에, <보기>-지문 연결해 출제요소 파악**]

- ① 4문단 암세포들은 혈관내피 성장인자(VEGF)를 분비하여 암세포 주변의 조직에서 혈관내피세포를 증식. 액체라 암세포 주변 조직이 없었으니까 혈관 없었겠지. 참
 - ② Bcr-Abl은 암세포 증식이라, 종양 생성에는 관여하지만 결국 혈관 생성해서 큰 종양으로 계속 자라는 것과는 관련 없음. 거짓. [**(관련) 없는 것을 있다고 해도 틀리다**]
 - ③ 세포 독성 항암제는 암세포 정상세포 가리지 않고 세포 분열 자체를 방해하니까. 참. [**공통점 파악**]
 - ④ ㉡는 실험동물에게 주입되어 산소와 영양분이 계속 공급되었기 때문에 종양으로 자랄 수 있었지. 커다란 종양으로 계속 자라난 건 혈관도 있었기 때문이고.
- + ㉠㉡ 모두에게 해당하는 진술. ㉠ 역시 액체 속에 산소와 영양분이 충분하니까 종양(=1~2mm의 작은 암 덩어리)으로 자랄 수 있었지. 하지만 혈관 없어서 '증식' 못함.

[**포함관계 주의 : ㉠㉡ 둘 다 맞는 얘기라고 해서, ㉡가 맞다는 진술이 틀린 것은 아니다**]

- ⑤ ㉠㉡ 모두에게 해당하는 진술. [**공통점 파악**]
- 선택지 '암세포의 증식' = 2문단 '신호 전달 과정을 왜곡하여 과도한 세포 증식', 선택지 '비정상적인 단백질의 개입' = 2문단 '변형된 유전자가 만들어 낸 비정상적인 단백질이'. 참.

[**선택지-지문 연결해 정답의 확신성 높이기**]

하루하루 남기다 보면 늘어나는 국어
#192 문법

<보기>

합성어는 어근과 어근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단어를 말한다. 합성어가 만들어질 때 결합하는 어근은 형태가 바뀌기도 하고 원래의 의미가 변하기도 하는데, 의미의 변화는 문맥 속에서 파악할 수 있다.

아래 표는 형태 변화와 의미 변화에 따라 합성어가 만들어지는 양상의 일부를 도식화한 것이다.

형태 변화	의미 변화	
+	- ㉠
-	+ ㉡

※ ‘+’: 변화 있음. ‘-’: 변화 없음.

[문제] <보기>의 ㉠, ㉡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한 것은?

- ① ㉠ : 상황이 나빠진 게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 ② ㉠ : 사람의 안팎을 속속들이 알 수는 없다.
- ③ ㉠ : 우리 집은 오랫동안 마소를 길렀다.
- ④ ㉡ : 선녀 명이 모여 모듬을 만들었다.
- ⑤ ㉡ : 소나무의 꽃은 5월에 핀다.

※ 2014년 고2 3월 A형 14번 문법 문제 참조

하루하루 남기다 보면 늘어나는 국어

#192 정답 및 해설

<보기>

합성어는 어근과 어근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단어를 말한다. 합성어가 만들어질 때 결합하는 어근은 형태가 바뀌기도 하고 원래의 의미가 변하기도 하는데, 의미의 변화는 문맥 속에서 파악할 수 있다.

아래 표는 형태 변화와 의미 변화에 따라 합성어가 만들어지는 양상의 일부를 도식화한 것이다.

형태 변화	의미 변화		
+	-	㉠
-	+	㉡

※ '+': 변화 있음. '-': 변화 없음.

[문제] <보기>의 ㉠, ㉡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한 것은?

① ㉠ : 상황이 나빠진 게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② ㉠ : 사람의 안팎을 속속들이 알 수는 없다.

③ ㉠ : 우리 집은 오랫동안 마소를 길렀다.

④ ㉡ : 서너 명이 모여 모듬을 만들었다.

⑤ ㉡ : 소나무의 꽃은 5월에 핀다.

[현장독해]

- '문맥'이 출제요소

[출제요소 파악]

㉠ 형태는 변했는데, 의미는 안 변한

㉡ 형태는 안 변했는데, 의미는 변한

[정답 및 해설] ③번

- 합성어(나무) 쪼개서 '원형'파악하고, 문맥(숲)으로 의미 변했는지 파악하라는 게 출제요소

[표현(나무) 맥락(숲) 둘 다 잘 보기] [쪼개서 원형파악]

① ㉠이 아니라 ㉡. 거짓.

어제 + 오늘

- 형태 - : 쪼개서 원형파악하면 형태 안 변함

- 의미 + : 딱 yesterday, today 이틀이 아니라 문맥상 '아주 최근이나 요 며칠 사이'를 아우르는 말로 의미 변함

② ㉠이 아니라 해당 없음. 거짓.

안 + '밖'

- 형태 + : 쪼개서 원형파악하면 '밖'이 '팍'으로 형태 변함

- 의미 + : '안'에 알겠다고 해부할거 아니잖아. 문맥상 '마음속의 생각(안)과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밖)'으로 의미 변함

③ ㉠ 참. 정답.

'말' + 소

- 형태 + : 쪼개서 원형파악하면 '말'이 '마'로 형태 변함.

- 의미 - : 문맥상 진짜 horse(말), cow(소)지. 의미 안 변함.

④ ㉡이 아니라 ㉠. 거짓.

'세' + '네'

- 형태 + : 쪼개서 원형파악하면 '서', '너'라는 수사 혹은 수관형사는 없으니까 형태 변함

- 의미 - : 문맥상 진짜 3~4명을 의미하는 거니까 의미 안 변함

⑤ ㉡이 아니라 ㉠. 거짓.

'술' + 나무

- 형태 + : 쪼개서 원형파악하면 '술'이 '소'로 형태 변함

- 의미 - : 문맥상 '술방울 달린 나무'니까 의미 안 변함

★★★ 좋은 풀이 습관 : 쪼개서 원형파악 ★★★

위 문제에서 형태가 변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안팎' '마소' '서너' '소나무'와 같은 합성어를 직접구성요소(가장 큰 2개)인 단위로 '쪼개서' 그 '원형'인 '어근'을 파악할 수 있었어야 합니다. 또한 의미가 변했는지를 판단함에 위해서도 결국 합성어 '어제오늘' '안팎'을 쪼개서 그 원형인 어근 '어제' '오늘' '안' '밖'을 파악했어야 각 어근의 의미가 그대로 쓰였는지 판단 가능했습니다. 이처럼 특정 단어를 디테일하게 쪼개서 그 원형을 파악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출제요소입니다.

2023학년도 수능국어 언어와 매체 영역의 문법 출제경향을 생각해본다면, 위와 같은 디테일한 '쪼개서 원형파악'을 하고자 하면 막힘없이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출제요소 관련 문법 용어들이 막힘없이 떠오를 정도로 암기하고, 문법 개념어를 활용한 쪼개서 원형파악을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비문학' '문학' '매체' 영역에서는 다를 수 있으나, '문법' 영역에서만은 사고력뿐 아니라 '암기력'까지 갖춰야 '만' 합니다. 그래야 문제를 정확하면서도 '막힘없이' 풀 수 있습니다. 문법 영역을 다 맞히는 건 당연한 것이나, '막힘없이' 다 맞혀야만 고난도 비문학 영역에서 '사고력'을 발휘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좋은 풀이 습관 : 나무(표현 그 자체)와 숲(문맥) 둘 다 잘 보기 ★★★

'겉표현' 그 자체의 의미, 즉 '나무'만 가지고는 표현의 의미와 의도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습니다. '겉표현'이 주위 표현들과 유기적으로 연결되면서 갖게 되는 '속의미'를 제대로 파악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 '속의미'를 파악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상황 맥락, 즉 '문맥'입니다. '나무'를 둘러싼 '숲'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나무'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숲'을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합성어 '어제오늘'은 '최근', 합성어 '안팎'은 '마음과 행동'을 의미한다는 걸 파악하기 위해서는 표현 그 자체(나무)를 쪼개서 원형파악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표현이 쓰인 문맥(숲)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나무를 잘 쪼개는 것이 micro미시적 영역이라면, 나무를 둘러싼 숲을 볼 줄 아는 것이 바로 macro거시적 영역입니다. 미시적인 것과 거시적인 것을 둘 다 잘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보기> 28번

이 작품에서 ‘하얀 배’는 외부 세계에 대한 동경을 상징하는 것으로, 중앙아시아 동포들의 고국에 대한 그리움을 서정적으로 드러내는 기능을 한다. ‘나’는 하얀 배를 그리는 소년과 류다를 연결지어 이해하면서, 류다를 포함한 중앙아시아 동포들이 시련이 연속되는 삶 속에서도 언어를 통해 민족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려는 모습에 주목한다.

[지문]

[앞부분의 줄거리] ‘나’는 취재 차 중앙아시아로 향하면서 강제이주된 고려인 동포들의 삶을 목격한다. 또한 한국을 그리며 ‘말 배우는 아이’라는 글을 쓴 고려인 ‘류다’를 만나길 희망한다. 알마아타에 도착한 ‘나’는 인근 우슈토베 지역을 여행하며 고려인 ‘미하일’로부터 류다가 이식쿨 호수 근처에 살고 있음을 듣게 된다.

“여기 사람들이 말하는데, 그 호수 밑에 옛날 도시가 가라앉아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 호수에 관심을 보이자 미하일이 말했다. 그는 드물게도 서울 동숭동에 있는 해외동포교육원의 초청을 받아 어느새 한국에도 갔다 왔다고 했는데, 우리말을 꽤 정확하게 구사하고 있었다. 그의 말에 나는 더욱 흥미를 갖지 않을 수 없었다.

“호수 밑에……”

나는 음료수와 함께 나온 깡통 맥주를 한 모금 마시며 그 먼 호수를 머릿속에 그렸다. 미하일의 말에 의하면 키르기스말로 이식쿨의 이식은 뜨겁다는 뜻이며, 쿨은 호수라고 했다. 또, 이식쿨의 물은 위는 민물, 아래는 짠물이며, 이에 비교되어 발하슈 호수는 한쪽이 민물, 다른 쪽이 짠물로서, 서로 차이를 보인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키르기스스탄의 소설가 아이트마토프가 쓴《하얀 배》라는 소설까지 들먹거렸다. 부모가 이혼하는 바람에 그 호숫가의 할아버지 집으로 와 살고 있는 한 소년이 호수를 떠가는 하얀 배를 보면서, 커다란 물고기가 되어 배를 따라가기를 꿈꾸는 이야기라는 것이었다. 그의 말을 들으면서 나는 나대로 학교 시절에 읽은 독일 소설가 슈토름의 소설《이멘 호수》를 떠올리기도 있었다.

㉠“하얀 배라……”

신비하고 아름다운 광경이 내 머리를 자극했다.

그러던 나는 한글 선생이나 미하일 누구에게랄 것 없이 그 곳까지 가볼 수는 없느냐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미하일이 들려주는 이야기는 모두 그 호수를 향한 내 마음을 한층 북돋기에 부족함이 없는 것이었다.

그러나 미하일에 의하면, 알마아타에서 호수까지는 직선거리로는 그리 멀지 않지만 천산 산맥이 가로막혀 있어서 서남쪽 고갯길이 풀린 곳으로 빙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멀다는 것이었다.

㉡“꼭 거길 가봤으면 하는데……무슨 방법이 없었을까요?”

나는 한글 선생과 미하일을 번갈아 쳐다보며 간청하다시피 했다. 내 말에 미하일은 한참 동안 생각을 하는 듯하다가 마침내 자기도 이 기회에 비탈리를 찾아가서 한번 만날 겸 같이 가보자고 말했다. 알마아타로 가서 차편을 알아보자는 것이었다. 이렇게 되어 나는 정말 뜻하지 않게 그 호수를 향하여 떠나게 된 것이었다.

우슈토베에의 여행에서 얻은 것은 적지 않은 셈이었다. 다른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무엇보다 우리 동포들의 무덤을 보았고, 그들이 저 1937년에 내동댕이쳐 버려졌던 처절한 삶의 뿌리를 내리기 위해 광야에 파놓은 갈대 움막집의 흔적을 보았다. 오늘날 그곳에 문을 연 한글학교도 보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내 가슴을 뛰게 한 것은 새로운 세계, 산속의 호수를 향해 가게 된 것이었다.

<중략>

그 호수를 보겠다고 해서, 카라가지나무와 주다나무와 미루나무와 버드나무를 이정표로 달려왔고, 드디어 보았다. 그러나……

나는 머리에 ‘그러나’가 꼬리표처럼 따라붙는 것을 어찌지 못했다. 서울에서의 문제들은 서울에 가서의 일이다. ㉣나는 그 꼬리표를 떼어내려고 머리를 흔들었다. 그러나……

그때였다. 유원지의 돌 축대를 바라보던 나는 거기 웬 나무가 한 그루 우뚝 서 있는 것을 보았다. 들어올 때는 눈에 띄지 않은 까닭을 알 수 없었다. 아니다. 그 나무만 서 있었다면 그냥 스쳐 지나갔을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나는 그 나무만을 본 것이 아니라 그 옆에 서 있는 한 여자를 함께 본 것이었다. 젊고 환한 얼굴이 나무 그늘에 묻혀 있었다.

“류다!”

미하일이 소리쳤다. 우리는 돌 축대를 올라가 그 나무 아래로 걸음을 옮겼다. 서로 몇 마디의 러시아말이 오가고 난 뒤 내가 소개되었다.

“안녕하십니까.”

맑은 눈동자가 나를 바라보았다. 순간, 나는 너무나 또렷한 우리말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중앙아시아에서 처음 들어 보는 또렷한 우리말이었다. 그리고 그 말 뒤에 ‘이 말은 우리 민족 말입니다’하는 말이 소리 없이 뒤따르고 있음도 또렷이 느낄 수 있었다.

“아, 안녕하십니까.”

㉤나는 엉겁결에 똑같이 따라하고 말았다. 그와 함께 나는 그 단순한 인사말이 왜 그렇게 깊은 울림으로 온몸을 떨리게 하는지 형언할 수 없는 감동에 휩싸였다. ㉥개양귀비 꽃밭이 수렁거리고, 숲 속의 들고양이들이 귀를 쫓긋거리고, 커다란 까마귀들이 전나무 가지를 치고 날았으며, 사막쥐들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돌소금이 하얗게 깔린 사막으로 큰바람이 이는 광경이 눈에 어른거렸다. 천산에서 빙하가 우르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린다고도 생각되었다.

나는 호수 건너 눈 덮인 천산을 바라보았다. '그러나'라고 미진했던 마음이 그녀의 "안녕하십니까"에 눈 녹듯 스러지는 듯 싶었다. 건너편의 천산이 내게 "안녕하십니까"의 새로운 의미를 배워주고 있다고 받아들여졌다. 멀리 동방의 조상 나라를 동경하며 하얀 배를 그리는 모습이 거기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녀가 그 그늘에 서 있던 나무가 바로 러시아말로 '키퍼리스'인 사이프러스였다. 스타니슬라브는 그 나무가 본래 중앙아시아에는 없는 나무로서 그루지야에나 가야 많다고 설명해 주었다. 아마도 유원지가 북적거리던 시절, 무슨 기념으로 심은 나무일 것이라고도 했다.

그날 그녀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눈 시간은 매우 짧을 수밖에 없었다. 우리는 곧 알마아타로 돌아가야 했고, 또 내가 그녀와 오랫동안 함께 있어야 할 이유도 특별히 없는 것이었다. 그러나 나는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느낌을 받았다.

⑤키르기스스탄의 사이프러스나무 아래 우리 민족의 말인 "안녕하십니까"의 의미를 전혀 새롭게 말하는 처녀가 있었다. 나는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내내 그 모습이 머릿에서 떠나지를 않았다. 그리고 그 나무 아래서 호수를 바라보았을 때 물에 비치던 하얀 만년설의 산봉우리를 눈에 그렸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얀 배의 또 다른 모습이라고 깨달은 나는 입속으로 가만히 "안녕하십니까"를 되뇌었다.

- 윤후명, 「하얀 배」

[문제] 진위판단

- ㉠에는 계획에 없었던 새로운 여정에 대한 기대감과 설렘이 나타난다. 정답 : (참 / 거짓)
- ㉡에는 이식쿨 호수만을 생각하며 달려왔던 것을 반성하는 마음이 드러난다. 정답 : (참 / 거짓)
- ㉢는 상상 속 장면을 활용하여, ㉣는 과거 회상을 활용하여 인물의 내면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정답 : (참 / 거짓)
- ㉤는 외부 세계를 묘사하여, ㉥는 인물 간의 대화를 서술하여 인물이 처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정답 : (참 / 거짓)
- '호수 밑에 옛날 도시'는 소년이 '하얀 배'를 타고 가고자 하는 동경의 공간으로 '나'가 지향하는 곳이군. 정답 : (참 / 거짓)
- '광야에 파놓은 갈대 움막집의 흔적'은 중앙아시아 동포들이 겪었던 시련을 증명하는 것이겠군. 정답 : (참 / 거짓)
- '나'는 류다의 '너무나 또렷한 우리말'에서 동포들의 고국에 대한 그리움을 읽어 내고 있군. 정답 : (참 / 거짓)
- '나'는 '멀리 동방의 조상 나라'를 꿈꾸는 류다와 '배를 따라가기를 꿈꾸는' 소년을 연관지었군. 정답 : (참 / 거짓)

※ 2023년 고1 6모 26 ~ 28번 문학 문제 참조

#193 정답 및 해설

<보기> 28번

이 작품에서 ‘하얀 배’는 외부 세계에 대한 동경을 상징하는 것으로, 중앙아시아 동포들의 고국에 대한 그리움을 서정적으로 드러내는 기능을 한다. ‘나’는 하얀 배를 그리는 소년과 류다를 연결지어 이해하면서, 류다를 포함한 중앙아시아 동포들이 시련이 연속되는 삶 속에서도 언어를 통해 민족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려는 모습에 주목한다.

[지문]

[앞부분의 줄거리] ‘나’는 취재 차 중앙아시아로 향하면서 강제 이주된 고려인 동포들의 삶을 목격한다. 또한 한국을 그리며 ‘말 배우는 아이’라는 글을 쓴 고려인 ‘류다’를 만나길 희망한다. 알마아타에 도착한 ‘나’는 인근 우슈토베 지역을 여행하며 고려인 ‘미하일’로부터 류다가 이식쿨 호수 근처에 살고 있음을 듣게 된다.

“여기 사람들이 말하는데, 그 호수 밑에 옛날 도시가 가라앉아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 호수에 관심을 보이자 미하일이 말했다. 그는 드물게도 서울 동숭동에 있는 해외동포교육원의 초청을 받아 어느새 한국에도 갔다 왔다고 했는데, 우리말을 꽤 정확하게 구사하고 있었다. 그의 말에 나는 더욱 흥미를 갖지 않을 수 없었다.

“호수 밑에……”

나는 음료수와 함께 나온 깡통 맥주를 한 모금 마시며 그 먼 호수를 머릿속에 그렸다. 미하일의 말에 의하면 키르기스말로 이식쿨의 이식은 뜨겁다는 뜻이며, 쿨은 호수라고 했다. 또, 이식쿨의 물은 위는 민물, 아래는 짠물이며, 이에 비교되어 발하슈 호수는 한쪽이 민물, 다른 쪽이 짠물로서, 서로 차이를 보인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키르기스스탄의 소설가 아이트마토프가 쓴《하얀 배》라는 소설까지 들먹거렸다. 부모가 이혼하는 바람에 그 호숫가의 할아버지 집으로 와 살고 있는 한 소년이 호수를 떠가는 하얀 배를 보면서, 커다란 물고기가 되어 배를 따라가기를 꿈꾸는 이야기라는 것이었다. 그의 말을 들으면서 나는 나대로 학교 시절에 읽은 독일 소설가 슈토름의 소설《이멘 호수》를 떠올리고도 있었다.

㉠“하얀 배라……”

신비하고 아름다운 광경이 내 머리를 자극했다.

그러던 나는 한글 선생이나 미하일 누구에게랄 것 없이 그 곳까지 가볼 수는 없느냐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미하일이 들려주는 이야기는 모두 그 호수를 향한 내 마음을 한층 북돋기에 부족함이 없는 것이었다.

그러나 미하일에 의하면, 알마아타에서 호수까지는 직선거리는 그리 멀지 않지만 천산 산맥이 가로막혀 있어서 서남쪽 고갯길이 풀린 곳으로 빙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멀다는 것이었다.

[현장독해]

- 하얀 배 = 외부 세계에 대한 동경
- 중앙아시아 동포들 입장에서의 고국 = 외부 세계 [앞-뒤 연결]
- 동경 = 그리움 [앞-뒤 연결]
- 하얀 배를 그리는 소년 = ‘류다’ 주목.
- ‘언어’ 주목. 민족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려는 모습.

[<보기> 보면서 지문 독해 시 주목할 지점 파악]

- 중앙아시아 강제 이주 고려인 동포 = <보기> 중앙아시아 동포들이 시련이 연속되는 삶 [지문-<보기> 연결]
- 한국을 그리워하며 쓴 ‘말 배우는 아이’ [지문-<보기> 연결]
- = <보기> 언어’ 우리말 배우는 중앙아시아 동포?
- 류다 찾으러 호수 가겠네
- 아틀란티스여?

- 우리말을 꽤 정확하게 구사 = <보기> 언어를 통해 민족의 정체성 [미줄 의미 생각해보기] [지문-<보기> 연결]
- 미하일은 류다 만나게 해주는 조력자네. [인물 파악]

- 이식쿨 = 뜨거운 호수
- 민물 + 짠물? 아게 돼?

- 제목 ‘하얀 배’ [제목-지문 연결 : 제목과 연관된 표현 주목]

- 아픔이 있는 소년이 하얀 배를 따라가기를 꿈꾼다 = <보기> 외부 세계에 대한 동경 [지문-<보기> 연결]

- 중심인물 ‘나’는 말 많이 안하는 타입인 듯 [인물 파악]

- 이식쿨 가보자구

- 가기 힘들

㉠“꼭 거길 가봤으면 하는데……무슨 방법이 없었을까요?”

나는 한글 선생과 미하일을 번갈아 쳐다보며 간청하다시피 했다. 내 말에 미하일은 한참 동안 생각을 하는 듯하다가 마침내 자기도 이 기회에 비탈리를 찾아가서 한번 만날 겸 같이 가보자고 말했다. 알마아타로 가서 차편을 알아보자는 것이었다. 이렇게 되어 나는 정말 뜻하지 않게 그 호수를 향하여 떠나게 된 것이었다.

우슈토베에의 여행에서 얻은 것은 적지 않은 셈이었다. 다른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무엇보다 우리 동포들의 무덤을 보았고, 그들이 저 1937년에 내동맹이쳐 버려졌던 처절한 삶의 뿌리를 내리기 위해 광야에 파놓은 갈대 움막집의 흔적을 보았다. 오늘날 그곳에 문을 연 한글학교도 보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내 가슴을 뛰게 한 것은 새로운 세계, 산속의 호수를 향해 가게 된 것이었다.

<중략>

그 호수를 보겠다고 해서, 카라가지나무와 주다나무와 미루나무와 버드나무를 이정표로 달려왔고, 드디어 보았다. 그러나……

나는 머리에 ‘그러나’가 꼬리표처럼 따라붙는 것을 어찌지 못했다. 서울에서의 문제들은 서울에 가서의 일이다. ㉢나는 그 꼬리표를 떼어내려고 머리를 흔들었다. 그러나……

그때였다. 유원지의 돌 축대를 바라보던 나는 거기 웬 나무가 한 그루 우뚝 서 있는 것을 보았다. 들어올 때는 눈에 띄지 않은 까닭을 알 수 없었다. 아니다. 그 나무만 서 있었다면 그냥 스쳐 지나갔을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나는 그 나무만을 본 것이 아니라 그 옆에 서 있는 한 여자를 함께 본 것이었다. 젊고 환한 얼굴이 나무 그늘에 묻혀 있었다.

“류다!”

미하일이 소리쳤다. 우리는 돌 축대를 올라가 그 나무 아래로 걸음을 옮겼다. 서로 몇 마디의 러시아말이 오가고 난 뒤 내가 소개되었다.

“안녕하십니까.”

맑은 눈동자가 나를 바라보았다. 순간, 나는 너무나 또렷한 우리말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중앙아시아에서 처음 들어 보는 또렷한 우리말이었다. 그리고 그 말 뒤에 ‘이 말은 우리 민족 말입니다’하는 말이 소리 없이 뒤따르고 있음도 또렷이 느낄 수 있었다.

“아, 안녕하십니까.”

㉣나는 영겁결에 똑같이 따라하고 말았다. 그와 함께 나는 그 단순한 인사말이 왜 그렇게 깊은 울림으로 온몸을 떨리게 하는지 형언할 수 없는 감동에 휩싸였다. ㉤개양귀비 꽃밭이 수련거리고, 숲 속의 들고양이들이 귀를 쫓긍거리고, 커다란 까마귀들이 전나무 가지를 치고 날았으며, 사막쥐들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돌소금이 하얗게 깔린 사막으로 큰바람이 이는 광경이 눈에 어른거렸다. 천산에서 빙하가 우르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린다고도 생각되었다.

- 거기 = 이식쿨 호수, 류다 있는 곳. ㉠의지

[지시대명사 의미 명확히 해보기] [밑줄 의미 생각해보기]

- 이식쿨, 뜻밖의 여정 [나만의 편한 표현으로 상황 핵심정리]

- 1937년에 내동맹이쳐 버려졌던 처절한 삶 = [앞부분 줄거리] 강제 이주된 고려인 동포들 [지문-지문 연결]

- 광야에 파놓은 갈대 움막집 = <보기> 시련이 연속되는 삶 [지문-<보기> 연결]

- 새로운 세계, 산속의 호수 = 이식쿨 호수. ㉡설렘 [지문 내 비슷한 표현 연결] [밑줄 의미 생각해보기]

- 서울에서의 문제들? = 그 꼬리표 = 그러나…… = 서울에서의 현실적 삶의 문제들?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들?

[밑줄 의미 생각해보기]

- 한 여자. 류다겠지~ [지문 전개 예측]

- 류다 어서오시고

- 지문 ‘너무나 또렷한 우리말’ = <보기> 언어를 통해 민족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려는 모습 = 지문 ‘중앙아시아에서 처음 들어 보는 또렷한 우리말’ [밑줄 의미 생각해보기] [지문-<보기> 연결]

- ㉢당황

- 깊은 울림으로 온몸을 떨리게 = 감동. 국뽕

- 상세히도 묘사하네.

- 아~ ‘광경이 눈에 어른거렸다’ ‘소리가 들린다고도 생각되었다’ 라고 했으니까 묘사가 아니라 상상이네. 류다의 한국말 인사에 감동받은 걸 표현한 거네.

[실수를 돌이키는 매커니즘 : 뒤 내용을 보고 앞 해석 수정]

- 만화 [신의 물방울]에서 와인 한 모금 먹으니까 포도밭 뛰어다니는 상상 펼쳐지고, 웹툰 [취사병 전설이 되다]에서 주인공 요리 먹고 꽃밭에서 힐링하는 장면 펼쳐지고 그런 거네

[비슷한 상황, 나만의 예시를 떠올려 이해도 높이기]

나는 호수 건너 눈 덮인 천산을 바라보았다. ‘그러나’라고 미진했던 마음이 그녀의 “안녕하십니까”에 눈 녹듯 스러지는 듯 싶었다. 건너편의 천산이 내게 “안녕하십니까”의 새로운 의미를 배워주고 있다고 받아들여졌다. 멀리 동방의 조상 나라를 동경하며 하얀 배를 그리는 모습이 거기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녀가 그 그늘에 서 있던 나무가 바로 러시아말로 ‘키퍼리스’인 사이프러스였다. 스타니슬라브는 그 나무가 본래 중앙아시아에는 없는 나무로서 그루지야에나 가야 많다고 설명해 주었다. 아마도 유원지가 북적거리던 시절, 무슨 기념으로 심은 나무일 것이라고도 했다.

그날 그녀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눈 시간은 매우 짧을 수밖에 없었다. 우리는 곧 알마아타로 돌아가야 했고, 또 내가 그녀와 오랫동안 함께 있어야 할 이유도 특별히 없는 것이었다. 그러나 나는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느낌을 받았다.

⑤ 키르기스스탄의 사이프러스나무 아래 우리 민족의 말인 “안녕하십니까”의 의미를 전혀 새롭게 말하는 처녀가 있었다. 나는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내내 그 모습이 머리에서 떠나지를 않았다. 그리고 그 나무 아래서 호수를 바라보았을 때 물에 비치던 하얀 만년설의 산봉우리를 눈에 그렸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얀 배의 또 다른 모습이라고 깨달은 나는 입속으로 가만히 “안녕하십니까”를 되뇌었다.

- 윤후명, 「하얀 배」

[문제] 진위판단

1. ㉠에는 계획에 없었던 새로운 여정에 대한 기대감과 설렘이 나타난다. 정답 : (참 / 거짓)
2. ㉡에는 이식쿨 호수만을 생각하며 달려왔던 것을 반성하는 마음이 드러난다. 정답 : (참 / 거짓)
3. ㉢는 상상 속 장면을 활용하여, ㉣는 과거 회상을 활용하여 인물의 내면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정답 : (참 / 거짓)
4. ㉤는 외부 세계를 묘사하여, ㉥는 인물 간의 대화를 서술하여 인물이 처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정답 : (참 / 거짓)
5. ‘호수 밑에 옛날 도시’는 소년이 ‘하얀 배’를 타고 가고자 하는 동경의 공간으로 ‘나’가 지향하는 곳이다. 정답 : (참 / 거짓)

- 그러나 = 심란 vs 안녕하십니까 = 힐링 [차이점 정리]

- 멀리 동방의 조상 나라 = 대한민국

- 본래 중앙아시아에는 없는 나무 = <지문> [앞부분 줄거리] 강제 이주된 고려인 동포들. 본래 중앙아시아에는 없었으나 지금은 중앙아시아에 있는 나무와 류다를 포함한 동포들의 처지 대응 [공통점 파악]

- 만남은 짧았지만 vs 많은 느낌을 받음

- ‘안녕하십니까’의 의미를 전혀 새롭게 말하는 처녀 = 류다. 그냥 인사말이었을 뿐인데, 중앙아시아 동포들의 애국심을 의미하여 전혀 새롭게 다가온 거지.

[직관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표현의 의미 생각해보기]
[밑줄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보고 넘어가기]

- 물에 비치던 하얀 만년설의 산봉우리 = 하얀 배. 현실에서 산봉우리는 험준해서 고국 사람과 만나는 것조차도 방해하는 장애물인데, 그게 이식쿨 호수에 비치면 반대로 하얀 배가 되어 조국에 대한 동경을 이뤘주는 소재가 되는 건가보다.

[직관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표현의 의미 생각해보기]

- “안녕하십니까” = <보기> 언어를 통해 민족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려는 모습에 대한 기억 [지문-<보기> 연결]

[정답 및 해설] 1.참, 2.거짓, 3.참, 4.거짓, 5.거짓, 6.참, 7.참, 8.참

1. 선택지 ‘기대감과 설렘’ = ㉠ 내 가슴을 뛰게 한 것 + 선택지 ‘계획에 없었던 새로운 여정’ = 지문 ‘나는 정말 뜻하지 않게 그 호수를 향하여 떠나게 된 것’. 참

[선택지-지문 연결해 정답의 확신성 높이기]

2. 이식쿨 호수’만’을 생각하며 달려온 것도 아님. 다른 데 다니다가 이식쿨도 가보고자 한 것. [한정표현 주의] 반성하는 마음도 틀림. 이식쿨 호수가니까 기분 좋다가도, 서울에서의 문제들이 신경 쓰이는 것. 거짓.

3. ㉢ 세밀하게 묘사했지만, 상상한 장면이었고. ㉣ 류다와 인사하는 과거 회상하며 자기 내면에서 깨달음 정리하는 상황. 참.

4. ㉤ 외부 세계 묘사가 아니라, 상상한 장면 묘사. ㉥ 인물 간 대화 없고, 류다가 인사말 건넸던 장면을 주인공이 회상하는 것. 거짓

5. 하얀 배를 타고 가고자 하는 동경의 공간 = 외부세계 vs 호수 밑의 옛날 도시 = 외부...? 라기에는 애매하지. 소년이 호수 밑의 옛날 도시에 가고 싶다고 한 것도 아니고. ‘나’가 지향하는 곳은 더더욱 아니지. + 미하일이 이식쿨 호수 관련해서 썬 플어주는 내용 중 하나일 뿐. 거짓.

6. '광야에 파놓은 갈대 움막집의 흔적'은 중앙아시아 동포들이 겪었던 시련을 증명하는 것이겠군. 정답 : (참 / 거짓)

7. '나'는 류다의 '너무나 또렷한 우리말'에서 동포들의 고국에 대한 그리움을 읽어 내고 있군. 정답 : (참 / 거짓)

8. '나'는 '멀리 동방의 조상 나라'를 꿈꾸는 류다와 '배를 따라가기를 꿈꾸는' 소년을 연관시켰군. 정답 : (참 / 거짓)

6. 선택지 표현 '광야에 파놓은 갈대 움막집의 흔적' 앞을 보면 = 지문 '무엇보다 우리 동포들의 무덤을 보았고, 그들이 저 1937년에 내동댕이쳐 버려졌던 처절한 삶의 뿌리를 내리기 위해' = 선택지 중앙아시아 동포들이 겪었던 시련. 참

[표현(나무)과 주위 맥락(숲) 활용하여 정답의 확신성 높이기]
[선택지-지문 연결해 정답의 확신성 높이기]

7. 선택지 = 지문 = 류다의 '너무나 또렷한 우리말' = '안녕하십니까' = <보기> 언어를 통해 민족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려는 모습. 참. [선택지-지문-<보기> 연결해 정답의 확신성 높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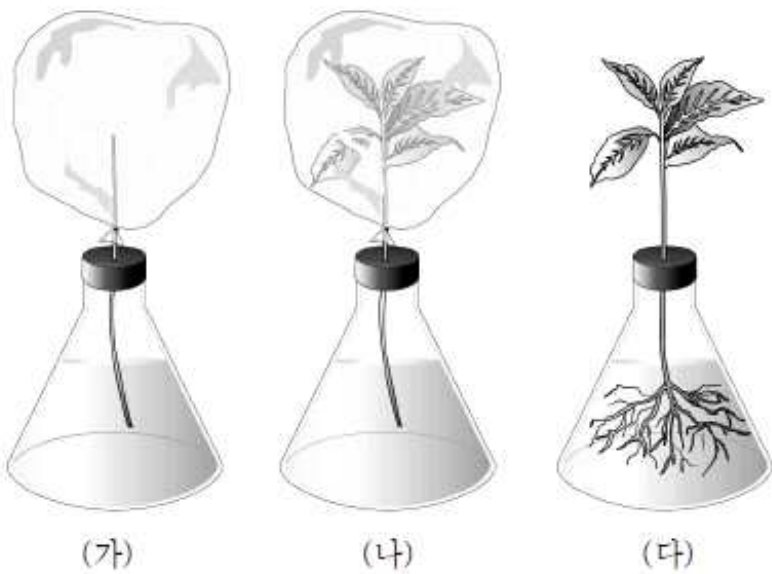
8. 선택지 = 지문 = '멀리 동방의 조상 나라'를 꿈꾸는 = <보기> 하얀 배를 그리는, <보기> 하얀 배'는 외부 세계에 대한 동경을 상징. [선택지-지문-<보기> 연결해 정답의 확신성 높이기]
+ 선택지 '류다'와 '배를 따라가기를 꿈꾸는' 소년을 연관시켰군 = <보기> 소년과 류다를 연결지어 이해
[선택지-지문-<보기> 연결해 정답의 확신성 높이기]

#194 비문학

<보기> 17번

삼투 현상이란 용액의 농도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선택적 투과성 막을 통해 물이 이동하는 현상이다. 이때 물이 이동하는 힘을 삼투압이라 하며, 이 힘은 용액의 농도에 따라 비례한다. 삼투 현상의 예로 배추를 소금물에 담그면 소금 입자는 이동하지 못하고 배추에 있는 물이 소금물 쪽으로 이동하여 배추가 절여지는 것을 들 수 있다.

<보기> 20번



크기와 종류가 같은 식물 셋을 (가)는 줄기만, (나)는 줄기와 잎만을 남겨 비닐을 씌운다. (다)는 뿌리, 줄기, 잎을 그대로 둔다. 셋을 물에 담아 햇빛 등이 동일한 조건에서 변화를 관찰하였다.

[지문]

식물의 성장에는 물이 필수적이다. 동물과 달리 식물은 잎에서 광합성을 통해 성장에 필요한 양분을 만들어 내는데, 물은 바로 그 원료가 된다. 물은 지구 중심으로부터 중력을 받기 때문에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지만, 식물은 지구 중심과는 반대 방향으로 자란다. 따라서 식물이 줄기 끝에 달려 있는 잎에 물을 공급하려면 중력의 반대 방향으로 물을 끌어 올려야 한다. 미국의 캘리포니아 레드우드 국립공원에는 세계에서 키가 가장 큰 세쿼이아가 있다. 이 나무는 키가 무려 112m에 이르며, 뿌리는 땅속으로 약 15m까지 뻗어 있다고 한다. 따라서 물이 뿌리에서 나무의 꼭대기에 있는 잎까지 도달하려면 127m나 끌어 올려져야 한다. 펌프 같은 장치도 보이지 않는데 대체 물이 어떻게 그 높은 곳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것일까? 식물은 어떤 힘을 이용하여 뿌리에서부터 잎까지 물을 끌어 올릴까? 식물이 물을 뿌리에서 흡수하여 잎까지 보내는 데는 뿌리압, 모세관 현상, 증산 작용으로 생긴 힘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A]호박이나 수세미의 잎을 모두 ㉔ 떼어 내고 뿌리와 줄기만 남기고 자른 후 뿌리 끝을 물에 넣어 보면, 잘린 줄기 끝에서는 물이 힘차게 솟아오르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올라온다. 뿌리털을 둘러싼 세포막을 경계로 안쪽은 땅에 비해 여러 가지 유기물과

무기물들이 더 많이 섞여 있어서 뿌리 바깥보다 용액의 농도가 높다. 다시 말해 뿌리털 안은 농도가 높은 반면, 흙 속에 포함되어 있는 물은 농도가 낮다. 이때 농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흙 속에 있는 물 분자는 뿌리털의 세포막을 거쳐 물 분자가 상대적으로 적은 뿌리 내부로 ㉔ 들어온다. 이처럼 농도가 낮은 흙 속의 물을 농도가 높은 뿌리 쪽으로 이동시키는 힘이 생기는데, 이를 뿌리압이라고 한다. 즉 뿌리압이란 뿌리에서 물이 흡수될 때 밀고 들어오는 압력으로, 물을 위로 밀어 올리는 힘이다.

물이 담긴 그릇에 가는 유리관을 ㉔ 꽂아 보면 유리관을 따라 물이 올라가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이처럼 가는 관과 같은 통로를 따라 액체가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것을 모세관 현상이라고 한다. 모세관 현상은 물 분자와 모세관 벽이 결합하려는 힘이 물 분자끼리 결합하려는 힘보다 더 크기 때문에 일어난다. 따라서 관이 가늘어질수록 물이 올라가는 높이가 높아진다. 식물체 안에는 뿌리에서 줄기를 거쳐 잎까지 연결된 물관이 있다. 물관은 말 그대로 물이 지나가는 통로인데, 지름이 75 μ m(마이크로미터, 1 μ m=0.001mm)로 너무 가늘어 눈으로는 볼 수 없다. 이처럼 식물은 물관의 지름이 매우 작기 때문에 ㉔ 모세관 현상으로 물을 밀어 올리는 힘이 생긴다.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는 더운 여름철에는 큰 나무가 만들어 주는 그늘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다. 나무가 만들어 주는 그늘이 건물이 만들어 주는 그늘보다 더 시원한 이유는 무엇일까? ㉔ 나무의 잎은 물을 수증기 상태로 공기 중으로 내보내는데, 이때 물의 주위의 열을 흡수하기 때문에 나무의 그늘 아래가 건물이 만드는 그늘보다 훨씬 시원한 것이다. 식물의 잎에는 기공이라는 작은 구멍이 있다. 기공을 통해 공기가 들락날락하거나 잎의 물이 공기 중으로 증발하기도 한다. 이처럼 식물체 내의 수분이 잎의 기공을 통하여 수증기 상태로 증발하는 현상을 ㉔ 증산 작용이라고 한다. 가로 세로가 10×10cm인 잔디밭에서 1년 동안 증산하는 물의 양을 조사한 결과, 놀랍게도 55톤이나 되었다. 이는 1리터짜리 페트병 5만 5천 개 분량에 해당하는 물의 양이다. 상수리나무는 6~11월 사이에 약 9,000kg의 물을 증산하며, 키가 큰 해바라기는 맑은 여름날 하루 동안 약 1kg의 물을 증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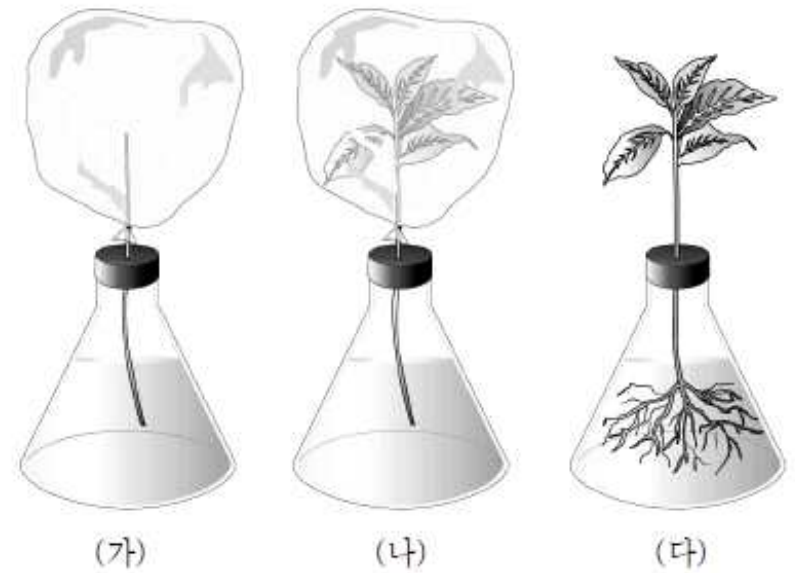
기공의 크기는 식물의 종류에 따라 ㉔ 다른데 보통 폭이 8 μ m, 길이가 16 μ m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크기가 1cm²인 잎에는 약 5만 개나 되는 기공이 있으며, 그 대부분은 잎의 뒤쪽에 있다. 이 기공을 통해 그렇게 엄청난 양의 물이 공기 중으로 증발해 버린다. 증산 작용은 물을 식물체 밖으로 내보내는 작용으로, 뿌리에서 흡수된 물이 줄기를 거쳐 잎까지 올라가는 원동력이다. 잎의 세포에서는 물이 공기 중으로 증발하면서 아래쪽의 물 분자를 끌어 올리는 현상이 일어난다. 즉, 물 분자들은 서로 잡아당기는 힘으로써 연결되는데, 이는 물 기둥을 형성하는 것과 같다. 사슬처럼 연결된 물 기둥의 한쪽 끝을 ㉔ 이루는 물 분자가 잎의 기공을 통해 빠져 나가면 아래쪽 물 분자가 끌어 올려지는 것이다. 증산 작용에 의한 힘은 잡아당기는 힘으로 식물이 물을 끌어 올리는 요인 중 가장 큰 힘이다.

[문제] 진위판단

1. 식물이 광합성 작용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이 필요하다.
정답 : (참 / 거짓)
2. 뿌리에서 잎까지 물 분자들은 사슬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다.
정답 : (참 / 거짓)
3. [A]와 <보기>에 따르면 소금물에 소금을 추가하면 배추에서 빠져 나오는 물이 이동하는 힘이 커진다.
정답 : (참 / 거짓)
4. [A]와 <보기>에 따르면 선택적 투과성 막을 흠 속의 물 분자는 통과할 수 있지만 소금 입자는 통과할 수 없다.
정답 : (참 / 거짓)
5. [A]와 <보기>에 따르면 흠 속의 물과 배추의 물이 이동하면 뿌리털 안의 용액과 소금물의 농도가 높아진다.
정답 : (참 / 거짓)
6. ㉠에 의해서는 물의 상태가 바뀌지 않고, ㉡에 의해서는 물의 상태가 바뀐다.
정답 : (참 / 거짓)
7. ㉠으로 물을 위로 밀어 올리는 힘이, ㉡으로 물을 위에서 잡아당기는 힘이 생긴다.
정답 : (참 / 거짓)
8. 피부에 알코올 솜을 문지를 때 ㉠와 같은 현상이 일어난다.
정답 : (참 / 거짓)
9. 이누이트 족이 얼음집 안에 물을 뿌릴 때 ㉠와 같은 현상이 일어난다.
정답 : (참 / 거짓)
10. 문맥상 ㉡와 바꿔 쓰기에 적절한 단어는 ‘부착(附着)하면’이다.
정답 : (참 / 거짓)
11. 문맥상 ㉠와 바꿔 쓰기에 적절한 단어는 ‘상이(相異)한데’이다.
정답 : (참 / 거짓)

[문제] 20번. 학생이 <보기>와 같은 실험을 하였다. 뒷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



크기와 종류가 같은 식물 셋을 (가)는 줄기만, (나)는 줄기와 잎만을 남겨 비닐을 씌운다. (다)는 뿌리, 줄기, 잎을 그대로 둔다. 셋을 물에 담아 햇빛 등이 동일한 조건에서 변화를 관찰하였다.

- ① (가)보다 (나)의 비닐 안쪽 면에 물방울이 덜 맺힐 것이다.
- ② (가)의 용기에 담긴 물이 (나), (다)의 용기에 담긴 물보다 더 많이 줄어들 것이다.
- ③ (나)에서는 한 가지 힘이, (다)에서는 두 가지 힘이 작용하여 물이 이동한다.
- ④ (가), (나), (다) 모두 물 분자들이 연결된 물 기둥이 형성될 것이다.
- ⑤ (가), (나), (다) 모두 공기가 식물 내부로 출입하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

※ 2019년 고1 6모 16 ~ 21번 비문학 문제 참조

- 스스로 정답을 정하고, 그 근거도 정리해본 후에, '정답 및 해설'을 보셔야 합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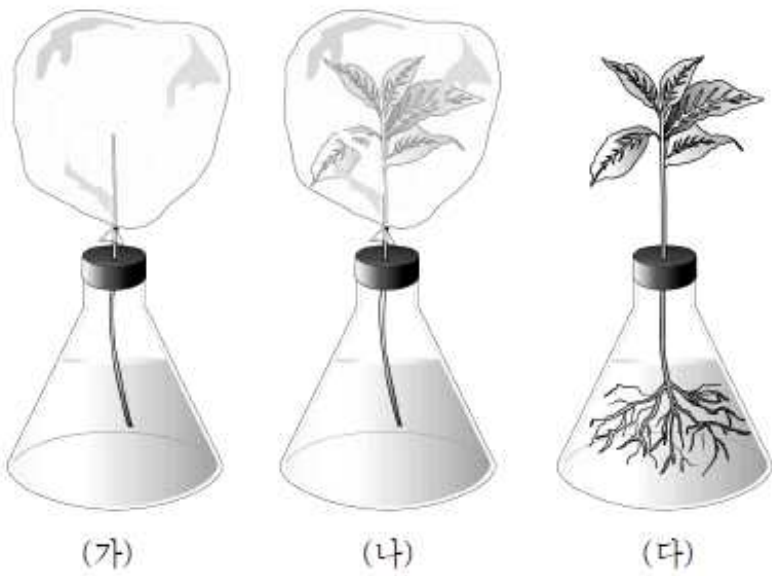
하루하루 남기다 보면 늘어나는 국어

#194 정답 및 해설

<보기> 17번

삼투 현상이란 용액의 농도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선택적 투과성 막을 통해 물이 이동하는 현상이다. 이때 물이 이동하는 힘을 삼투압이라 하며, 이 힘은 용액의 농도에 따라 비례한다. 삼투 현상의 예로 배추를 소금물에 담그면 소금 입자는 이동하지 못하고 배추에 있는 물이 소금물 쪽으로 이동하여 배추가 절여지는 것을 들 수 있다.

<보기> 20번



크기와 종류가 같은 식물 셋을 (가)는 줄기만, (나)는 줄기와 잎만을 남겨 비닐을 씌운다. (다)는 뿌리, 줄기, 잎을 그대로 둔다. 셋을 물에 담아 햇빛 등이 동일한 조건에서 변화를 관찰하였다.

[지문]

식물의 성장에는 물이 필수적이다. 동물과 달리 식물은 잎에서 광합성을 통해 성장에 필요한 양분을 만들어 내는데, 물은 바로 그 원료가 된다. 물은 지구 중심으로부터 중력을 받기 때문에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지만, 식물은 지구 중심과는 반대 방향으로 자란다. 따라서 식물이 줄기 끝에 달려 있는 잎에 물을 공급하려면 중력의 반대 방향으로 물을 끌어 올려야 한다. 미국의 캘리포니아 레드우드 국립공원에는 세계에서 키가 가장 큰 세쿼이아가 있다. 이 나무는 키가 무려 112m에 이르며, 뿌리는 땅속으로 약 15m까지 뻗어 있다고 한다. 따라서 물이 뿌리에서 나무의 꼭대기에 있는 잎까지 도달하려면 127m나 끌어 올려져야 한다. 펌프 같은 장치도 보이지 않는데 대체 물이 어떻게 그 높은 곳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것일까? 식물은 어떤 힘을 이용하여 뿌리에서부터 잎까지 물을 끌어 올릴까? 식물이 물을 뿌리에서 흡수하여 잎까지 보내는 데는 뿌리압, 모세관 현상, 증산 작용으로 생긴 힘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현장독해]

[지문 독해 들어가기 전, 지문 이해도를 높여줄 정보가 보이면 문제 및 <보기> 먼저 읽는다.]

- 농도가 높은 곳으로 물이 막을 투과해서 이동 -> 물이 증가하니 농도가 낮아져서 양쪽 농도 밸런스 맞추는 게 삼투 현상.

[기초 상식 : 물만 있으면 농도 0%, 물에 A섞으면 A농도 상승]

[기초 어휘 : '투과' 장애물에 액체가 스미면서 통과함]

- 용액 농도가 진할수록 -> 삼투압 강함 -> 물이 강하게 이동

[비례관계 정리]

- 소금물 쪽 농도가 높을 테니까, 소금물 농도 낮추려고 삼투 현상 일어나서 배추물이 소금물 쪽으로 이동.

★ '용액, 농도, 입자, 투과, 막' 기초 상식으로 알고 있을 거라고 출제자가 가정하고 문제 냄 [기초상식]

- 줄기, 잎, 뿌리 3가지가 중요한 듯? 지문에서 나오면 찾자

[문제와 <보기>를 쓱 보면서 지문 독해 시 주목할 부분 찾기]

- 물 중요

[키워드 파악]

- 물이 광합성의 원료

-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vs 식물은 낮은 곳(지구 중심)에서 높은 곳(지구 중심과 반대방향)으로 [차이점 구분]

- 112 -(-15) = 127 [결괏값의 도출 논리, 계산 과정 생각해보기]

- <보기> 삼투압 활용해서 물 끌어올리려나? [<보기>-지문 연결]

- 뿌리압, 모세관 현상, 증산 작용 3개 설명하겠지 앞으로

[지문 전개 방식 예측]

[A]호박이나 수세미의 잎을 모두 ㉔ 떼어 내고 뿌리와 줄기만 남기고 자른 후 뿌리 끝을 물에 넣어 보면, 잘린 줄기 끝에서는 물이 힘차게 솟아오르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올라온다. 뿌리털을 둘러싼 세포막을 경계로 안쪽은 땅에 비해 여러 가지 유기물과 무기물들이 더 많이 섞여 있어서 뿌리 바깥보다 용액의 농도가 높다. 다시 말해 뿌리털 안은 농도가 높은 반면, 흙 속에 포함되어 있는 물은 농도가 낮다. 이때 농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흙 속에 있는 물 분자는 뿌리털의 세포막을 거쳐 물 분자가 상대적으로 적은 뿌리 내부로 ㉕ 들어온다. 이처럼 농도가 낮은 흙 속의 물을 농도가 높은 뿌리 쪽으로 이동시키는 힘이 생기는데, 이를 뿌리압이라고 한다. 즉 뿌리압이란 뿌리에서 물이 흡수될 때 밀고 들어오는 압력으로, 물을 위로 밀어 올리는 힘이다.

물이 담긴 그릇에 가는 유리관을 ㉖ 꽂아 보면 유리관을 따라 물이 올라가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이처럼 가는 관과 같은 통로를 따라 액체가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것을 모세관 현상이라고 한다. 모세관 현상은 물 분자와 모세관 벽이 결합하려는 힘이 물 분자끼리 결합하려는 힘보다 더 크기 때문에 일어난다. 따라서 관이 가늘어질수록 물이 올라가는 높이가 높아진다. 식물체 안에는 뿌리에서 줄기를 거쳐 잎까지 연결된 물관이 있다. 물관은 말 그대로 물이 지나가는 통로인데, 지름이 75 μ m(마이크로미터, 1 μ m=0.001mm)로 너무 가늘어 눈으로는 볼 수 없다. 이처럼 식물은 물관의 지름이 매우 작기 때문에 ㉗ 모세관 현상으로 물을 밀어 올리는 힘이 생긴다.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는 더운 여름철에는 큰 나무가 만들어 주는 그늘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다. 나무가 만들어 주는 그늘이 건물이 만들어 주는 그늘보다 더 시원한 이유는 무엇일까? ㉘ 나무의 잎은 물을 수증기 상태로 공기 중으로 내보내는데, 이때 물의 주위의 열을 흡수하기 때문에 나무의 그늘 아래가 건물이 만드는 그늘보다 훨씬 시원한 것이다. 식물의 잎에는 기공이라는 작은 구멍이 있다. 기공을 통해 공기가 들락날락하거나 잎의 물이 공기 중으로 증발하기도 한다. 이처럼 식물체 내의 수분이 잎의 기공을 통하여 수증기 상태로 증발하는 현상을 ㉙ 증산 작용이라고 한다. 가로 세로가 10 \times 10cm인 잔디밭에서 1년 동안 증산하는 물의 양을 조사한 결과, 놀랍게도 55톤이나 되었다. 이는 1리터짜리 페트병 5만 5천 개 분량에 해당하는 물의 양이다. 상수리나무는 6~11월 사이에 약 9,000kg의 물을 증산하며, 키가 큰 해바라기는 맑은 여름날 하루 동안 약 1kg의 물을 증산한다.

기공의 크기는 식물의 종류에 따라 ㉚ 다른데 보통 폭이 8 μ m, 길이가 16 μ m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크기가 1 cm^2 인 잎에는 약 5만 개나 되는 기공이 있으며, 그 대부분은 잎의 뒤쪽에 있다. 이 기공을 통해 그렇게 엄청난 양의 물이 공기 중으로 증발해 버린다. 증산 작용은 물을 식물체 밖으로 내보내는 작용으로, 뿌리에서 흡수된 물이 줄기를 거쳐 잎까지 올라가는 원동력이다. 잎의 세포에서는 물이 공기 중으로 증발하면서 아래쪽의 물 분자를 끌어 올리는 현상이 일어난다. 즉, 물 분자들은 서로 잡아당기는 힘으로써 연결되는데, 이는 물 기둥을 형성하는 것과 같다. 사슬처럼 연결된 물 기둥의 한쪽 끝을 ㉛ 이루는 물 분자가 잎의 기공을 통해 빠져 나가면 아래쪽 물 분자가 끌어 올려지는 것이다. 증산 작용에 의한 힘은 잡아당기는 힘으로 식물이 물을 끌어 올리는 요인 중 가장 큰 힘이다.

- 잘린 줄기 끝에서 물이 계속 올라온다. 오... 왜?
- 세포막을 경계로 = <보기> 선택적 투과성 막?

[<보기>-지문 연결]

- 뿌리털 안 : 농도가 높다 vs 흙 속의 물 : 농도가 낮다[차이점]
- > <보기> 삼투압. 흙 속의 물이 뿌리털로 이동하겠네.

[<보기>-지문 연결]

- = 물이 많은 흙에서 물이 적은 뿌리 내부로 물이 들어온다.
- 뿌리압 = 물을 위로 밀어 올리는 힘 <보기> 삼투압

[<보기>-지문 연결]

- 가는 관(=유리관)과 같은 통로를 따라 액체(=물)가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것 = 모세관 현상

[예시-개념 연결]

- 모세관 벽+물 분자 > 물 분자+물 분자

[수학적 사고 : 지문 내용 도식화 해보기]

- 모세관 벽이랑 물 분자가 결합해서 모세관 쪽으로 물이 간다
- 관이 가늘어질수록 -> 물이 올라가는 높이가 높아진다.

[반비례 관계 정리]

- 물관의 지름이 매우 작아서 = 너무 가늘어서 -> 물을 밀어 올리는 힘이 생기고 그 힘이 커서 -> 물이 올라가는 높이 아주 높아지는

[반비례-비례 관계 정리]

- '그늘'

- 나뭇잎 -> 물을 수증기 상태로 공기 중으로 내보냄 -> 내보낸 물이 주위 열 흡수 -> 시원

[인과 관계 정리]

- 증산 작용 : 잎의 물 = 수분 -> 기공 -> 수증기 상태로 증발

[인과 관계 정리]

- 증산 작용으로 식물이 물 공기 중으로 내보내는 양 엄청 많네.

[핵심을 나만의 편한 표현으로 정리]

- 기공 크기는 작는데 vs 증산량은 엄청남

[차이점 구분]

- 위에 있는 물이 기공을 통해 공기 중으로 나가면서 아래에 있는 물이 그 자리를 채우는, 은퇴하고 인수인계하는 거네

[나만의 편한 표현으로 핵심 정리]

- 관과 물 분자가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커서 모세관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지만 vs 위 물 분자가 아래 물 분자 잡아당기는 힘도 존재는 하는구나. 증산 작용에 의한 힘이 물 분자와 물 분자가 서로 잡아당겨서 물을 끌어올리는 힘이너.

- 아 그니까 삼투압에 의해 끌어 올려지는 힘도 있고, 모세관 현상에 의해 끌어 올려지는 힘도 있는데, 증산 작용에 의해 끌어 올려지는 힘이 가장 크다.

[최상급 표현 주의]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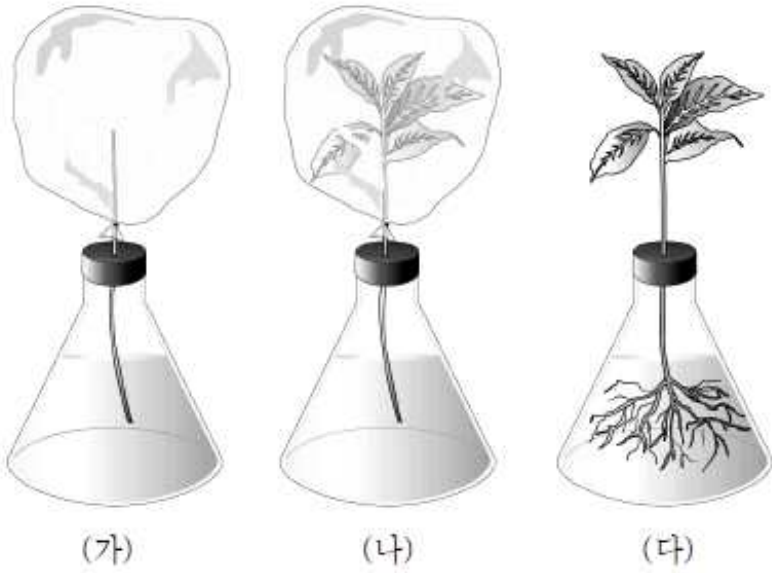
1. 식물이 광합성 작용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이 필요하다.
정답 : (참 / 거짓)
2. 뿌리에서 잎까지 물 분자들은 사슬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다.
정답 : (참 / 거짓)
3. [A]와 <보기>에 따르면 소금물에 소금을 추가하면 배추에서 빠져 나오는 물이 이동하는 힘이 커진다.정답 : (참 / 거짓)
4. [A]와 <보기>에 따르면 선택적 투과성 막을 흡 속의 물 분자는 통과할 수 있지만 소금 입자는 통과할 수 없다.
정답 : (참 / 거짓)
5. [A]와 <보기>에 따르면 흡 속의 물과 배추의 물이 이동하면 뿌리털 안의 용액과 소금물의 농도가 높아진다.
정답 : (참 / 거짓)
6. ㉠에 의해서는 물의 상태가 바뀌지 않고, ㉡에 의해서는 물의 상태가 바뀐다.
정답 : (참 / 거짓)
7. ㉠으로 물을 위로 밀어 올리는 힘이, ㉡으로 물을 위에서 잡아당기는 힘이 생긴다.
정답 : (참 / 거짓)
8. 피부에 알코올 솜을 문지를 때 ㉠과 같은 현상이 일어난다.
정답 : (참 / 거짓)
9. 이누이트 족이 얼음집 안에 물을 뿌릴 때 ㉠과 같은 현상이 일어난다.
정답 : (참 / 거짓)
10. 문맥상 ㉡와 바꿔 쓰기에 적절한 단어는 ‘부착(附着)하면’이다.
정답 : (참 / 거짓)
11. 문맥상 ㉠와 바꿔 쓰기에 적절한 단어는 ‘상이(相異)한데’이다.
정답 : (참 / 거짓)

[정답 및 해설] 1.참, 2.참, 3.참, 4.참, 5.거짓, 6.참, 7.참, 8.참, 9.거짓, 10.거짓, 11.참, 20.㉠번

1. 선택지 ‘반드시 물이 필요’ = 지문 1문단 ‘동물과 달리 식물은 앞에서 광합성을 통해 생장에 필요한 양분을 만들어 내는데, 물은 바로 그 원료가 된다.’ 광합성의 원료는 물. 참
2. 선택지 ‘뿌리에서 잎까지’ = 지문 마지막 5문단 ‘증산 작용은 물을 식물체 밖으로 내보내는 작용으로, 뿌리에서 흡수된 물이 줄기를 거쳐 잎까지 올라가는 원동력이다.’
+ 선택지 ‘물 분자들은 사슬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다’ = 마지막 5문단 ‘사슬처럼 연결된 물 기둥의 한쪽 끝을 ㉠이루는 물 분자가 잎의 기공을 통해 빠져 나가면 아래쪽 물 분자가 끌어 올려지는 것이다.’ 참
3. 소금물에 소금을 추가하면 -> 소금물 농도가 높아짐 -> 높아진 소금물 농도를 낮추기 위해 배추에서 물이 나오는 힘이 더 커짐. 참
4. <보기> 소금 입자는 이동하지 못하고 배추에 있는 물이 소금물 쪽으로 이동하여 배추가 절여지는 것. 투과성 막이 소금은 선택적으로 통과 안 시키고 물만 선택적으로 통과시키니까 물의 이동에 따른 농도 조절이 가능한 것. 소금도 이동 가능하면 농도 조절이 안되겠지. 참
5. 통과하지 못하는 유기물, 무기물, 소금은 그대로 있는데 물이 들어오면 용액 농도, 소금물 농도는 낮아지겠지. 거짓
6. ㉠모세관 현상으로는 물이 끌어올려지는 것뿐이고, ㉡은 액체인 물이 ‘기체’인 수‘증기’로 상태가 바뀌네. 참
7. ㉠모세관 현상으로 물이 위로 올라가고, ㉡증산 작용으로 위의 물이 기공을 통해 나가면서 아래 물을 잡아당기고. 참
8. 알코올 솜의 알코올이 기공의 물처럼 밖으로 나와 주변의 열을 흡수하므로 시원해지는 것. 참
9. 물을 뿌리면 물이 주변의 열을 흡수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열겠지. 거짓.
10. 부착하면 = ‘떨어지지 아니하게 붙이거나 달다’ vs 꽃아 = 쓰러지거나 빠지지 아니하게 박아 세우거나 끼우다. 붙이는 거랑 박는 거는 다르지. 거짓.
11. 상이(相異)한데 = 서로 다르다 = ㉠‘다른데’. 참

[문제] 20번. 학생이 <보기>와 같은 실험을 하였다. 밑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



크기와 종류가 같은 식물 셋을 (가)는 줄기만, (나)는 줄기와 잎만을 남겨 비닐을 씌운다. (다)는 뿌리, 줄기, 잎을 그대로 둔다. 셋을 물에 담아 햇빛 등이 동일한 조건에서 변화를 관찰하였다.

(가) 뿌리 없으니까 뿌리압 안되고, 줄기 있으니까 모세관 현상은 일어나고, 잎 없으니까 증산 작용은 안되고
 (나) 뿌리 없으니까 뿌리압 안 되고, 줄기랑 잎은 있으니까 모세관 현상이랑 증산 작용은 일어나고
 (다) 뿌리, 줄기, 잎 3선카 다 있는 완전체니까 뿌리압, 모세관 현상, 증산 작용 다 일어나겠네.

[선택지로 바로 넘어가지 말고, <보기> 보면서 출제요소 파악]

- ① (가)보다 (나)의 비닐 안쪽 면에 물방울이 덜 맺힐 것이다.
- ② (가)의 용기에 담긴 물이 (나), (다)의 용기에 담긴 물보다 더 많이 줄어들 것이다.
- ③ (나)에서는 한 가지 힘이, (다)에서는 두 가지 힘이 작용하여 물이 이동한다.
- ④ (가), (나), (다) 모두 물 분자들이 연결된 물 기둥이 형성될 것이다.
- ⑤ (가), (나), (다) 모두 공기가 식물 내부로 출입하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

- ① (나)는 잎에 의한 증산 작용은 일어나니까, 비닐에 물방울이 더 맺히겠지. 거짓
- ② (나)(다)는 증산작용이나 뿌리압이 일어나니까, 물을 더 많이 끌어 올릴 테니까, (나)(다)가 (가)보다 아래의 물 많이 줄겠지. (가) 용기에 담긴 물이 더 적게 줄어들겠지. 거짓
- ③ (나)에는 모세관 현상과 증산작용 두 가지, (다)에는 뿌리압, 모세관 현상, 증산 작용 세 가지. 거짓.
- ④ 줄기는 셋 다 있잖아. 물 분자들이 연결된 물 기둥이 형성되는 모세관 현상은 일어나겠지. 참. 정답 ④번
- ⑤ (가)는 잎이 없어서 공기가 식물 내부로 출입하는 증산작용 안 일어나고, (나) (다)는 증산 작용 일어남. 거짓.

★★★ 기초상식, 배경지식의 중요성 ★★★

‘용액, 농도, 입자, 투과, 막, 수증기, 액체, 기체’ 등의 용어들은 기초 상식으로 알고 있을 거라고 출제자가 가정하고 문제를 냈습니다. 심지어 ‘흡열 반응, 발열 반응’이라는 표현은 지문·문제에도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은데 해설지에 버젓이 적어놓았습니다. 알코올 솜이 ㉠현상인 건 흡열 반응이라서, 이누이트 족이 뿌린 물이 ㉡현상이 아닌 건 발열 반응이라서 틀리답니다.

‘위 단어들 몰라서 뭐 말인지 하나도 이해 못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해서 풀라는 거냐. 설명 더 해줘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만, 이젠 아닙니다. 국어 1등급을 목표로 오답률 60% 이상 문제 풀어서 맞히고 싶으시면 다양한 분야의 기초 상식, 기초 개념어, 배경지식 잘 알고 이해하고 계셔야 합니다. 국어 잘하고 싶으시면 수학도 과학도 경제도 법도 기술도 잘 하셔야 합니다. **배경지식이 풍부해야만 비문학을 잘 풀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출제 방향이 옳고 그른지 따지기에 앞서, 이는 지금 우리 눈앞에서 이미 벌어지고 있는 현상임을 명심합시다.** BIS비율 계산까지 요구한 19년 수능, 사칙연산을 요구한 22년 9평 검색엔진 적합도 지문, 환율에 대한 배경지식 없이는 풀기 힘든 21년 수능 브레턴우즈 지문. 지구과학을 가르치는 메가 김동욱 선생님, 과학 개념서 ‘딥러닝 과학’을 만드는 이감 국어. 법·경제·과학·기술 잡지까지 만들어 내는 한수 국어. 5년도 넘게 계속되어 온, 지금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중인 실제 현상인 만큼 기초상식, 배경지식 공부 꾸준히 반드시 합시다.

용액 (溶液) - 【명사】 (화학) 어떤 물질에 다른 물질이 녹아 섞인 액체.

농도 (濃度) - 【명사】 (화학) 혼합 기체나 용액 속에 들어 있는 각 성분의 양의 비율.

입자 (粒子) - 【명사】 (물리) 물질을 이루는 매우 작은 낱알의 알갱이.

투과 (透過) - 【명사】 (물리) 광선·방사선 등이 물질의 내부를 통과함.

세:포-막 (細胞膜) - 【명사】 (생명) 세포질의 바깥쪽에 있어 원형질을 싸고 있는 막. 선택적 투과나 물질의 운반에 관계함.

수-증기 (水蒸氣) - 【명사】 물이 증발해서 생긴 김. 기체 상태로 된 물.

액체 (液體) - 【명사】 물·기름처럼 일정한 부피는 있으나, 일정한 형상이 없는 유동성 물질.

기체² (氣體) - 【명사】 (물리) 공기·가스 따위처럼 분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서 각 분자가 자유로이 유동하므로 일정한 모양과 부피를 갖지 않는 물질

흡열 반응 (吸熱反應) - (화학) 주위의 열을 흡수하여 일어나는 화학 반응. ↔ 발열 반응.

발열 반응 (發熱反應) - (화학) 열을 내면서 진행되는 화학 반응《탄소의 연소, 산과 알칼리의 중화 따위》. ↔ 흡열 반응.

#195 문법

<보기>

<표준 발음법 규정>

제23항

받침 ‘ㄱ(ㄱ, ㅋ, ㆁ, ㄷ), ㄷ(ㄷ, ㅌ, ㄴ, ㄷ, ㅌ), ㄴ(ㄴ, ㄹ, ㄷ, ㄴ)’ 뒤에 연결되는 ‘ㄱ, ㄷ, ㄴ, ㄷ, ㄴ’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제24항

어간 받침 ‘ㄴ(Lx), ㄹ(ㄹ)’ 뒤에 결합되는 어미의 첫소리 ‘ㄱ, ㄷ, ㄷ, ㄴ’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다만, 피동, 사동 접미사 ‘-기-’는 된소리로 발음하지 않는다.

제25항

어간 받침 ‘ㄹ, ㄹ’ 뒤에 결합되는 어미의 첫소리 ‘ㄱ, ㄷ, ㄷ, ㄴ’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문제] <보기>를 바탕으로 표준 발음법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따뜻한 국밥’에서 ‘국밥’은 제23항을 적용하여 [국뻬]으로 발음해야겠군.
- ② ‘우리 집 닭장’에서 ‘닭장’은 제23항을 적용하여 [닥짱]으로 발음해야겠군.
- ③ ‘의자에 앉도록’에서 ‘앉도록’은 제24항을 적용하여 [안또록]으로 발음해야겠군.
- ④ ‘아이에게 신발을 신기다’에서 ‘신기다’는 제24항을 적용하여 [신기다]로 발음해야겠군.
- ⑤ ‘여덟과 아홉’에서 ‘여덟과’는 제25항을 적용하여 [여덜과]로 발음해야겠군.

※ 2015년 고2 3월 A형 15번 문법 문제 참조

하루하루 남기다 보면 늘어나는 국어

#195 정답 및 해설

<보기>

<표준 발음법 규정>

제23항

받침 ‘ㄱ(ㄱ, ㅋ, ㆁ, ㄷ), ㄴ(ㄴ, ㄷ, ㄹ), ㄷ(ㄷ, ㅌ, ㄷ, ㅌ, ㅌ), ㅂ(ㅂ, ㅃ, ㅃ, ㅃ)’ 뒤에 연결되는 ‘ㄱ, ㄴ, ㅂ, ㅅ,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제24항

어간 받침 ‘ㄴ(Lx), ㄹ(Lx)’ 뒤에 결합되는 어미의 첫소리 ‘ㄱ, ㄴ, ㅅ,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다만, 피동, 사동 접미사 ‘-기-’는 된소리로 발음하지 않는다.

제25항

어간 받침 ‘ㄹ, ㄹ’ 뒤에 결합되는 어미의 첫소리 ‘ㄱ, ㄴ, ㅅ,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문제] <보기>를 바탕으로 표준 발음법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따뜻한 국밥’에서 ‘국밥’은 제23항을 적용하여 [국뺨]으로 발음해야겠군.
- ② ‘우리 집 닭장’에서 ‘닭장’은 제23항을 적용하여 [닥짱]으로 발음해야겠군.
- ③ ‘의자에 앉도록’에서 ‘앉도록’은 제24항을 적용하여 [안뜨록]으로 발음해야겠군.
- ④ ‘아이에게 신발을 신기다’에서 ‘신기다’는 제24항을 적용하여 [신기다]로 발음해야겠군.
- ⑤ ‘여덟과 아홉’에서 ‘여덟과’는 제25항을 적용하여 [여덜과]로 발음해야겠군.

[현장독해]

- ‘어간’이라는 건 동사·형용사 등 용언이 쓰였다는 것. [어간 받침 주의]
- 피동·사동 접미사 예외 주의 [다만, 예외 주의]
- ‘어간’주의

[정답 및 해설] ⑤번

- ① 제23항을 적용하여 받침 ㄱ 뒤에 연결되는 ㅂ은 된소리 뺨으로 발음한다. 참
- ② 제23항을 적용하여 받침 ㄱ 뒤에 연결되는 ㅈ은 된소리 짱으로 발음한다. 참
+ 된소리되기를 먼저 적용한 후, 자음군단순화를 적용한다.
‘닭장’ -> [닭짱] -> [닥짱]
- ③ ‘앉’은 용언의 어간이므로, 제24항을 적용하여 어간 받침 ㄴ(Lx) 뒤에 결합되는 어미 ‘도록’의 첫소리 ‘ㄷ’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 된소리되기를 먼저 적용한 후, 자음군단순화를 적용한다.
‘앉도록’ -> [안뜨록] -> [안뜨록]
- ④ ‘기’는 사동 접미사이므로, 제24항 ‘다만’을 적용하여 된소리로 발음하지 않는다. [신기다]
- ⑤ ‘여덟’은 어간이 아니라 수사(체언)이므로, 제23항을 적용하여 ㅂ(ㄹ) 뒤에 연결되는 ‘ㄱ’은 된소리 ㄱ으로 발음한다.
+ 된소리되기를 먼저 적용한 후, 자음군단순화를 적용한다.
‘여덟과’ -> [여덜과] -> [여덜과]

※ 2015년 고2 3월 A형 15번 문법 문제 참조

★★★ 용언의 어간인지 아닌지를 엄밀히 구분한다 ★★★

겉으로 보이는 출제요소는 '된소리되기'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속의 핵심 출제요소는 '어간'일 경우 제24항 25항을 적용하고, '어간이 아닐 경우' 제23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국밥, 닭장, 여덟과'는 어간이 아니니까 제23항을 적용하고, '앉도록' '신기다'는 쪼개서 원형파악하면 '앉다' '신다'로 어간이므로 제24항 제 25항을 적용할 생각을 해야 합니다. 표준발음법 조항을 공부할 때에도, 제23항 '받침' vs 제24항 제25항 '어간 받침'이라는 표현의 차이에 대해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풀기 위해 <보기> 표준발음법 조항을 훑어보실 때에도, '어간'이 출제요소가 될 수 있음을 사전에 파악 가능할 정도로 예민하게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 음운 변동의 순서 ★★★

표준 발음법 적용 순서, 즉 음운 변동의 순서에는 견해차가 있다고 하는데요. 수험생 입장에서 문제 풀 때 일단 기억해두어야 할 건 '된소리되기(경음화)'가 먼저 적용된 후 '자음군 단순화'를 적용한다는 겁니다.

위 문제 중 맑게 [말께]에서는 된소리되기를 자음군 단순화보다 우선 적용했습니다.

- 표준발음법 제 6장 된소리되기 제23항 겹받침 'ㄹ'의 'ㄱ' 뒤에 연결되는 '게'의 'ㄱ'은 된소리[ㄱ]로 발음한다.
- 표준발음법 제 4장 받침의 발음 자음군 단순화 제11항 다만, 용언 '맑다'의 어간 발음 'ㄹ'은 'ㄱ' 앞에서 [ㄹ]로 발음한다.

순서를 반대로 해서 자음군 단순화를 우선 적용해보면, 맑게 [말께]가 됩니다. [말께]가 [말께]가 되게 하는 된소리되기 조항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음운 변동이 일어나지 않는데, 이는 올바른 발음이 아니죠. '된소리되기(경음화)'를 먼저 적용한 후 '자음군 단순화'를 적용하면 실전에서 문제 풀 때 막힘없이 풀 수 있을 겁니다. 하루하루 남기다 보면 늘어나는 국어 #183 문법도 참고해보세요

※ '거센소리되기(유기음화), 음절의 끝소리 규칙, 된소리되기(경음화)'를 우선 적용하고, 이후 '자음군 단순화'를 적용한 후, 콧소리되기(비음화), 굴림소리되기(유음화)를 적용하자는 견해도 있다고 합니다.

하루하루 남기다 보면 늘어나는 국어

#196 비문학

[지문]

물은 상온에서 액체 상태이며, 100°C에서 끓어 기체인 수증기로 변하고, 0°C 이하에서는 고체인 얼음으로 변한다. 만일 물이 상온 상태에서 기체이거나 또는 보다 높은 온도에서 끓어 고체 상태라면 물이 구성 성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생명체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A]생물체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물에 의존하는 것은 무엇보다 물 분자 구조의 특징에서 비롯된다. 물 1분자는 1개의 산소 원자(O)와 2개의 수소 원자(H)가 공유 결합을 이루고 있는데, 2개의 수소 원자는 약 104.5°의 각도로 산소와 결합한다. 이 때 산소 원자와 수소 원자는 전자를 1개씩 내어서 전자쌍을 만들고 이를 공유한다. 하지만 전자쌍은 전자친화도가 더 큰 산소 원자 쪽에 가깝게 위치하여 산소 원자는 약한 음전하(-)를, 수소는 약한 양전하(+)를 띠게 되어 물 분자는 극성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극성을 띤 물 분자들끼리는 서로 다른 물 분자의 수소와 산소 사이에 전기적 인력이 작용하는 결합이 형성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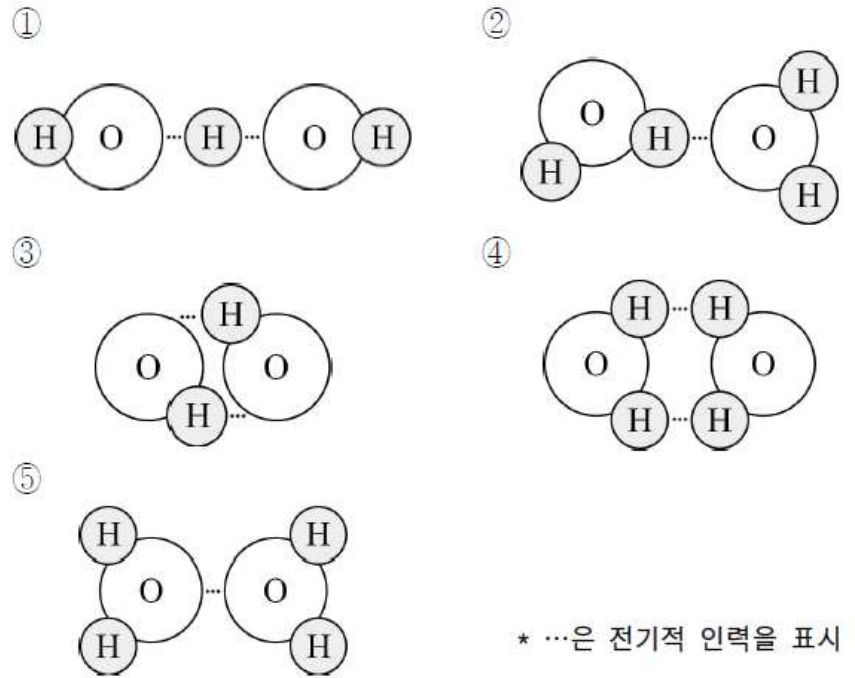
물 분자가 극성을 가지고 있어서 물은 여러 가지 물질을 잘 녹이는 특성을 가진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용매 역할을 하며, 각종 물질을 운반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물은 혈액을 구성하고 있어 영양소, 산소, 호르몬, 노폐물 등을 운반하며, 대사 반응, 에너지 전달 과정의 매질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전기적 인력으로 결합된 구조는 물이 비열이 큰 성질을 갖게 한다. 비열은 물질 1g을 온도 1°C를 높일 때 필요한 열량을 말하는데, 물질의 고유한 특성이다. 체액은 대부분 물로 구성되어 있어서 상당한 추위에도 어느 정도까지는 체온이 내려가는 것을 막아 준다. 특히 우리 몸의 여러 생리 작용은 효소 단백질에 의해 일어나는데, 단백질은 온도 변화에 민감하므로 체온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문제] 오지선다

29. 밑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물 분자는 극성을 띠어 전기적 인력을 가진다.
- ② 물의 분자 구조는 혈액의 역할에 영향을 미친다.
- ③ 물은 물질의 전달 과정에서 매질로 역할을 한다.
- ④ 물 분자를 이루는 산소와 수소는 전자를 공유한다.
- ⑤ 물의 비열 변화는 단백질의 기능에 영향을 미친다.

30. [A]를 도식화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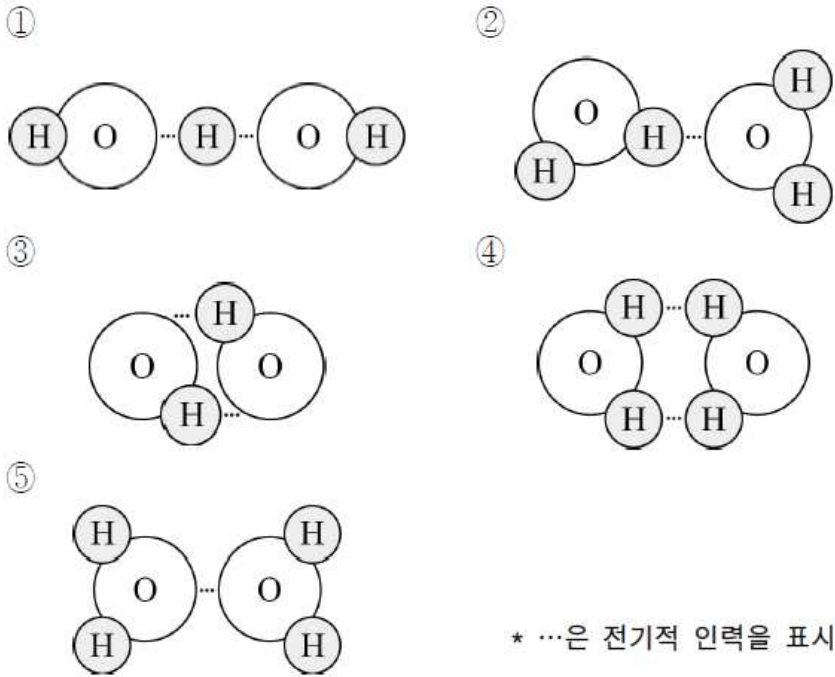


※ 2014년 고1 9모 29 ~ 30번 비문학 문제 참조

하루하루 남기다 보면 늘어나는 국어

#196 정답 및 해설

[보기]



[지문]

물은 상온에서 액체 상태이며, 100°C에서 끓어 기체인 수증기로 변하고, 0°C 이하에서는 고체인 얼음으로 변한다. 만일 물이 상온 상태에서 기체이거나 또는 보다 높은 온도에서 끓어 고체 상태라면 물이 구성 성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생명체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A]생물체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물에 의존하는 것은 무엇

보다 물 분자 구조의 특징에서 비롯된다. 물 1분자는 1개의 산소

원자(O)와 2개의 수소 원자(H)가 공유 결합을 이루고 있는데, 2

개의 수소 원자는 약 104.5°의 각도로 산소와 결합한다. 이 때 산

소 원자와 수소 원자는 전자를 1개씩 내어서 전자쌍을 만들고 이

를 공유한다. 하지만 전자쌍은 전자친화도가 더 큰 산소 원자 쪽

에 가깝게 위치하여 산소 원자는 약한 음전하(-)를, 수소는 약한

양전하(+)를 띠게 되어 물 분자는 극성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극

성을 띤 물 분자들끼리는 서로 다른 물 분자의 수소와 산소 사이

에 전기적 인력이 작용하는 결합이 형성된다.

[현장독해]

- 문제에 그림 나왔네. H2O 이거 물 아닌가? 전기적 인력도 중요해 보이고. [A]부분 읽으면서 같이 보자.

[지문 독해 전에 보기<그림>을 훑어 보면서, 지문 읽을 때 주목할 만한 부분 찾아두기]

- 상온 : 액체 = 물

vs 100°C : 기체 = 수증기

vs 0°C 이하 : 고체 = 얼음

[차이점 구분]

- 생명체의 구성 성분의 대부분은 물이 차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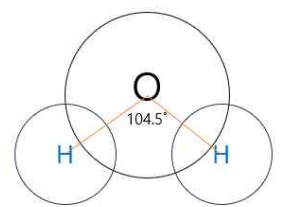
-> 물이 상온에서 고체or기체면 생명체 존재 못함

[인과관계 정리]

- '물 분자 구조'가 키워드

[키워드 파악]

- O 1개, H 2개, 104.5°... 음... 대략... 뭐 이런 거겠지? [기초상식·배경지식]



or [최상위권 기하학적 연상력 : 상황

을 머릿속으로 그림 그리기, 안 되면 시험지에 직접 그려보기]

+ 30번 보기도 다 그렇게 생겼네. [지문-<그림> 연결해 이해]

- 각자 전자 1개씩 내어서 전자쌍 만들어 공유

- 산소 원자가 전자친화도 더 큼

-> 산소가 약한 음전하, 수소가 약한 양전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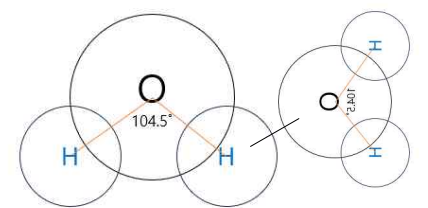
- 2개의 물 분자가 있는데 한 쪽

의 산소가 약한 음전하, 다른

쪽의 수소가 약한 양전하 띠어

서 두 개가 결합... 아 그러니

까... 뭐 이런 건가? 30번 ②번.



[최상위권 기하학적 연상력 :

상황을 머릿속으로 그림 그리기]

[지문 읽으며 주관식으로 문제 풀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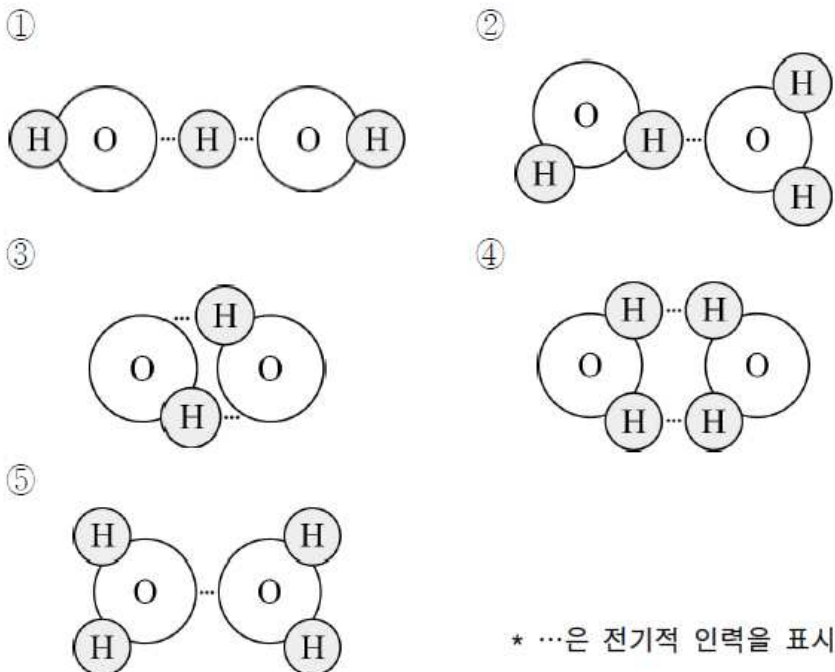
물 분자가 극성을 가지고 있어서 물은 여러 가지 물질을 잘 녹이는 특성을 가진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용매 역할을 하며, 각종 물질을 운반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물은 혈액을 구성하고 있어 영양소, 산소, 호르몬, 노폐물 등을 운반하며, 대사 반응, 에너지 전달 과정의 매질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전기적 인력으로 결합된 구조는 물이 비열이 큰 성질을 갖게 한다. 비열은 물질 1g을 온도 1°C를 높일 때 필요한 열량을 말하는데, 물질의 고유한 특성이다. 체액은 대부분 물로 구성되어 있어서 상당한 추위에도 어느 정도까지는 체온이 내려가는 것을 막아 준다. 특히 우리 몸의 여러 생리 작용은 효소 단백질에 의해 일어나는데, 단백질은 온도 변화에 민감하므로 체온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문제] 오지선다

29. 밑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물 분자는 극성을 띠어 전기적 인력을 가진다.
- ② 물의 분자 구조는 혈액의 역할에 영향을 미친다.
- ③ 물은 물질의 전달 과정에서 매질로 역할을 한다.
- ④ 물 분자를 이루는 산소와 수소는 전자를 공유한다.
- ⑤ 물의 비열 변화는 단백질의 기능에 영향을 미친다.

30. [A]를 도식화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 극성 -> 잘 녹이는 -> 용매 역할, 운반 기능 [인과관계 정리]
- 영양소, 산소, 호르몬 노폐물 운반
- 대사 반응, 에너지 전달 과정의 매질 역할
- 비열이 큼.
- 비열 = 물질 온도를 높일 때 필요한 열량.
- 비열은 고유한 특성 [‘고유’ 등 극단적 표현 주의]
- [출제자가 한 마디 특 던지고 설명 없이 쓱 넘어간 표현 주의]
- 상당한 추위에도 체온이 내려가는 것을 막아 줌
- > 체온 유지 -> 단백질 보호 -> 여러 생리 작용 [인과관계 정리]

[정답 및 해설] 29.⑤, 30.②

- 29.
- ① 2문단 [A] 보면 물 분자가 극성을 가지게 되어서 전기적 인력이 작용하는 결합이 형성된다. [인과관계]
 - ② 혈액의 역할이 영양소·산소·호르몬·노폐물 운반하는 건데, 극성을 띠어 용매·운반 가능한 물이 혈액을 구성하고 있으니 영향 미치겠지. 참.
+ 물이 혈액을 구성한다는데, ‘영향’ 정도는 어떻게든 미치겠지. 얼마나 겸손한 표현이야. [출제자의 표현에 담긴 의도 파악]
 - ③ 선택지 ‘물질의 전달 과정에서 매질로 역할’ vs 3문단 ‘에너지 전달 과정의 매질 역할’ 물질이 에너지인지 모르겠는데, 애매하니까 판단보류하고 넘어가자
[애매하면 판단보류하고 명백한 정답 찾기]
+ 물질의 전달 과정 = 각종 물질을 운반하는 기능, 매질 = 용매. 이렇게 보면 물질이랑 에너지가 같은지 다른지 몰라서 애매하긴 해도 참이라 판단은 가능.
 - ④ 2문단 각자 전자 한 개씩 공유해서 전자쌍 만들어냄.
 - ⑤ 선택지 비열 ‘변화’ vs 3문단 비열은 물질의 ‘고유’한 특성. 거짓 정답 ⑤번.

- 30.
- [A] 읽으면서 상황을 머릿속으로 그림 그려 파악해본 바에 따르면, ②번이지. 정답 ②번
 - + [A] 읽으면서 머릿속으로 그림그려 보기는 힘들었더라도, 여기 선택지 그림들 찬찬히 보면... O 1개에 H 2개 더해진 거, 104.5° 찾아보면 ②④⑤. 이중 약한 음전하를 띠는 한 쪽의 O와 약한 양전하를 띠는 다른 쪽의 H가 결합하는 거 찾아보면... ②번밖에 없네. ④번은 H(수소)끼리 만났고, ⑤는 O(산소)끼리 만났네.

★★★ 좋은 독해 습관 : 기하학적 연상력, 상황을 머릿속으로 그림 그려가며 떠올려본다 ★★★

출제자가 글로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는 상황이 시각적으로는 어떨지, 수식으로는 어떨지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리듯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원래 그림 및 수식으로 되어 있는 지식을 국어 과목이라 글로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 쓰는 사람도 표현하기 힘들고, 읽는 사람도 이해하기 힘든 거거든요. 이렇게 이해가 잘 안될 때는 머릿속으로 그림 그려가며 떠올려보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좋은 독해 습관입니다. 소설·시나 극·시나리오에서도 서술·묘사되고 있는 장면을 머릿속으로 그림 그려가며 떠올려보시면 상황이 더 잘 파악될 겁니다. 교과서나 자습서에 괜히 특정 장면을 묘사한 '일러스트, 삽화'가 그려져 있는 게 아닙니다. 그저 얘기들이 글만 적혀 있으면 읽기 힘들어 하니까 심심해하지 말라고 그냥 넣어둔 거 아니라고요. 핵심적인 장면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일러스트레이터, 삽화가 분들에게 수십 수백만 원 돈 쥐가면서 넣어놓은 겁니다. 서술하는 상황이 잘 이해가 안될 때,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머릿속으로 그림 그려가며 떠올려 이해도를 높이시기 바랍니다.

하루하루 남기다 보면 늘어나는 안국어

#197 멘토링

프로들의 모습6. 진짜로 '문제'가 맞기는 한 건지 따져본다

몇 년 전에 알레르기 검사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고양이털 알레르기?가 엄청 심하다고 나오더라고요.

하지만
20년이 넘는 지난 세월동안
고양이털 알레르기가 있었는지조차 모르고 살아온 덕분에,
예전에도 그렇고 알레르기가 심하단 걸 안 지금까지도
고양이들이랑 잘만 놀고 있습니다.

고양이 세 마리 키우는 친구 집에 놀러가서
하루 종일 꼭 붙어서 힐링하고
소파에서 한숨 같이 자기도 하구요.

물론
고양이한테 긁힌 자국이 잘 안 사라지고
목이 살짝 막혀오는 것 같다는 느낌은 있는데요.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알게 됐을 뿐,
그렇다고 고양이가 무서워 피하거나 하진 않습니다.

알레르기가 있으니 직접 키우지는 못하겠죠.
하지만 여태 괜찮았으니,
문제인지조차 모르고 살아 왔으니,
큰 문제 아니라는 마인드로,
충분히 조절하면서 커버할 수 있다는 마인드로,
의연하게 대응하니까,
별거 아닌 게 됐습니다.

반면에요.
여태 큰 문제가 되지 않았던 일이고,
지금까지 그게 문제인지조차 몰랐던 일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불안해지면,
정말 큰 문제로 다가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머리카락이 목까지 올 정도로
머리를 길게 길렀던 적이 한번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머리카락이 길다 보니,
샤워하면서 빠진 머리카락이 엄청 많아 보이고,
배수구도 자주 막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설마 탈모 온 거 아냐?'하는 불안한 마음이 들어서
한방병원에 피부과에 탈모전문병원에
다 돌아다니면서 진단받고 했는데요.

다 탈모 시작됐다고 하시더라고요?
로게인 폼인지 뭔지 매일 뿌리고
앞으로 매일 약 먹어야 되고
레이저 시술까지 받고 해야 된대요.
사진 보여주면서 지금 이 단계고
앞으로 몇 년 뒤에 이렇게 심각해질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짜증나서 머리 짧게 자르니까...
전이랑 별 차이 없었거든요.....
그때 진짜 여태 뭘 헛짓거리를 하고 다녔나.....
싫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문가 선생님들의 소견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그분들이 정말 맞아서 제가 진짜 탈모였었고
그때 고분고분 말 잘 듣고 약 먹었어야 됐다고
후회하고 오열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치만요.
짧은 인생의 미천한 경험이지만,
이런 일들을 겪으며 제가 느꼈던 건

크게 문제가 아닌 것조차도 엄청 문제라고 하면서
사람들의 불안함을 자극하고
이것저것 조치해보라고, 아니 조치해야만 한다고,
문제를 만들고 키우는 일들이 너무 많아진 것 같습니다.

반대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진짜 심각한 문제인데도,
전문가 분들 앞세우고, 안전장치 많이 해줬다고 광고해서,
별로 안 위험한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안심하게 만들고 안심해지게 만드는 일들도 너무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변에서 문제다 문제다 하는 일들이 정말 문제가 맞는지 스스로 더 알아보셔야 합니다.
주변에서 괜찮다 괜찮다 하는 일들이 정말 문제가 없는지 스스로 더 알아보셔야 합니다.

이거 그냥 내가 요새 실모 세 번 연속으로 망쳐서 멘탈 깨져서 그런 건 아닌지...
내가 실모를 세 번 연속으로 잘 봤다면 문제라고 생각 안했을 일은 아닌지...
쇼펜하우어 말처럼 '삶이 괴로우면 그냥 평소보다 더 많이 먹고 더 많이 자라' 메타로 사라질 일은 아닌지...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피병으로 학교 짤려고 진단서나 뽑으려고 병원 간 건데,
엄청 아파 보인다면 11종 수액 중에 하나 맞으라고 하시던,
대치동 모내과 원장님 수액인지, 반대로 원효대사 해골물인지,
따져 볼 줄 아셔야 합니다.

문제가 아닌 것도 심각한 문제로 키워서 공부 안하는 자신을 합리화하지 마시고,
진짜 심각한 문제인데도 대충 넘어가다 결국 사고 나서 공부 못하게 되지 맙시다.

어떤 상황이 닥쳐도,
**자기 할 일을 하는 쪽으로 잘 컨트롤해서
해냈어야 할 일을 해내는 것이 프로니까요.**

하루하루 남기다 보면 늘어나는 국어 #198 화법

<보기> 다음은 체육대회에서 학생회장이 한 인사말이다. ㉠~㉤ 중 상황과 대상에 맞는 언어 예절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사랑하는 학우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학생회장 ○○○입니다. 여러분, ㉡저기 하늘을 좀 봐 주십시오. 오늘은 체육대회를 하기 정말 좋은 날씨지요? 이렇게 화창한 가을날, ㉢동문 선배님들과 학부모님들을 모시고 체육대회를 열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오늘 체육대회는 우리들의 건강을 증진하고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축제의 자리입니다. ㉣선수 여러분, 최선을 다해 ㉤멋진 경기를 펼쳐 주십시오.

[문제] 진위판단

1. ㉠에서는 화자가 자신을 '저'로 낮추어 공손함을 표현하고 있다. 정답 : (참 / 거짓)
2. ㉡에서는 '좀'을 사용하여 상대방이 그렇게 행동할 것을 공손하게 요청하고 있다. 정답 : (참 / 거짓)
3. ㉢에서는 '모시고'를 사용하여 발화 상황에 맞게 공손함을 나타내고 있다. 정답 : (참 / 거짓)
4. ㉣에서는 '선수 여러분'이라는 높임의 호칭을 사용하여 공손함을 드러내고 있다. 정답 : (참 / 거짓)
5. ㉤에서는 '주십시오'를 사용하여 명령문 대신 평서문으로 공손함을 실현하고 있다. 정답 : (참 / 거짓)

※ 2014년 고1 9모 3번 화법 문제 참조

- 스스로 정답을 정하고, 그 근거도 정리해본 후에, '정답 및 해설'을 보셔야 합니다 -

하루하루 남기다 보면 늘어나는 국어

#198 화법 정답 및 해설

<보기> 다음은 체육대회에서 학생회장이 한 인사말이다. ㉠~㉤ 중 상황과 대상에 맞는 언어 예절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사랑하는 학우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학생회장 ○○○입니다. 여러분, ㉡저기 하늘을 좀 봐 주십시오. 오늘은 체육대회를 하기 정말 좋은 날씨지요? 이렇게 화창한 가을날, ㉢동문 선배님들과 학부모님들을 모시고 체육대회를 열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오늘 체육대회는 우리들의 건강을 증진하고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축제의 자리입니다. ㉣선수 여러분, 최선을 다해 ㉤멋진 경기를 펼쳐 주십시오.

[문제] 진위판단

1. ㉠에서는 화자가 자신을 '저'로 낮추어 공손함을 표현하고 있다. 정답 : (참 / 거짓)
2. ㉡에서는 '좀'을 사용하여 상대방이 그렇게 행동할 것을 공손하게 요청하고 있다. 정답 : (참 / 거짓)
3. ㉢에서는 '모시고'를 사용하여 발화 상황에 맞게 공손함을 나타내고 있다. 정답 : (참 / 거짓)
4. ㉣에서는 '선수 여러분'이라는 높임의 호칭을 사용하여 공손함을 드러내고 있다. 정답 : (참 / 거짓)
5. ㉤에서는 '주십시오'를 사용하여 명령문 대신 평서문으로 공손함을 실현하고 있다. 정답 : (참 / 거짓)

[현장독해]

- 상황에 맞는 언어예절. 문법 담화 상황 쪽이네. 숲(앞뒤 상황)과 나무(표현 그 자체의 의미 혹은 문법적 형식)로 풀기

- ㉠ 자기소개
- ㉡ -십시오 = 격식 아주높임 명령문(숲) + 뒤에 날씨 얘기 하려고 청중의 행동 유도.
- ㉢ 객체 높임 특수어휘 '모시고'
- ㉣ 2인칭 대명사 존칭형 여러분. 독립어구.
- ㉤ '하십시오' 격식 아주높임 명령형.

[정답 및 해설] 1.참, 2. 참, 3.참, 4.참, 5.거짓

1. '저' = 화자 자신을 낮추어 가리키는 일인칭 대명사 -> 공손함
2. - '좀' 뒤를 보면(숲) '-십시오 [표현(나무) 앞뒤 상황(숲)도 파악] = 격식체 아주높임 하십시오체 명령형 = '하십시오' 할 자리에 쓰여, 정중한 명령이나 권유를 나타내는 종결 어미. -> 안 그래도 공손한데 '좀' 붙여서 더 공손. - 그렇게 행동 = 하늘을 봐 주다 [비슷한 의미를 가진 표현 연결] + 좀 = 부탁이나 동의를 구할 때 말을 부드럽게 하기 위하여 삽입하는 말(나무)
3. 객체높임 특수어휘 '모시다' -> 높임으로 공손함 나타내는. 참
4. 여러분 = 2인칭 대명사. 듣는 이가 여러 사람일 때 그 사람들을 높여 이르는 이인칭 대명사. -> 공손함
5. '-십시오' = 격식체 아주높임 명령형 종결어미. = '하십시오' 할 자리에 쓰여, 정중한 명령이나 권유를 나타내는 종결 어미. 평서문이 아니라 명령문. 거짓.

★★★ 계속 '암기'해두면 출제자와 대화하면서 시간·멘탈·페이스 낭비하는 걸 줄일 수 있다 ★★★

상대높임의 종결어미 표 외우세요. '-십시오' 격식의 아주높임 하십시오체 명령형. '저' 1인칭 대명사 낮춤, '여러분' 2인칭 대명사 높임, '모시다' 객체높임 특수어휘 지금 외우세요. 상위권이 목표가 아니시라면 안 외우셔도 되는데요. '압도적 1%, 안정적 1등급, 불안한 1등급, 1~2등급 정도가 목표시라면 외우세요. 외워야, 출제자와 대화하는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에서 '저'가 1인칭 대명사 낮춤이라는 걸 외워뒀다면 '저' -> 낮춤 -> 공손함 맞네 하고 깔끔하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 외워두질 않아서 잘 모른다면 시험 순간에 '음... 학생회장의 인사말이니까... 동문 선배님들이랑 학부모님들이랑 선수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거니까... 낮춤 맞겠지...? 이정도면 공손...한 거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떻게 풀든 이 한 문제야 맞힐 수 있습니다만, 시간이 훨씬 더 걸립니다. 정답을 판단하기 위한 근거를 장황하게 생각하면서 마치 출제자에게 '이렇게 해서 맞다고 해도 되죠...? 응...? 맞잖아? 되잖아...?' 확인받으며 대화를 하고 있어야 한다면요. 어떻게든 시간을 아끼고 아껴서 고난도 킬러 문제에 힘을 쏟아야 하는데, 대화를 하고 있으니 남들보다 시간이 더 걸리고 그래서 시간 압박이 심하고 그래서 정답률이 떨어지고 한 지문을 날리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겁니다.

이 문제는 겉으로는 '청중 앞에서의 인사말'이라는 담화 상황에서 '공손함'을 담은 말하기 방법을 낸 '화법' 영역의 탈을 쓰고 있지만, 속 출제 의도는 뺏속까지 '문법', 그중에서도 '상대높임의 종결어미 표'를 외웠는지 묻는 시험이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암기해두셨으면 합니다.

		평서형	의문형	명령형	청유형	감탄형
격식체	하십시오체 (아주높임)	가십니다 합니다	가십니까? 합니까?	가십시오 하십시오	(가시지요) (하시지요)	-
	하오체 (예사높임)	가(시)오 하오	가(시)오? 하오?	가오/가구려 하오/하구려	갑시다 합시다	가는구려 하는구려
	하게체 (예사낮춤)	가네/감세 하네/함세	가는가?/가나? 하는가?/하나?	가게 하게	가세 하세	가는구먼 하는구먼
	해라체 (아주낮춤)	간다 한다	가냐?/가니? 하냐?/하니?	가거라/가렴/가려무나 해라	가자 하자	가는구나 하는구나
	해요체 (두루높임)	가요 해요/하지요	가요? 해요?/하지요?	가세요/가셔요 해요/하지요	가세요/가셔요 해요/하지요	가세요/가셔요/가는군요 해요/하지요
비격식체	해체(반말) (두루낮춤)	가/가지 해/하지	가?/가지? 해?/하지?	가/가지 해/하지	가/가지 해/하지	가/가지/가는군 해/하지

하루하루 남기다 보면 늘어나는 안국어

#199 멘토링

집중력 높이는 법

'잡생각'이 많이 난다고 해서,
'더 집중해야지' '잡생각 줄여야지' 속으로 다짐해도,
집중력이 높아지지는 않더라고요.

'~하자 ~하지 말자'를 '말'로만 떠올릴 게 아니라
지금 하는 일과 '관련된 생각과 행동'을 실제로 더 해야
집중력이 높아지더라고요.

'행동'이 아닌 '말'은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킵니다.
'코끼리를 생각 하지마'라는 얘기를 들은 순간
코끼리가 떠오를 수밖에 없잖아요.
심지어 똑똑하면 똑똑할수록
10년 전에 동물의 왕국에서 봤던
아기 코끼리 태어나는 장면까지 머리에 찰라락 떠올라 버려요.
'잡생각'의 존재에 신경쓰는 순간
거기에 더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인 것 같습니다.

지문 읽을 때 자주 듣던 음악이 귓가에 계속 들린다고 해서
'노래 멈춰!'라고 아무리 생각해봤자,
안타타타프레져프레져 안타타타프레져흐압
계속 앵앵거리잖아요.

저도 수험생 때 실제로 겪었던 문젠데,
'귀벌레 현상'이라고 한답니다.
중독성이나 임팩트가 강한 노래의 멜로디가 머릿속에서 계속 맴도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음악을 아예 끊었습니다.....
예..... 아예 안 들었어요.
수험생활 끝날 때까지
이어폰 끼고 음악 들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음악을 듣는다는 행위 자체를 스스로 한 적이 없어요.

노래 때문에 학원 모의고사 한번 망치니까,
스스로에게 너무 화나서
'노래 자체를 모르면 노래가 떠오를 일 자체가 없겠지.
생각이 안나기는커녕 아주 그냥 그 존재조차도 모르게 해주겠어.'
하고 끊어버렸습니다.

돌이켜 보면 사람이 이 정도로 공부·시험·성적에 미쳐야
서울대에 정시로 합격하는 걸 수도 있겠네요.
목표가 서울대고 의대시라면, 사소한 리스크조차도 없애기 위해,
집중에 방해되는 것들은 모조리 끊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사실 수험생활 중에 생기는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그냥 스터디카페에 박혀 공부나 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문제라서요.
본인의 시험·성적·공부에 도움이 안 된다는 판단이 드시면,
그걸 과감히 끊어버리고 멀리하는 게 단기적인 해결책입니다.
잔가지가 많아지면 거슬리니까 잔가지란 잔가지는 다 가지치기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잡생각도 귀벌레 현상도 줄어들고 집중은 잘 될 겁니다.

다만, 이건 너무 극단적이잖아요.
쳐내고 싶어도 쳐내지 못하는 가지도 분명 있구요.
힘든 수험생활의 유일한 도피처가 노래라면 들으셔야죠.

그러니 장기적으로 더 중요한 건,
시험 중에 지문 독해 관련 생각, 문제 풀이 관련 생각을
더 많이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시험 볼 때 생각을 많이 하는 것이,
그 자체로 시험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고, 집중력이 높은 거거든요.

내가 너무 생각을 안 하면서 푸니까,
해야 할 좋은 행동들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뇌와 몸이 여유가 넘치니까,
음악이 떠오르고 잡생각이 나는 걸 수 있습니다.

시험 순간에 집중력을 높이고 싶으시다면,
잡생각과 귀벌레 현상을 줄이고 싶으시다면,
시험 순간에 '생각'을 더 많이 하려고 해보세요.
그래도 계속 잡생각이 나신다면,
'더 집중해야지 집중집중집중!' 이렇게 막연히 말로 외치시기 보다는,
문제 풀이에 도움이 되는 행동과 생각을 더 많이 하려고 해보세요.

지문에 나온 표현들 중 비슷한 의미의 표현들 부지런히 연결하기.
한정 표현, 예외 표현, 극단적 표현, 애매하고 중립적인 표현들, 그 의도와 의미 생각해보기.
인과관계·비례관계·반비례관계 정리하기.
지문-〈보기〉-선택지의 연관성 더 많이 파악해보기.
이런 좋은 독해 습관을 발휘하면서 지문 읽으려고 하다보면
이것들 하기도 바빠서 다른 생각이 나기가 힘들어질 겁니다.

실제로 행동하고 생각하는 양을 늘리고 속도를 높이는 게,
'시험에 모오올입해야지 집중하려고 노오오력해야지'라고 하시는
어른들의 추상적 조언의 실질적 액션 플랜입니다.

집중력이 낮은 게 문제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해야 할 생각을 안하면서 여유롭게 문제를 푸는 건 아닌지,
반성적으로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집중하자는 말이 아니라
행동을 많이 하고 생각을 많이 하자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공부합시다
파이팅!

#200 문법

[문제] 진위판단

1. '너는 일밖에 모르니?'에서 '밖에'는 접사이므로 붙여 쓴다.
정답 : (참 / 거짓)
2. '연필 두 자루가 있습니다.'에서 '자루'는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이므로 띄어 쓰지 않는다.
정답 : (참 / 거짓)
3. '나는 그저 웃고만 있었다.'에서 '있었다'는 보조용언이므로 띄어 쓴다.
정답 : (참 / 거짓)
4. '너무 아는 척을 하지 말아야 해.'에서 '척'은 관형사의 수식을 받는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 쓴다.
정답 : (참 / 거짓)
5. '청군 대 백군으로 나눠 경기를 했다.'에서 '대'는 두 말을 이어 줄 때에 쓰이는 말은 붙여 씀도 허용한다.
정답 : (참 / 거짓)

※ 2016년 고1 9월 13번 문법 지문 참조

하루하루 남기다 보면 늘어나는 국어

#200 문법 정답 및 해설

[문제] 진위판단

1. '너는 일밖에 모르니?'에서 '밖에'는 접사이므로 붙여 쓴다.
정답 : (참 / 거짓)
2. '연필 두 자루가 있습니다.'에서 '자루'는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이므로 띄어 쓰지 않는다.
정답 : (참 / 거짓)
3. '나는 그저 웃고만 있었다.'에서 '있었다'는 보조 용언이므로 띄어 쓴다.
정답 : (참 / 거짓)
4. '너무 아는 척을 하지 말아야 해.'에서 '척'은 관형사의 수식을 받는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 쓴다.
정답 : (참 / 거짓)
5. '청군 대 백군으로 나눠 경기를 했다.'에서 '대'는 두 말을 이어 줄 때에 쓰이는 말은 붙여 씀도 허용한다.
정답 : (참 / 거짓)

[현장독해] 1.거짓, 2.거짓, 3.거짓, 4.거짓, 5.거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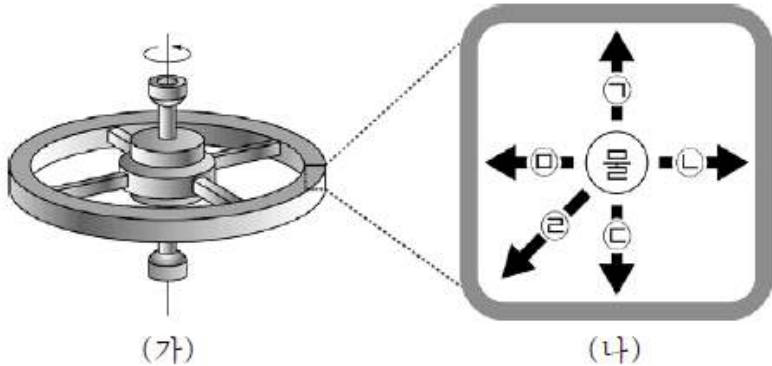
1. 접사가 아니라 '(보)조사'입니다. '밖에'는 (주로 체언이나 명사형 어미 뒤에 붙어) '그것 말고는', '그것 이외에는', '기꺼이 받아들이는', '피할 수 없는'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 주로 뒤에 부정을 나타내는 말이 따른다. 예문) 공부밖에 모르는 학생.
+ 다 맞는 표현들 사이에 한 글자만 썩 바꿔서 틀리게 하는 출제자의 함정 주의 [함정 주의]
2. 띄어 쓰지 않는 게 아니라 띄어 씁니다. '자루'는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 기름하게 생긴 필기도구나 연장, 무기 따위를 세는 단위성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 씁니다.
+ 문제를 차분하게 끝까지 읽지 않고 성급하게 판단하는 학생들을 벌주기 위해 출제자가 마지막만 썩 바꿔 놓았습니다. 마지막까지 함정 주의 [함정 주의]
3. '있었다'가 보조 용언이라서 띄어 쓰는 것이 아니라, 본용언 '웃고'에 조사 '만'이 붙었으므로 그 뒤에 오는 보조 용언 '있었다'는 띄어 쓰는 겁니다. '있었다'는 보조 용언이 맞고, '웃고만 있었다'를 띄어 쓰는 것도 맞습니다. 다 맞는 진술처럼 보이지만, '이므로' 즉 인과관계의 원인이 틀렸습니다.
+ 앞 진술, 뒤 진술 자체가 맞는지 뿐만 아니라 앞 진술과 뒤 진술 간의 관계도 출제요소라는 함정 주의 [함정 주의]
4. 관형사가 아니라 동사의 관형사형 혹은 관형어의 수식을 받는다고 표현해야 맞는 진술입니다. '척'은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 쓰는 것이 맞습니다만, 동사 '알다'에 관형사형 전성어미 '(으)ㄴ'이 붙어서 된 동사의 관형사형 '아는'이 문장에서 '관형어' 역할을 하여 의존 명사 '척' 앞에서 '척'을 꾸며주는 겁니다.
+ 품사 '관형사'와 문장성분 '관형어' 둘을 엄밀하게 구분할 줄 아셔야 합니다. 품사와 문장성분을 섞어서 쓰는 출제자의 함정 주의 [함정 주의]
5. 붙여 씀을 허용하지 않고 띄어 씁니다. '대'는 사물과 사물의 대비나 대립을 나타내는 말로, 말을 이어 줄 때에 쓰이는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 씁니다.
+ '붙여 씀도 허용한다'는 겸손한 표현이 나왔다고 해서 대충 다 맞겠거니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극단적·절대적·오만방자한 표현은 예외 한 가지 정도는 생각해보고, 겸손한 표현 역시 가능한 경우 한 가지 정도, 단 한가지라도 맞을 가능성이 있는지 정도는 생각해보셔야 합니다. 겸손한 표현으로 방심시키는 함정 주의 [함정 주의]

★★★ 개념이 부족해서 언어와 매체 영역을 틀리는 게 아닐 수 있다 ★★★

언어와 매체 인강 언제까지 몇 개나 더 들으시려구요. 수능 3달 남았는데 또 들어요? '전형태 선생님 언매 올인원', '유대종 선생님 언매 총론' '패턴국어 고등문법 기본편 심화편' 등 훌륭한 문법 개념서들 하나 정도 푸셨으면요. 새로운 인강이나 새로운 개념서를 또 사서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같은 개념서를 2~3번 더 반복하고, 기출 풀어보면서 디테일한 개념 다지시구요. 이렇게 언어와 매체 영역에 쓰이는 '개념어'에 대한 이해도와 친숙도가 높아진 후부터는, 언매 영역은 더 이상 개념싸움이 아닙니다.

음운·단어·문장·담화를 막론하고 주어진 표현을 쪼개서 그 원형을 파악해내는 '디테일 파악 경쟁', 표현(나무)만 보지 않고 맥락(숲)도 볼 줄 아는 '상황 파악 경쟁', 출제자의 함정에 수도 없이 많이 넘어보고 틀러가면서 출제 노하우를 체득해 함정이 바로 보여서 더는 넘어가지 않는 '함정 파악 경쟁'. 이 3가지를 잘 할 줄 아셔야 합니다. 이감·한수·바탕·상상 등 언매 실전모의고사를 수십 개씩 넣어둔 N제 사셔서 풀고 오답하면서 위 3가지를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오답'을 하실 때, 단순히 '나는 개념이 부족해'하면서 개념 점검하고 해설 읽어보고 넘어가실 게 아니라, 출제 노하우를 파악하고 분석하시기 바랍니다. 이 단어나 저 문장을 더 디테일하게 쪼개봤어야 했다, 표현 주위의 맥락도 살폈어야 했다, 진술 간 관계를 틀리게 하는 함정을 조심했어야 했다, 문제를 끝까지 봤어야 했다, 품사랑 문장성분을 엄밀히 구분했어야 했다 등 디테일·상황·함정 위주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출제자의 잔인한 함정에 수도 없이 두들겨 맞아 가면서 강하게 커야 실전에서 실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보기> 27번



(가)는 중력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회전하는 우주정거장이고, (나)는 (가)의 외곽에 있는 구조물의 종단면이다.

[지문]

인간의 몸은 약 70%의 물로 구성되며, 물은 영양소와 산소를 몸 전체에 운반하고 노폐물을 소변, 땀 등을 통해 몸 밖으로 내보낸다. 이러한 물이 절대적으로 한정된 달 기지나 우주정거장에서는 버려진 물을 여과하여 사용해야 한다. 물을 지구에서 우주로 실어 나르기에는 너무 큰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중력이 작용하는 지구에서는 폐수가 필터를 통해 아래로 이동하며 여과된다. 달 기지에서도 물이 아래로 흘러 필터를 통과하지만, 중력이 낮아 그 속도가 매우 느리다. 그렇다면 중력이 거의 없는 우주정거장에서는 어떻게 폐수를 여과할까?

가장 좋은 방법은 중력처럼 작용하는 힘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뉴턴의 운동 법칙에 의하면, 외부의 힘이 작용하지 않을 때 운동하는 물체는 등속직선운동을 한다. 물체의 운동 방향을 바꾸려면 외부의 힘이 필요하다. 그리고 운동 방향에 수직으로 일정한 크기의 외부 힘이 작용하면 물체는 등속원운동을 하게 된다. 이렇게 원의 중심 방향으로 작용하여 원운동을 유지하는 힘이 구심력이다. 구심력과 반대 방향인 원심력은 원운동을 하는 물체가 중심 밖으로 나가려는 가상의 힘으로, 어떤 힘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물체가 등속직선운동하려는 관성에 의한 효과이다. 그리고 사람이 회전하는 물체 안에 있다면 원심력을 중력처럼 인식하게 된다.

중력이 거의 없는 우주 공간에서는 이 원심력을 이용해 물을 여과할 수 있다. 회전하는 우주정거장의 외곽에 거주하는 우주인은 등속직선운동을 하려는 관성을 가지고 있다. 회전하는 우주정거장은 우주인을 나가지 못하게 잡아두고, 우주인은 원심력을 정거장의 바깥에서 자신을 끌어당기는 중력처럼 인식하게 된다. 폐수에도 원심력이 작용할 것이고, 이 힘을 이용해 지구에서처럼 폐수를 여과할 수 있다. 즉 수만 명이 살아갈 거대한 우주 거주 시설은 다량의 폐수를 정화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회전 운동을 통해 원심력을 만들어 내야 한다.

이렇듯 우리가 알고 있는 물체의 운동과 힘, 운동 방향 등의 원리를 이해하면, 인간이 생존하기 힘든 우주 공간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문제는 거대한 우주정거장을 어떻게 만들고, 회전시킬 것이냐 하는 것이다. 우리의 미래 세대가 영화 속의 우주정거장을 건설할 날을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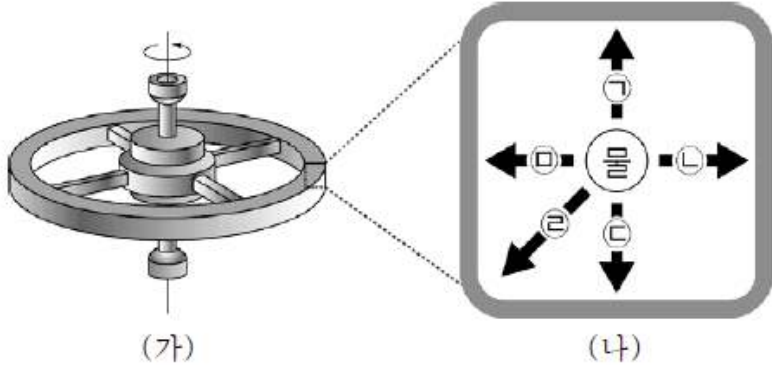
[문제] <보기> 27번의 (가)는 중력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회전하는 우주정거장이고, (나)는 (가)의 외곽에 있는 구조물의 종단면이다. 윗글의 내용으로 볼 때, ㉠에서 ㉣ 중 <보기>의 '물'의 이동 방향으로 적절한 것은?

정답 : ()

하루하루 남기다 보면 늘어나는 국어

#201 정답 및 해설

<보기> 27번



(가)는 중력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회전하는 우주정거장이고, (나)는 (가)의 외곽에 있는 구조물의 종단면이다

[지문]

I 인간의 몸은 약 70%의 물로 구성되며, 물은 영양소와 산소를 몸 전체에 운반하고 노폐물을 소변, 땀 등을 통해 몸 밖으로 내보낸다. 이러한 II 물이 절대적으로 한정된 달 기지나 우주정거장에서는 버려진 물을 여과하여 사용해야 한다. 물을 지구에서 우주로 실어 나르기에는 너무 큰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III 일반적으로 중력이 작용하는 지구에서는 폐수가 필터를 통해 아래로 이동하며 여과된다. IV 달 기지에서도 물이 아래로 흘러 필터를 통과하지만, 중력이 낮아 그 속도가 매우 느리다. 그렇다면 중력이 거의 없는 우주정거장에서는 어떻게 폐수를 여과할까?

VI 가장 좋은 방법은 중력처럼 작용하는 힘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뉴턴의 운동 법칙에 의하면, VII 외부의 힘이 작용하지 않을 때 운동하는 물체는 등속직선운동을 한다. 물체의 운동 방향을 바꾸려면 외부의 힘이 필요하다. 그리고 운동 방향에 수직으로 일정한 크기의 외부 힘이 작용하면 물체는 등속원운동을 하게 된다. 이렇게 VIII 원의 중심 방향으로 작용하여 원운동을 유지하는 힘이 구심력이다. IX 구심력과 반대 방향인 원심력은 원운동을 하는 물체가 중심 밖으로 나가려는 가상의 힘으로, 어떤 힘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물체가 등속직선운동하려는 관성에 의한 효과이다. 그리고 X 사람이 회전하는 물체 안에 있다면 원심력을 중력처럼 인식하게 된다.

XI 중력이 거의 없는 우주 공간에서는 이 원심력을 이용해 물을 여과할 수 있다. 회전하는 우주정거장의 외곽에 거주하는 우주인은 등속직선운동을 하려는 관성을 가지고 있다. XII 회전하는 우주정거장은 우주인을 나가지 못하게 잡아두고, 우주인은 원심력을 정거장의 바깥에서 자신을 끌어당기는 중력처럼 인식하게 된다. XIII 폐수에도 원심력이 작용할 것이고, 이 힘을 이용해 지구에서 처럼 폐수를 여과할 수 있다. 즉 수만 명이 살아갈 거대한 우주 거주 시설은 XIV 다량의 폐수를 정화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회전 운동을 통해 원심력을 만들어 내야 한다.

[현장독해]

- (가) 우주정거장. 중력 없는.
- (나)는 (가)에 보이는 저 원형 고리 자르면 나오는 파이프같은 거라고? 종단면이면... 세로로 잘라 생긴 면 [기초 어휘, 종단면]
- 여튼 지문에 우주정거장, 중력, 물 이런거 나오면 <보기> 그림 같이 보자. [<보기>에서 지문 독해 시 주목할 부분 파악] [그림-지문 연결해 읽기]

I. 물 중요

II. 우주정거장 나왔고. 물 아껴 쓰고 다시 써야.

- 이유는 운반 비용이 커서.

III. 중력은 아래로 작용하니까 아래로 이동하겠지.

[표현의 전제, 이유 추론]

IV. 달에도 중력 있으니까 아래로 가는데, 중력이 지구보다 낮다.

V. 27번 문제 <그림>에 대한 질문이랑 같네. [문제-지문 연결]

VI. 가장 좋은 방법 : 지구랑 달과 똑같이 중력 만들어

[최상급 표현 주의]

VII. 외부 힘 X -> 물체는 등속직선운동(=같은 속도로 직진 앞으로)

[기초 상식, 기초 어휘 : 등속직선운동]

vs 외부 힘 0 -> 물체의 운동 방향 바뀜

[인과관계 정리]

vs 수직의 외부 힘 -> 등속원운동

[차이점 정리]

VIII. 구심력 = 수직으로 작용하는 일정한 크기의 외부 힘

IX. vs 원심력 = 구심력 반대 방향 = 가상의 힘 = 외부 힘 X = 관성에 의한 효과

[차이점 정리]

X. 사람이 회전하는 물체 안에 있다면 원심력을 중력처럼 인식..... 중력처럼 다른 방향으로 끌어당기니까 그러려나? 여튼 회전하는 물체 안에서는 원심력 = 중력

[한 번에 이해가 안되는 표현의 의미 생각해보고 넘어가기]

XI. '원심력' = 밖으로 나가려는 힘으로 여과.

- 등속직선운동 <- 중력이라는 외부 힘이 없으니까.

XII. 우주정거장은 회전해서 우주인은 원심력을 중력처럼 느낌 = 2 문단 마지막 회전하는 물체(=우주정거장) 안의 사람(=우주인)

[앞 문단 표현과 뒤 문단 표현 연결해 읽기]

XIII. 폐수 = 사람 = 회전하는 물체 안의 존재 = 원심력 작용

XIV. 그니까 <보기> 그림에 우주정거장이 회전하면서 물에 원심력 작용해서, 폐수고 사람이고 다 바깥... 그니까 ㉠ 쪽으로 여과하게 한다? [나만의 편한 표현으로 핵심 정리]

이렇듯 우리가 알고 있는 물체의 운동과 힘, 운동 방향 등의 원리를 이해하면, 인간이 생존하기 힘든 우주 공간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문제는 거대한 우주정거장을 어떻게 만들고, 회전시킬 것이냐 하는 것이다. 우리의 미래 세대가 영화 속의 우주정거장을 건설할 날을 기대한다.

[문제] <보기> 27번의 (가)는 중력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회전하는 우주정거장이고, (나)는 (가)의 외곽에 있는 구조물의 종단면이다. 뒷글의 내용으로 볼 때, ㉠에서 ㉣ 중 <보기>의 '물'의 이동 방향으로 적절한 것은? 정답 : ()

- 네

[정답 및 해설] ㉠

- 2문단에 사람이 회전하는 물체 안에 있다면 원심력을 중력처럼 인식하게 된다고 하고, 3문단에 중력이 거의 없는 우주 공간에서는 이 원심력을 이용해 물을 여과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

+ 종단면 = 물체를 세로로 잘라 생긴 면.

[기초 어휘]

하루하루 남기다 보면 늘어나는 국어
#202 문학

<보기> 35번

작가의 삶에 대한 이해는 작품 감상의 폭을 넓혀준다. (가)는 승려인 작가가 죽은 누이를 추모하기 위한 작품이고, (나)는 고려 왕조가 몰락하자 모친 봉양을 핑계로 고향에 은거한 작가가 고려의 도움지였던 개성을 찾아 느끼는 감회를 읊고 있는 작품이다.

[지문]

(가)

생사(生死) 길은
예 있으매 머뭇거리고,
나는 간다는 말도
못다 이르고 어찌 갑니까.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이에 저에 떨어질 잎처럼,
한 가지에 나고
가는 곳 모르온저.
아아, ㉡미타찰(彌陀刹)에서 만날 나
도(道) 닦아 기다리겠노라.

- 월명사, 「제망매가」 -

(나)

㉢오백 년 도움지를 필마(匹馬)로 도라드니,
㉣산천은 의구(依舊)하되 인걸(人傑)은 간 디 업다.
어즈버, ㉤태평연월(太平烟月)이 꿈이런가 하노라.

- 길재 -

[문제] 진위판단

1. (가)는 4음보의 율격을 가진다. 정답 : (참 / 거짓)
2. (나)는 시적 화자가 작품의 표면에 드러나 있다. 정답 : (참 / 거짓)
3. (가)와 달리 (나)는 3단 구성의 짜임을 취한다. 정답 : (참 / 거짓)
4. (나)와 달리 (가)는 이야기 전달에 목적이 있다. 정답 : (참 / 거짓)
5. (가), (나)는 감탄사를 통해 고조된 감정을 드러낸다. 정답 : (참 / 거짓)
6. ㉠에서 작가는 어느 가을의 때 이른 바람이라는 인식을 통해 예기치 못한 누이의 죽음에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군. 정답 : (참 / 거짓)
7. ㉡에서 작가는 극락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도를 닦으며 기다리겠다는 다짐을 통해 슬픔을 종교의 힘으로 극복하려 하는 군. 정답 : (참 / 거짓)
8. ㉢에서 작가는 오백 년 도움지라는 시간과 장소의 제시를 통해 단절된 고려 왕조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하고 있군. 정답 : (참 / 거짓)
9. ㉣에서 작가는 자연은 변함없는데 고려의 옛 충신들은 찾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인생무상을 느끼고 있군. 정답 : (참 / 거짓)
10. ㉤에서 작가는 태평한 세상이 꿈속에만 있겠느냐는 각성을 통해 고려 왕조를 다시 찾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군. 정답 : (참 / 거짓)

※ 2015년 고1 9모 34 ~ 35번 문학 문제 참조

- 스스로 정답을 정하고, 그 근거도 정리해본 후에, '정답 및 해설'을 보셔야 합니다 -

하루하루 남기다 보면 늘어가는 국어

#202 문학 정답 및 해설

<보기> 35번

작가의 삶에 대한 이해는 작품 감상의 폭을 넓혀준다. (가)는 승려인 작가가 죽은 누이를 추모하기 위한 작품이고, (나)는 고려 왕조가 몰락하자 모친 봉양을 핑계로 고향에 은거한 작가가 고려의 도움지였던 개성을 찾아 느끼는 감회를 읊고 있는 작품이다.

[지문]

(가)

생사(生死) 길은
 예 있으매 머뭇거리고,
 나는 간다는 말도
 못다 이르고 어찌 갑니까.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이에 저에 떨어질 잎처럼,
 한 가지에 나고
 가는 곳 모르온저.
 아아, ㉡미타찰(彌陀刹)에서 만날 나
 도(道) 닦아 기다리겠노라.

- 월명사, 「제망매가」 -

(나)

㉢오백 년 도움지를 필마(匹馬)로 도라드니,
 ㉣산천은 의구(依舊)하되 인걸(人傑)은 간 디 없다.
 어즈버, ㉤태평연월(太平烟月)이 꿈이런가 하노라.

- 길재 -

[현장독해]

- 작가. 표현주의. 외재적 관점.
- (가) 작가가 승려. 죽은 누이 추모.
- (나) 작가가 고려 왕조 망하자 엄마 핑계로 고향에서 살다가 다시 고려 왕조 수도 찾아와서 느끼는 감정.

- 죽고 사는 길은
- 여기에 있는데도 머뭇거리고
- 나는 간다는 말 한마디도
- 제대로 말하지 못하고 가버리면 어떻게 하니 (누이야)
- ㉠ 떨어져도 늦게 떨어지는 게 좋은데 가을 '이른' 바람에 떨어지는 걸 보니 나보다 일찍 죽은 누이 얘기하는거네
- 한 가지 = 한 부모 밑에서 같이 나고 자랐는데
- 누이가 일찍 떨어져 버려서 간 곳을 모르겠다
- ㅍㅍ, ㉡미타찰 = 불교에서 극락세계였지. <보기> 승려로서 ㉢도 닦으며 극락세계에서 누이 만나는 걸 기다리겠다.

- ㉢오백 년 도움지 = <보기> 고려 수도 개성. 말 타고 돌아들어옴
- ㉣자연은 여전한데 뛰어난 인재들은 없다. 자연과 인간사 대조
- ㉤아아, 태평성대를 누리던 지난날은 꿈과 같다 = 무상감

★★★ 설마 이렇게 내겠냐만 그래도 혹시나 ★★★

과거에는 이렇게 '모의고사'에도 학생들이 중고등학교 내신에서 공부했을만한 이른바 '내신형 문제'가 출제 되기도 했습니다. (가) '제망매가'에 음보울 없거나 적어도 4음보는 아니라는 점, (가) 제망매가도 '3단 구성'이라는 점, (가) ⓒ미타찰이 불교에서의 극락세계라는 점, 내신 공부하면서 한번쯤 봤기에 사전에 알고 있지 못했다면 풀기 힘들었을 겁니다. 내신 때 '제망매가' 공부를 열심히 한 친구나 어렵듯이 기억 날 내용들이고, 모의고사 실전에서 현장독해로 추론하기는 어려웠을 내용입니다. 그렇기에 2015년의 1학년 모의고사에서 나 이런 식으로 출제됐었구요. 학년이 올라갈수록 2023년 현재에 가까워질수록 내신 공부를 전제로 한 출제보다는 <보기>와 문학 개념어 바탕의 현장독해 위주 출제가 이루어지고 있죠. 여기 문제들 틀리셨다고, 해설에 내신 얘기 나왔다고 너무 기분나빠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다만, 현재의 교권 강화 움직임과 교과 과정 내에서의 출제 원칙이 가장 극단적으로 구현된 형태는 바로, '수능에 학교 국어 수업 및 내신에서 다루는 내용을 출제'하는 것이거든요. 내신 때 공부 안했으면 못 풀 문제를 이렇게 내놓고 수능에 내면, 다들 학교 수업 열심히 듣고, 교과서 작품들 열심히 외우게 될 테니까요. 물론 학교마다 내신 평가 방식이 다르고, 교과서마다 수록작품이 다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설마 이렇게 내겠냐, 해서는 안 될 짓이다 싶겠지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요즘 세상에 또 모르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과가 문과 교차지원 이렇게 많이 할 줄 알았나요? 서울대 정시에 내신반영 할 줄 알았나요? 과탐Ⅱ과목 유불리 이렇게 심할 줄 알았나요? 세상일 모르는 거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출제가 일어날 수도 있을 가능성과 가능세계의 존재를 인지는 해둬시다.

#203 문법

[보기]

높임 표현에는 말하는 이가 듣는 이에 대하여 높이거나 낮추어 말하는 상대 높임, 서술의 주체를 높이는 주체 높임, 목적어나 부사어가 나타내는 대상, 즉 서술의 객체를 높이는 객체 높임이 있다.

[지문]

선생님: 지은아, 방학은 잘 보냈니?

지은: 네. 제 용돈으로 할머니께 드릴 선물을 사서 할머니 댁에 다녀왔어요.

선생님: 기특하다. 할머니를 뵈고 왔구나. 가서 무엇을 했니?

지은: 아버지께서 할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가신 사이에 저는 큰 아버지께 인사를 드리고 왔어요.

선생님: 저런, 할머니께서 편찮으셨나 보다.

[문제] 지문에 나타난 높임 표현을 모두 찾아 표시해보세요.

※ 2017년 고1 3월 14번 문법 지문 참조

#203 정답 및 해설

[보기]

높임 표현에는 말하는 이가 듣는 이에 대하여 높이거나 낮추어 말하는 상대 높임, 서술의 주체를 높이는 주체 높임, 목적어나 부사어가 나타내는 대상, 즉 서술의 객체를 높이는 객체 높임이 있다.

[지문]

선생님: 지은아, 방학은 잘 보냈니?

지은: 네. 제 용돈으로 할머니께 드릴 선물을 사서 할머니 댁에 다녀왔어요.

선생님: 기특하다. 할머니를 뵙고 왔구나. 가서 무엇을 했니?

지은: 아버지께서 할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가신 사이에 저는 큰 아버지께 인사를 드리고 왔어요.

선생님: 저런, 할머니께서 편찮으셨나 보다.

[정답 및 해설]

정답의 확신성이 높은 높임 표현

- 할머니께 : 부사격조사 '에게'의 높임말. 객체높임 조사 '께'
- 드릴 : 객체높임의 특수어휘
- 다녀왔어요 : 비격식 두루높임 해요체 평서형 종결어미 '-어요'. 해요할 자리에 쓰여, 설명·의문·명령·청유의 뜻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 어미 '-어'와 보조사 '요'가 결합한 말이다.
- 뵙고 : 객체높임의 특수어휘
- 아버지께서 : 주격조사 '가'의 높임말. 주체높임 조사 '께서'
- 모시고 : 객체높임의 특수어휘
- 가신 : 주체높임의 선어말어미 '시'
- 큰아버지께 : 부사격조사 '에게'의 높임말. 객체높임 조사 '께'
- 드리고 : 객체높임의 특수어휘
- 왔어요 : 비격식 두루높임 해요체 평서형 종결어미 '-어요'. 해요할 자리에 쓰여, 설명·의문·명령·청유의 뜻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 어미 '-어'와 보조사 '요'가 결합한 말이다.
- 할머니께서 : 주격조사 '가'의 높임말. 주체높임 조사 '께서'
- 편찮으셨나 : 쪼개서 원형파악해보면, 편찮-으'시'-었-나. 주체 높임 선어말어미 '-(으)시'
- + 편찮다 : '편하지 않다'가 줄어들어 형용사 단일어로 굳어진 '편찮다'는 "((흔히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으시-'와 함께 쓰여)) 병을 앓는 상태에 있다."라고 풀이하고 있을 뿐, 높임 표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편찮다'를 높임의 특수 어휘라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정답의 확신성이 낮은 높임 표현

- 네 : 윗사람의 부름에 대답하거나 묻는 말에 긍정하여 대답할 때 쓰는 말. 상대높임.
- 제, 저 : '저'의. 말하는 이가 윗사람이나 그다지 가깝지 아니한 사람을 상대하여 자기를 낮추어 가리키는 일인칭 대명사. 주격 조사 '가'나 보격 조사 '가'가 붙으면 '제'가 된다. 상대높임.
- 댁 : 남의 집이나 가정을 높여 이르는 말.
- + 굳이 말하면 '객체높임의 간접높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높이고자하는 객체 할머니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할머니 소유의 '집'을 높인 것이니 간접높임이고, 여기서 할머니 집은 서술어 '다녀왔어요'의 장소인 '객체'를 의미하는 것이니까요. 다만 간접 높임은 현행 고등 문법에서는 주체 높임에 관해서만 쓰고 있어서 '객체높임의 간접높임'은 아니라고 본답니다.

#204 상식

[이자율과 할인율]

정부가 기업이 어떤 사업에 투자를 할지 말지 결정하기 위해서, 현재에 투입될 비용과 미래에 발생할 이익을 비교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진단합니다. '미래' 이익과 '현재' 비용이라는 다른 시점의 가치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시점'을 맞춰야 하는데요. 미래에 발생할 이익의 가치를 현재로 환산하면 얼마일지 계산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환산을 가능하게 해주는 개념이 바로 '할인율'이구요. 할인율은 이자율과 유사하지만 역으로 적용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선 '이자율'은 저축과 대출을 통한 자본의 공급과 수요에 의해 결정되는 값인데요. 사람들이 은행에 자신의 돈을 저축해 투자에 필요한 자본을 공급해주고, 은행은 기업에 돈을 대출해주면서 기업의 자본 수요를 충족해줍니다.

이때 저축을 하는 사람들은 저축하는 원금을 시장 이자율에 의해 미래에 더 큰 금액으로 볼릴 수 있습니다. 수식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text{현재 원금} + \text{이자(원금*이자율)} = \text{미래 더 큰 금액}$$

대출을 받는 기업은 시장 이자율만큼 대출금에 대한 비용인 이자를 지불합니다.

$$\text{현재 대출금} + \text{이자(대출금*이자율)} = \text{총 대출금}$$

현재의 이자율이 연 10%라면 올해 10억 원은 내년에 (1+0.1)을 곱한 11억 원이 됩니다.

$$\text{올해 10억} \times 1.1(\text{이자율}) = \text{내년 11억}$$

이때의 시장 이자율은 미래의 금액을 현재 가치로 환산할 때의 할인율로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할인율이 연 10%라면 내년의 11억 원의 현재 가치는 (1+0.1)로 나눈 10억 원이 됩니다.

$$\text{내년 11억} \div 1.1(\text{할인율}) = \text{올해 10억}$$

할인율은 앞으로의 물가 상승 가능성, 미래의 불확실성 등을 포함하는 할인 요인을 고려하여 정해집니다. 할인율이 커질수록 미래 가치는 현재의 관점에서 보면 저평가됩니다. 할인율이 10%일 때 내년 11억의 현재 가치는 올해 10억입니다만, 할인율이 450% 즉, 5.5(100%+450%)라면 내년 11억의 현재 가치는 올해 2억입니다. '내년 11억'이라는 똑같은 미래 가치를 가지고 있음에도, 이를 현재 가치로 환산했을 때 올해 10억과 올해 2억 중 더 큰 가치를 가진 건 올해 10억이죠.

[사회적 할인율]

이중 '정부'가 진행하는 '공공'사업의 타당성을 진단할 때에는 대개 '미래 세대'까지 고려하는 '공적' 차원의 할인율을 적용하는데, 이를 '사회적' 할인율이라고 합니다.

사회적 할인율은 사회 구성원이 느끼는 할인의 요인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사회 구성원들은 가난한 자부터 부유한 자, 노인부터 아이까지 다양하여, 구성원들 간에 중요시하는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사회 구성원이 느끼는 할인의 요인을 정확하게 파악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장 이자율을 사회적 할인율로 적용하자는 주장이 제기되는데요. 시장 이자율은 미래의 금액을 현재 가치로 환산할 때의 할인율로도 적용할 수 있으므로, 이를 사회적 할인율로 간주하자는 거죠.

한편 민간 자본의 수익률을 사회적 할인율로 적용하자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사회 전체적인 차원에서 보자면, 공공사업에 투입된 자본은, 민간 부문에서 이용될 수도 있었을 자본을 희생하여 투자한 것이기 때문에, 공공사업에 대해서도 민간 부문에서만 높은 수익률을 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재화를 선택했을 때, 그로 인해 포기한 것들 중 가장 큰 것의 가치인 기회비용의 측면에서 보자면, 공공사업 투자는 민간부문 투자를 포기하고 진행한 것인 만큼 민간부문에 투자했을 때만큼의 수익률을 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시장 이자율이나 민간 자본의 수익률을 사회적 할인율로 적용하자는 주장은 수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우선 공공부문의 수익률이 민간 부문만큼 높으면 민간 투자가 가능한 부문에 굳이 정부가 투자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거죠. 다른 민간 부문만큼 돈이 잘 벌리는 사업은 굳이 정부가 공공사업으로 하지 않아도, 민간 부문에서 알아서 투자하여 수익을 내려고 할 거라는 겁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사회적 할인율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은 일반적으로 그 이익이 장기간에 걸쳐 서서히 나타나는 반면, 시장 이자율이나 민간자본의 수익률은, 비교적 '단기적'으로 실현되는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자본 시장에서 결정된다는 점입니다. 장기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공공사업에 단기적인 성과를 내라고 요구하는 것은 과하고 비현실적이라는 거죠. 공공사업은 미래 세대의 이익까지 배려하는 지속 가능한 발전의 이념을 반영합니다. 만일 사회적 할인율이 시장 이자율이나 민간 자본의 수익률처럼 높게 적용된다면, 공공사업이 미래 세대의 이익보다는 단기적인 성과 확보에 치중하게 될 것입니다. 사회적 할인율은 미래 세대까지 배려하는 공익적 차원에서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단기적인 수익률에 치중하여 미래 세대의 이익이 상대적으로 저평가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문]

나비가 되어 자신조차 잊을 만큼 즐겁게 날아다니는 꿈을 꾸다 깨어난 장자(莊子)는 자신이 나비가 되는 꿈을 꾸는 것인지 나비가 자신이 된 꿈을 꾸고 있는 것인지 의아해한다. 이 호접몽 이야기는 나를 잊은 상태를 묘사함으로써 ‘물아일체(物我一體)’ 사상을 그 결론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이야기 외에도 장자에는 ‘나를 잊는다’는 구절이 나오는 일화 두 편이 있다.

하나는 장자가 타인의 정원에 넘어 들어갔다는 것도 모른 채, 기이한 새의 뒤를 ㉠훔친 듯 쫓는 이야기이다. 여기서 장자는 바깥 사물에 마음을 통째로 빼앗겨 자신조차 잊어버리는 고도의 몰입을 대상에 사로잡혀 끌려 다니는 꼴에 불과한 것으로 보았다. 이때 마음은 자신이 원하는 하나의 대상에만 과도하게 집착하여 그 어떤 것도 돌아보지 못한다. 이런 마음은 맹목적 욕망일 뿐이어서 감각적 체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신에게 이롭다거나 좋다고 생각하는 것만을 과장하거나 왜곡해서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배격하게 된다.

다른 하나는 “스승님의 마음은 불 꺼진 재와 같습니다.”라는 말을 제자에게 들은 남곽자기(南郭子綦)라는 사람이 “나는 나 자신을 잊었다.”라고 대답한 이야기이다. 여기서 ‘나 자신’은 마음을 가리키며, 마음을 잊었다는 것은 불꽃처럼 마음속에 치솟던 분별 작용이 사라졌음을 뜻한다. 달리 말해, 이는 텅 빈 마음이 되었다는 말이며 흔히 명경지수(明鏡止水)의 비유로 표현되는 정적(靜寂)의 상태를 뜻한다. 이런 고요한 마음을 유지해야 천지만물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렇다면 첫째 이야기에서는 온전하게 회복해야 할 ‘참된 자아’를 잊은 것이고 둘째 이야기에서는 세상을 기웃거리면서 시비를 따지려 드는 ‘편협한 자아’를 잊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참된 자아를 잊은 채 대상에 탐닉하는 식으로 자아와 세계가 관계를 맺게 되면 그 대상에 꼼짝없이 종속되어 괴로움이 증폭된다고 장자는 생각한다. 한편 편협한 자아를 잊었다는 것은 편견과 아집의 상태에서 ㉢벗어나 세계와 자유롭게 소통하는 합일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장자는 이 경지를 만물의 상호 의존성으로 설명한다. 자아와 타자는 서로의 존재를 온전히 전제할 때 자신들의 존재가 ㉣드러날 수 있다고 그는 말한다. 예컨대, 내가 편견 없는 눈의 감각으로 꽃을 응시하면 그 꽃으로 인해 나의 존재가 성립되고 나로 인해 그 꽃 또한 존재의 의미를 획득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관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타자를 위해 마음의 공간을 비워 두는 수행이 필요하다. 장자는 이런 수행을 통해서 개체로서의 자아를 ㉤뛰어넘어 세계의 모든 존재와 일체를 이루는 자아에 도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장자가 나비가 되어 자신조차 잊은 채 자유롭게 날 수 있었던 것은 나비를 있는 그대로 온전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만물과 조화롭게 합일한다는 ‘물아일체’로 호접몽 이야기를 끝맺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문제]

1. 윗글의 중심 화제는 ‘장자의 호접몽 이야기에 담긴 물아일체의 진정한 의미’이다. 정답 : (참 / 거짓)
2. 윗글의 중심 화제는 ‘마음의 두 가지 상태와 그 상보적 관계에 대한 장자의 견해’이다. 정답 : (참 / 거짓)
3. 참된 자아가 세계와 관계를 맺으려면 감각적 체험을 배제해야 하겠군. 정답 : (참 / 거짓)
4. 문맥상 ㉠과 바꿔 쓰기에 적절한 것은 ‘미혹(迷惑)된’이다. 정답 : (참 / 거짓)
5. 문맥상 ㉡과 바꿔 쓰기에 적절한 것은 ‘출현(出現)할’이다. 정답 : (참 / 거짓)
6. 순자는 자연과 인간을 구별하면서 인간 우위의 문명 건설에 중점을 둔다. 그는 인간의 질서와 혼란이 자연 세계가 아니라 인간 세상의 문제로부터 비롯된다고 본다. 인간의 현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는 인간과 인간을 둘러싼 세계에 대한 지속적인 학습을 강조한다. 또한 인간은 만물의 변화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만물을 이끌고 길러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장자의 말처럼 자연 세계와 온전하게 합일하는 것으로는 인간 사회의 제도적 질서를 세울 수 없다고 본다. 이러한 순자의 입장에서 장자 사상을 비판해보면 ‘만물에 대한 분별 작용이 사라지는 것은 인간 우위의 문명 건설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하루하루 남기다 보면 늘어나는 국어

#205 정답 및 해설

[지문]

나비가 되어 자신조차 잊을 만큼 즐겁게 날아다니는 꿈을 꾸다 깨어난 장자(莊子)는 자신이 나비가 되는 꿈을 꾸는 것인지 나비가 자신이 된 꿈을 꾸고 있는 것인지 의아해한다. I 이 호접몽 이야기는 나를 잊은 상태를 묘사함으로써 ‘물아일체(物我一體)’ 사상을 그 결론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이야기 외에도 장자에는 II ‘나를 잊는다’는 구절이 나오는 일화 두 편이 있다.

하나는 장자가 타인의 정원에 넘어 들어갔다는 것도 모른 채, 기이한 새의 뒤를 ㉠훔친 듯 쫓는 이야기이다. III 여기서 장자는 바깥 사물에 마음을 통째로 빼앗겨 자신조차 잊어버리는 고도의 몰입을 대상에 사로잡혀 끌려 다니는 꼴에 불과한 것으로 보았다. IV 이때 마음은 자신이 원하는 하나의 대상에만 과도하게 집착하여 그 어떤 것도 돌아보지 못한다. V 이런 마음은 맹목적 욕망일 뿐이어서 감각적 체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신에게 이롭다거나 좋다고 생각하는 것만을 과장하거나 왜곡해서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배격하게 된다.

다른 하나는 “스승님의 마음은 불 꺼진 재와 같습니다.”라는 말을 제자에게 들은 남곽자기(南郭子綦)라는 사람이 “나는 나 자신을 잊었다.”라고 대답한 이야기이다. 여기서 VI ‘나 자신’은 마음을 가리키며, 마음을 잊었다는 것은 불꽃처럼 마음속에 치솟던 분별 작용이 사라졌음을 뜻한다. 달리 말해, 이는 텅 빈 마음이 되었다는 말이며 흔히 명경지수(明鏡止水)의 비유로 표현되는 정적(靜寂)의 상태를 뜻한다. 이런 고요한 마음을 유지해야 천지만물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렇다면 VII 첫째 이야기에서는 온전하게 회복해야 할 ‘참된 자아’를 잊은 것이고 둘째 이야기에서는 세상을 기웃거리면서 시비를 따지려 드는 ‘편협한 자아’를 잊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VIII 참된 자아를 잊은 채 대상에 탐닉하는 식으로 자아와 세계가 관계를 맺게 되면 그 대상에 꼼짝없이 종속되어 괴로움이 증폭된다고 장자는 생각한다. 한편 IX 편협한 자아를 잊었다는 것은 편견과 아집의 상태에서 ㉢ 벗어나 세계와 자유롭게 소통하는 합일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장자는 이 경지를 만물의 상호 의존성으로 설명한다. X 자아와 타자는 서로의 존재를 온전히 전제할 때 자신들의 존재가 ㉣ 드러날 수 있다고 그는 말한다. 예컨대, XI 내가 편견 없는 눈의 감각으로 꽃을 응시하면 그 꽃으로 인해 나의 존재가 성립되고 나로 인해 그 꽃 또한 존재의 의미를 획득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관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XII 타자를 위해 마음의 공간을 비워 두는 수행이 필요하다. 장자는 이런 수행을 통해서 개체로서의 자아를 ㉤ 뛰어넘어 XIII 세계의 모든 존재와 일체를 이루는 자아에 도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XIV 장자가 나비가 되어 자신조차 잊은 채 자유롭게 날 수 있었던 것은 나비를 잊는 그대로 온전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만물과 조화롭게 합일한다는 ‘물아일체’로 호접몽 이야기를 끝맺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현장독해]

I 장자가 나비가 되는 꿈 or 나비가 장자가 된 꿈
= 장자 자신을 잊은 상태 = 물아일체

II ‘나를 잊는다’는 일화 2편. 2개 비교하는 내용 나오겠네

[지문 전개 예측]

III 바깥 사물(=기이한 새)에 마음을 통째로 빼앗겨 -> 나를 잊는
= 대상에 끌려 다니는 꼴에 불과 : 부정적으로 보네 [뉘앙스파악]
IV 자신이 원하는 하나의 대상 = 기이한 새, 과도하게 집착 = 마음을 통째로 빼앗겨, 어떤 것도 돌아보지 못한다 = 대상에 사로잡혀 끌려다니는 꼴
[앞 뒤 표현 연결해 읽기]

- 맹목적 욕망 = 집착

V 있는 그대로 받아들임 vs 과장·왜곡 + 배격 [차이점 정리]

VI 나 자신 = 마음.

마음을 잊음 = 불꽃처럼 마음속에 치솟던 분별 작용이 사라짐
= 텅 빈 마음이 됨 = 명경지수(= 맑은 거울과 고요한 물)

[사자성어 기초 어휘력]

= 정적 상태 = 고요한 마음 [비슷한 의미의 표현들 그룹짓기]

-> 천지만물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인과관계 정리]

VII 첫째 이야기 = 집착 = ‘참된 자아’를 잊음 = 좋은 걸 잊었으니
까 안 좋은 것 [나만의 편한 표현으로 핵심정리]

vs 둘째 이야기 = 시비를 따지려 드는 ‘편협한 자아’를 잊음 = 마음속에 치솟던 분별 작용이 사라짐 = 안 좋은 걸 잊었으니
좋은 것 [앞문단 표현 연결] [나만의 편한 표현으로 핵심정리]

VIII 대상 탐닉 -> 대상에 종속 -> 괴로움 증폭 = 첫째 이야기

IX 편협한 자아를 잊음 -> 편견과 아집을 벗어남 -> 자유롭게 소통 -> 합일 -> 물아일체 = 둘째 이야기 [비슷한 표현 떠올리기]

- 상호의존성

[키워드 파악]

X ‘서로의 존재를 온전히 전제할 때’... 무슨 말이지? 모르겠는데

[직관적으로 이해 안되는 부분은 한번 생각해보고 안되면 넘어가]

XI = 편견 없는 눈의 감각으로 꽃을 응시. 편견 없는=온전히 전제

[이해 안 된 표현의 의미 뒤에 나오는 예시로 보충]

XII 타자를 위해 마음의 공간을 비워 두는 = 둘째 이야기 = 편협한 자아, 분별 작용 잊어야 [지문 앞의 비슷한 표현 연결]

XIII 세계의 모든 존재와 일체를 이루는 자아 = 물아일체

XIV 마음을 비워 -> 나비를 잊는 그대로 온전하게 받아들임 -> 나비가 되어 자신조차 잊고 자유롭게 날 수 있음 = 물아일체 = 만물과 조화롭게 합일

[문제]

1. 윗글의 중심 화제는 '장자의 호접몽 이야기에 담긴 물아일체의 진정한 의미'이다. 정답 : (참 / 거짓)
2. 윗글의 중심 화제는 '마음의 두 가지 상태와 그 상보적 관계에 대한 장자의 견해'이다. 정답 : (참 / 거짓)
3. 참된 자아가 세계와 관계를 맺으려면 감각적 체험을 배제해야 하겠군. 정답 : (참 / 거짓)
4. 문맥상 ㉠과 바꿔 쓰기에 적절한 것은 '미혹(迷惑)된'이다. 정답 : (참 / 거짓)
5. 문맥상 ㉡과 바꿔 쓰기에 적절한 것은 '출현(出現)할'이다. 정답 : (참 / 거짓)
6. 순자는 자연과 인간을 구별하면서 인간 우위의 문명 건설에 중점을 둔다. 그는 인간의 질서와 혼란이 자연 세계가 아니라 인간 세상의 문제로부터 비롯된다고 본다. 인간의 현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는 인간과 인간을 둘러싼 세계에 대한 지속적인 학습을 강조한다. 또한 인간은 만물의 변화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만물을 이끌고 길러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장자의 말처럼 자연 세계와 온전하게 합일하는 것으로는 인간 사회의 제도적 질서를 세울 수 없다고 본다. 이러한 순자의 입장에서 장자 사상을 비판해보면 '만물에 대한 분별 작용이 사라지는 것은 인간 우위의 문명 건설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1.참, 2.거짓, 3.거짓, 4.참, 5.거짓, 6.참

1. 선택지 '장자의 호접몽 이야기에 담긴 물아일체의 진정한 의미' = 지문 '둘째 이야기' 참.
2. 선택지 '마음의 두 가지 상태' = 첫째 이야기처럼 집착해서 참된 자아를 잃는 상태 vs 둘째 이야기처럼 비워써 온전히 보는 상태.
- 선택지 '그 상보적 관계', '상보적' = 서로 모자란 부분을 보충하는 관계에 있는 것. 두 상태가 서로 상호 보완적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둘중 첫째 상태 버리고 둘째 상태 지향해야한다는 것이 장자의 견해. 거짓. [기초 어휘력]
+ '상보적'이라는 단어를 모른다고 해서 모르는 단어가 포함된 선택지를 정답으로 찍지는 마시고, 아는 선택지를 더 꼼꼼히 봐서 그걸 바탕으로 정답을 찍으시기 바랍니다.
[모르면 판단불가하고 넘어가기]
3. 선택지의 감각적 체험을 '배제해야'는 절대적이고 극단적인 표현이네. 반례 생각해봐야지. 지문에 '편견 없는 눈의 감각으로 꽃을 응시'하라고 했지, 눈의 감각 자체를 없애고 배제해야한다고 하지 않았음. 거짓.
[절대적, 극단적 표현은 반례 떠올려보기]
4. 홀리다 = 미혹되다 = 무엇에 홀려 정신을 차리지 못함. 참 [기초 어휘력]
5. 드러나다 = 가려 있거나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게 되다.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 널리 밝혀지다. 겉에 나타나 있거나 눈에 띄다. = 발현 vs 출현 = (없던 것이) 나타나거나 또는 나타나서 보임. 거짓.
6. 순자 vs 장자
- 자연 vs 인간 -> 인간 우위

- 인간이 만물 변화 주도 = 만물을 이끌고 길러 주어야 vs 장자 = 자연과 합일 [차이점, 공통점 중심으로 정리]
vs 장자처럼 하면 인간 사회의 제도적 질서 세울 수 없음
- 만물에 대한 분별 작용이 사라지는 것 = 장자 vs 장자처럼 하면 인간 우위의 문명 건설에 도움 안 됨. 참.
[차이점, 공통점 중심으로 정리]

[지문]

(가)

향가와 시조는 일반적으로 형식적 측면에서 전승 과정에 초점을 두고 두 갈래의 영향 관계를 설명한다. 시조의 기원에 대한 다양한 설 중, 10구체 향가에서 비롯하였으리라는 설에 바탕을 두고 설명하는 학자들은 초기의 4구체나 과도기 형태인 8구체가 아닌, 10구체를 향가 중에서 정제된 형식으로 본다. 10구체는 대개 '4구+4구+2구'의 형태로 시상을 전개하다가 낙구에 주제를 제시하며 시상을 마무리한다. 이러한 형태는 후대 평시조가 정제된 틀을 갖추게 된 데에 영향을 끼쳤는데, 특히 낙구의 감탄사는 시조의 종장 첫 구에 나타나는 감탄사에 영향을 미쳤으리라는 것이다. 향가의 감탄사와 시조 종장의 감탄사는 앞에 나온 내용을 정서적으로 고양시키거나 환기시켜 노래의 내용을 완결하는 효과가 있다.

이런 전승 과정을 거쳐 형성된 시조가 오늘날까지 창작될 수 있었던 것은, 간결한 형식에서 기인한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평시조의 형식적 특징은 조선 후기에 접어들어 그 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각 장 4음보의 정형성이 파괴되어 시조의 장형화가 이루어지고 사설시조가 출현하게 된다.

향가와 시조는 형식적 측면에서와는 달리 내용적 측면에서의 영향 관계를 설명하기는 어렵다. 10세기 말 무렵까지 창작됐던 향가는 현재까지 가사가 전해지는 것이 총 25수에 불과하고, 위 흥과 대구화상이 간행했다는 향가집 삼대목도 현재 전해지지 않는다. 현재 전하는 작품들의 내용은 주로 불교적 신앙심을 바탕으로 한 것이 많지만, 추모(追慕), 축사(逐邪), 안민(安民), 연군(戀君) 등 다양하다.

반면, 고려 말에 발생하여 조선 시대에 들어 본격적으로 융성한 시조는 시조가 지니는 형식미 때문에 조선 전기 사대부들의 미의식과 정신세계를 표현하는 데 적합한 갈래로 자리 잡았다. 이 시기 시조의 주제는 유교적 이념과 자연에 대한 동경이었는데, 이는 조선 사대부들의 이상이기도 했다. 조선 후기 시조는 자기 자신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실학의 대두로 인하여 관념적이고 형식적인 경향에서 벗어났다. 그러면서 시조에는 새로운 인간성을 발견하고 다양한 현실적 삶을 표현하고자 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나)

임금은 아버지요
 신하는 사랑하실 어머니요
 백성은 어린 아이라고 한다면
 백성이 사랑을 알 것입니다.
 꾸물거리며 사는 백성들
 이들을 먹여 다스려
 이 땅을 버리고 어디로 갈 것인가 한다면
 나라가 다스려짐을 알 것입니다.
 아오, 임금답게 신하답게 백성답게 한다면
 나라가 태평할 것입니다.

-총담사, 「안민가」-

(다)

평생에 일이 업서 산수 간에 노니다가
 강호에 넘자되니 세상 일 다 니제라
 엇더타 강산풍월이 그 벗인가 흐노라

-낭원군의 시조-

[문제] 진위판단 및 오지선다

1. (다)의 4음보 율격은 (나)에서 '4구'가 반복되는 형태의 영향을 받은 것이군. 정답 : (참 / 거짓)

2. (다)의 종장에 주제가 제시된 것은 (나)의 9구와 10구에 주제가 제시된 것과 동일한 방식이군. 정답 : (참 / 거짓)

35. (가)와 <보기>를 바탕으로 (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낭원군의 시조는 조선시대 왕족의 정치 참여 금지로 인해 자신의 능력을 표출할 수 없었던 심정을 속세에서 벗어나 자연과 벗하는 모습으로 읊은 것이다.

- ① 자신의 능력을 표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평생에 일'로 표현하였군.
- ② 정치적 한계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을 '산수 간에 노니다가'로 해소했군.
- ③ 왕족의 역할을 다하고자 하는 의지를 '강호에 넘자되니'에 담고 있군.
- ④ 왕족이기 때문에 현실 정치에 참여할 수 없는 체념의 정서를 '엇더타'에 집약해서 나타냈군.
- ⑤ 자연과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을 '강산풍월'을 '벗'하는 것에 드러냈군.

하루하루 남기다 보면 늘어나는 국어

#206 문학 정답 및 해설

<보기> 35번

낭원군의 시조는 조선시대 왕족의 정치 참여 금지로 인해 자신의 능력을 표출할 수 없었던 심정을 속세에서 벗어나 자연과 벗하는 모습으로 읊은 것이다.

[지문]

(가)

향가와 시조는 일반적으로 형식적 측면에서 전승 과정에 초점을 두고 두 갈래의 영향 관계를 설명한다. 시조의 기원에 대한 다양한 설 중, 10구체 향가에서 비롯하였으리라는 설에 바탕을 두고 설명하는 학자들은 초기의 4구체나 과도기 형태인 8구체가 아닌, 10구체를 향가 중에서 정제된 형식으로 본다. 10구체는 대개 '4구+4구+2구'의 형태로 시상을 전개하다가 낙구에 주제를 제시하며 시상을 마무리한다. 이러한 형태는 후대 평시조가 정제된 틀을 갖추게 된 데에 영향을 끼쳤는데, 특히 낙구의 감탄사는 시조의 종장 첫 구에 나타나는 감탄사에 영향을 미쳤으리라는 것이다. 향가의 감탄사와 시조 종장의 감탄사는 앞에 나온 내용을 정서적으로 고양시키거나 환기시켜 노래의 내용을 완결하는 효과가 있다.

이런 전승 과정을 거쳐 형성된 시조가 오늘날까지 창작될 수 있었던 것은, 간결한 형식에서 기인한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평시조의 형식적 특징은 조선 후기에 접어들어 그 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각 장 4음보의 정형성이 파괴되어 시조의 장형화가 이루어지고 사설시조가 출현하게 된다.

향가와 시조는 형식적 측면에서와는 달리 내용적 측면에서의 영향 관계를 설명하기는 어렵다. 10세기 말 무렵까지 창작됐던 향가는 현재까지 가사가 전해지는 것이 총 25수에 불과하고, 위홍과 대구화상이 간행했다는 향가집 삼대목도 현재 전해지지 않는다. 현재 전하는 작품들의 내용은 주로 불교적 신앙심을 바탕으로 한 것이 많지만, 추모(追慕), 축사(逐邪), 안민(安民), 연군(戀君) 등 다양하다.

반면, 고려 말에 발생하여 조선 시대에 들어 본격적으로 융성한 시조는 시조가 지니는 형식미 때문에 조선 전기 사대부들의 미의식과 정신세계를 표현하는 데 적합한 갈래로 자리 잡았다. 이 시기 시조의 주제는 유교적 이념과 자연에 대한 동경이었는데, 이는 조선 사대부들의 이상이기도 했다. 조선 후기 시조는 자기 자신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실학의 대두로 인하여 관념적이고 형식적인 경향에서 벗어났다. 그러면서 시조에는 새로운 인간성을 발견하고 다양한 현실적 삶을 표현하고자 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현장독해]

- 낭원군 = 조선시대 왕족 = 정치 참여 금지 = 능력 표출 X
-> 속세에서 벗어나 자연과 벗하는 모습

- 어우... (가)는 원래 <보기>인데 길어서 지문으로 뺐네.
[같은 지문, 속은 <보기>라면 먼저 읽어 작품독해에 활용]
- 향가 vs 시조

- 4구체, 8구체 말고 10구체.
- 10구체 442
- 낙구에 주제 제시
- 10구체 442 낙구 주제 제시 형태가 평시조에 영향
- 향가 낙구 감탄사 = 시조 종장 첫 구 감탄사 [공통점 파악]

+ 정서 고양, 환기 -> 노래 완결

- '간결한 형식'

- 사설시조 = 중장 늘어났었지 = 장형화 [국어 기초 개념]

- 내용적으로는 영향 관계 애매하다. 작품 별로 없다. 내용도 다양하다. [나만의 편한 표현으로 핵심 파악]

- 전기 시조 주제 = 유교적 이념과 자연에 대한 동경 = <보기> 낭원군의 시조 [지문-<보기> 연결해 읽기]
vs 후기 시조 = 자신에 대한 새로운 인식, 실학 대두 -> 관념적이고 형식적인 경향에서 벗어남. -> 새로운 인간성 발견. 다양.

(나)

임금은 아버지요
신하는 사랑하실 어머니요
백성은 어린 아이라고 한다면
백성이 사랑을 알 것입니다.
꾸물거리며 사는 백성들
이들을 먹여 다스려
이 땅을 버리고 어디로 갈 것인가 한다면
나라가 다스려짐을 알 것입니다.
아오, 임금답게 신하답게 백성답게 한다면
나라가 태평할 것입니다.

-총답사, 「안민가」-

(다)

평생에 일이 업서 산수 간에 노니다가
강호에 남자되니 세상 일 다 니제라
엇더타 강산풍월이 그 벗인가 흐노라

-낭월군의 시조-

[문제] 진위판단

1. (다)의 4음보 율격은 (나)에서 '4구'가 반복되는 형태의 영향을 받은 것이군. 정답 : (참 / 거짓)
2. (다)의 종장에 주제가 제시된 것은 (나)의 9구와 10구에 주제가 제시된 것과 동일한 방식이군. 정답 : (참 / 거짓)

- (가) 10구체 향가네. 442+낙구로 읽자. [**<보기>-지문 연결**]

- 백성이 엄마 아빠 사랑을 알 거다.

- 이들 = 백성 [**지시사 의미 명확히 하기**]

- 이 땅을 버리고 어디로 갈 것인가 = 이 땅이 좋아서 안 간다.

= 잘 다스려졌다면 이 땅 버리고 어디 안 가겠지

[**설의적 표현은 평서형으로 바꿔서 의미·의도 파악**]

- 각자 할 일 하면 나라 태평할거다

[**나만의 편한 표현으로 핵심 파악**]

- 평생에 일이 없어 = <보기> 왕족 정치참여 금지 vs 산수 간에

노니다가 = <보기> 속세에서 벗어나

- 강호에 남자되니 세상일 다 잊었다

- 강 산 바람 달, 즉 자연이 벗이다 = <보기> 자연과 벗하는

[**<보기>-지문 연결**]

[정답의 해설] 1.거짓, 2.참, 35.④번

1. '4구가 반복'했다는 건 442 3단구성에서 44를 말하는 거잖아. 이게 4음보가 된 건 아니지. 거짓.

[**표현의 의미에 대해 명확히 해보기**]

2. 동일? 절대적 표현이라 반례 찾고 싶은데...

(다) 종장에 <보기> 자연과 벗하는 주제 제시

= (나) 9구와 10구에 각자 위치에서 잘 하자는 주제 제시.

= (가) '낙구에 주제 제시' 참이네.

[**보기-선택지-지문 연결해 생각하여 정답의 확신성 높이기**]

35. (가)와 <보기>를 바탕으로 (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낭원군의 시조는 조선시대 왕족의 정치 참여 금지로 인해 자신의 능력을 표출할 수 없었던 심정을 속세에서 벗어나 자연과 벗하는 모습으로 읊은 것이다.

- ① 자신의 능력을 표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평생에 일'로 표현하였군.
- ② 정치적 한계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을 '산수 간에 노니다가'로 해소했군.
- ③ 왕족의 역할을 다하고자 하는 의지를 '강호에 남자되니'에 담고 있군.
- ④ 왕족이기 때문에 현실 정치에 참여할 수 없는 체념의 정서를 '엇더타'에 집약해서 나타냈군.
- ⑤ 자연과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을 '강산풍월'을 '벗'하는 것에 드러냈군.

35.

- ① 평생에 일이 '없다'고 했으므로, 자신의 능력을 표출하지 못하는 상황을 표현한 것. 그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평생 일했다는 의미가 아님. 거짓. **[표현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보기]**
- ② 벗어나고 싶은 마음을 해소...? 정치적 한계는 왕족이라 정치 참여 못하는 거고. 한계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에 자연에 가서 산수 간에 노닌거지. 벗어나고 싶은 마음 자체를 해소해 버리면 정치적 한계에 머무르겠다는 건데 그건 아니죠. **한계(-)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 해소(-)면 그대로 (-)지.** 거짓. **[직관적으로 이해 안 되는 표현의 의미 도식화해서 생각해보기]**
- ③ 왕족의 역할을 다하지 않고 자연에 내려가 강호에 임자된 것. 거짓.
- ④ 왕족이기 때문에 현실 정치에 참여할 수 없는 체념의 정서 = <보기> 왕족의 정치 참여 금지로 인해 자신의 능력을 표출할 수 없었던 심정. '정서를 '엇더타'에 집약' = (가) 시조 종장의 감탄사는 앞에 나온 내용을 정서적으로 고양시키거나 환기시켜 노래의 내용을 완결하는 효과. 참.

[<보기>-지문-선택지 연결해 정답의 확실성이 높이기]

- ⑤ 자연과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 = <보기> 속세에서 벗어나 자연과 벗하는 모습 = '강산풍월'을 '벗'하는 것 = (가) 자연에 대한 동경이 주제. 참. 응...? ④⑤번 둘다 참인 진술이데... 뭐지... 그래도 일단 <보기>에 능력을 표출할 수 없었던 심정인 '체념'을 얘기한 ④번을 답으로 찍긴 해야하나.
- + **함께하고자 한 '의도'는 없다? 정치 못해서 할 게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자연과 노는거다? '엇더타(아쉽다, 어쩌겠냐) 강산풍월이 내 (마지막 남은) 벗인가 싶구나.'** 이걸 함께하고자 한 게 아니라 체념하고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거다? 흠...

★★★ 두 선택지 싸움 + '가장' 적절한 것 고르기 + 출제자는 신이고 절대자야 ★★★

35번에 ⑤번을 찍고 틀렸다고 해서 너무 기분나빠하실 필요 없습니다. ⑤번이 참인 진술이 아니기가 힘듭니다. 출제자분 해설을 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보기>의 핵심은 왕족인 작자가 정치 참여 금지로 자신의 능력을 펼칠 수 없는 정치적 한계에 대한 심정을 드러냈다는 것인데, 그런 체념의 정서는 (가)의 1문단을 통해서 볼 때 감탄사 '엇더타'에 집약됨을 알 수 있다.' ④번이 참이라서 정답인 이유는 이렇게 설명해놓으셨고, ②번이나 ⑤번이 거짓인 이유는 따로 설명해놓지 않으셨습니다. 뭐 귀찮으셨던 것도 있겠지만...

출제자분 입장에서 <보기>의 '핵심'인 '심정'은 능력을 표출할 수 없는데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체념'이고, 이에 대해 얘기한 ④번이 '가장' 적절하다고 보신 것입니다. 그러나 '체념'의 정서를 느껴서, <보기> '속세에서 벗어나 자연과 벗하는 모습을 읊으면서' ⑤번의 자연과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도 드러나긴 하죠. ④번이 맞았다고 해서 ⑤번이 틀렸다고 봐서도 안 되고, 오히려 ④번이 없었으면 ⑤번도 충분히 참인 진술로 정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시험 현장에서 이렇게 <보기>-지문-선택지 표현도 잘 연결되고, 주제의식과도 맞아서 정답의 확실성이 높은 선택지가 2개나 된다면, 그때 **'출제자형'은 뭘 정답으로 하고 싶어 했을 지까지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학' 영역에서 정답과 오답의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도록 하여 애매함을 가중시켜 학생들의 시간·멘탈·페이스를 잃게 만들고자 한다면, 극단적으로는 이렇게까지 두 선택지 싸움을 시킬 수 있으니까요. 추후에 복수정답이 될지라도, 일단은 출제자의 입맛까지 고려해서 정답은 맞힌 후에 많이 애매했다고 지적하는 것이, 틀린 후에 시간·에너지 써가며 조목조목 따지고 비판하는 것보다는 스트레스가 덜합니다. 두 선택지 싸움의 끝에는 '출제자가 더 좋아할만한 것, 출제자가 답으로 하고 싶어할만한 하나'까지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루하루 남기다 보면 늘어나는 국어

#207 문법

<자료>

우연 ㉠ 아무런 인과 관계가 없이 뜻하지 아니하게 일어난 일.

▶우연의 일치
「반」 필연01.

우연-적 ㉡ 아무런 인과 관계 없이 뜻하지 아니하게 일어나는.
또는 그런 것.

▶우연적 만남/우연적 사건 ㉢ 우연적으로 일어난 일

우연-하다 ㉣ 어떤 일이 뜻하지 아니하게 저절로 이루어져 공교롭다.

▶친구를 우연하게 만났다.

우연-히 ㉤ 어떤 일이 뜻하지 아니하게 저절로 이루어져 공교롭게.

▶동생의 비상금을 우연히 발견하였다.

[문제] 다음은 '사전 활용하기' 학습 활동을 위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우연'의 뜻풀이와 반의어를 보니, '우연적'의 반의어로 '필연적'이 존재할 수 있겠군.
- ② '우연적'의 품사 정보와 뜻풀이를 보니, '그들의 만남은 우연적이었다.'의 '우연적'은 관형사에 해당하겠군.
- ③ '우연하다'의 품사 정보와 뜻풀이를 보니, '우연하다'의 용례로 '우연한 계기'를 추가할 수 있겠군.
- ④ '우연'과 '우연하다'의 표제어 및 뜻풀이를 보니, '우연하다'는 '우연'에 '하다'가 결합한 복합어로군.
- ⑤ '우연하다'와 '우연히'의 뜻풀이 및 용례를 보니, '친구를 우연하게 만났다.'의 '우연하게'는 '우연히'로 교체하여 쓸 수 있겠군.

※ 2016년 고2 3월 14번 문법 문제 참조

하루하루 남기다 보면 늘어나는 국어

#207 정답 및 해설

<자료>

우연 ㉠ 아무런 인과 관계가 없이 뜻하지 아니하게 일어난 일.

▶우연의 일치
「반」 필연01.

우연-적 ㉡ 아무런 인과 관계 없이 뜻하지 아니하게 일어나는. 또는 그런 것.

▶우연적 만남/우연적 사건 || 우연적으로 일어난 일

우연-하다 ㉢ 어떤 일이 뜻하지 아니하게 저절로 이루어져 공교롭다.

▶친구를 우연하게 만났다.

우연-히 ㉣ 어떤 일이 뜻하지 아니하게 저절로 이루어져 공교롭게.

▶동생의 비상금을 우연히 발견하였다.

[문제] 다음은 '사전 활용하기' 학습 활동을 위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우연'의 뜻풀이와 반의어를 보니, '우연적'의 반의어로 '필연적'이 존재할 수 있겠군.
- ② '우연적'의 품사 정보와 뜻풀이를 보니, '그들의 만남은 우연적이었다.'의 '우연적'은 관형사에 해당하겠군.

[현장독해]

- '우연'가지고 문제 내나 보네. 이걸 선택지부터 보면서 <자료>로 돌아오는 게 나을 듯

[문제 구성 보면서 먼저 읽을 것들 정하기]

[정답 및 해설] ②번

① <자료> 「반」이 '반의어'를 나타내는 말. [국어 기초 지식] 우연 vs '필연01'. 우연적 vs 필연적 [반대를 생각해보는 응용력]

② '우연적' 관형사랑 명사 중에 이 문장에서는 '명사'지. 뒤에 서술격조사 '-이다'가 붙어있으니까. 그리고 이게 '관형사'라면 체언 앞에서 체언을 꾸며줘야 하니까 뒤에 '체언'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거 없잖아. 거짓. 정답 ②번. 넘어가

[단어 자체(나무)와 단어 주위(숲)까지 종합적으로 판단] [정답의 확실성이 높은 정답이 나왔으면 넘어가서 시간 아끼기] + 서술격조사는 체언이나 체언 구실을 하는 말 뒤에 붙어 서술어 자격을 가지게 하는 격 조사인 '-이다' [국어 기초 지식]

★★★ 하고자하면 할 수 있어야 한다. ★★★

③ '우연하다'의 품사 정보와 뜻을 보니, '우연하다'의 용례로 '우연한 계기'를 추가할 수 있겠군.

- '우연하다'는 품사가 '형용사' 즉 '용언'이므로, 활용가능. 우연하게 우연해서 우연하므로 우연한 등 부사형 전성어미 '-게', 연결어미 '-아서', 연결어미 '-므로', 관형사형 전성어미 '-ㄴ' 등이 붙어 활용가능.

④ '우연'과 '우연하다'의 표제어 및 뜻을 보니, '우연하다'는 '우연'에 '하다'가 결합한 복합어로군.

- '명사 어근' 우연에, 형용사 파생 접미사 '-하다'가 결합한 형용사 '우연하다'. '어근+접사'이므로 파생어. 파생어는 복합어.

⑤ '우연하다'와 '우연히'의 뜻풀이 및 용례를 보니, '친구를 우연하게 만났다.'의 '우연하게'는 '우연히'로 교체하여 쓸 수 있겠군.

- '우연하게'는 우연하다에 부사형 전성어미 '-게'가 붙어서 형용사의 부사형으로 문장성분에서 부사어 역할. '우연히'는 명사 '우연'에 부사파생접미사 '-히'가 붙어서 된 부사 '우연히'가 문장성분에서 부사어 역할. 품사는 각각 형용사와 부사로 다르지만 문장성분이 부사어로 같으므로 교체하여 쓸 수 있음.

이 문제 오답률이 63.1%인데요. 왜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틀렸는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명사와 관형사를 구분할 줄 아시고, 전성어미·연결어미까지 알고 계시고, 파생 접미사까지 알고 계시는' 똑똑한 분들이실 겁니다. 클래스가 남다르시니, 전체 평균이 이해가 안 되시는 거죠. 이 분들은 또, 23.9% 학생들이 ③번 짚은 이유, 23.2% 학생들이 ④번을 정답으로 짚은 이유는 이해가 되고 파악이 되실 겁니다. 출제요소가 겹보기에는 '사전 보는 법'처럼 보이겠지만, 속으로는 굉장히 디테일한 문법 개념들을 알아야 풀 수 있도록 냈는데, 다른 학생들이 이런 디테일한 공부가 되어 있지 않으니 틀리겠구나 싶으시겠죠. 이처럼 아는 만큼 맞히는 거고, 아는 만큼 보이는 겁니다. 이 문제 틀리셨거나, ③④번 헛갈리셨다면 자극 좀 받으셔서 더 디테일하게 파고들어 공부하는 계기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보처럼 당하지 않는 법1. 제대로 알고 난 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수할 수 있어야 실망도 안한다.

혹사라도 소개팅받기 전에 상대방 키가 궁금하실 수 있어요. 만약에 그분 키가 180이라고 하신다면, 그분 실제 키는 아마 175정도일 겁니다. 심지어 깔창 한 5cm 깔고 영혼까지 끌어 모아서 175인 걸 수도 있어요. '대한민국 성인키 조사 응답결과' 한번 인터넷에 쳐보시면요. 키 168 169 178 179cm이신 분들은 다 멸종하셨습니다. 여기만 막대그래프가 푹 꺼져있어요. 반대로 키가 170 180이라고 응답하신 분들은, 정규분포 가정을 비웃기라도 하듯 혼자서 치솟아 계십니다. 여성분들 중에 키 큰 게 싫어서 일부러 낮춰 얘기하는 분들이 아니고서는, 다 자기 실제 키보다 높여 말합니다. 저라고 뭐 다르겠습니까 저도 그래요. 이걸 알고 소개팅에 나가셔야 실망하지 않으실 수 있어요.

구인공고가 뒀는데, 시급이 18000원 ~ 22000원으로 나와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받을 시급은 얼마라고 생각하고 가야 할까요? 백이면 백 18000원입니다. 심지어 명목상 시급은 15000원인데 주휴수당에 이것저것 다 합쳐서 최종적으로 받는 돈을 근무 시간으로 나눠야 18000원 나올 거예요. 그 어떤 스펙을 들이밀어도 웬만하면 18000원일 겁니다. 심지어 구두에 유니폼에 뭐 이것저것 준비하고 사야 된다고 돈이 오히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걸 알고 가서야 실망하지 않으실 수 있어요.

일하러 갔는데 사장님이 '우린 정으로 일하고 의리로 일한다. 그래서 근로계약서는 따로 안 쓴다' 이런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정으로 의리로 일하는 낭만도 한번 부러보실 순 있어요. 근로계약서 안 쓴다는 게 사장님이 처음부터 아주 그냥 작정하고 여러분한테 사기 치려고 하는 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 스스로는 나중에 혹시 문제 생겼을 때 사장님이 모른 체 할 수 있는, 아니 모른 체 할 경우까지 예상하고 일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런 위험을 감수할 생각이 있으시면 낭만 있게 일 하시는 거고, 이걸 감수할 생각이 없으시면 근로계약서 쓰고 일하셔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께 친숙한 '게임'을 예시로 들어볼게요. 확률형 아이템 관련한 '자율규제' 얘기인데요. 게임 내 아이템의 획득확률정보를 게임사가 '자발적으로' 공개하여 이용자들의 구매 판단을 돕는 거랍니다. 규제 대상인 '당사자들'이, 본인들 스스로를, 자율적으로 규제해서, 본인들에게 불리한 정보를 공개한다..... 취지는 참 좋아 보였죠. 근데 그렇게 자율규제해서 어떻게 됐나요. 소위 대기업이라고 불리는 메이저 게임사조차도 확률 조작하다 걸려서 트럭 시위 일어나고, 유저 간담회에서 망신당하고, 법정까지 가서 배상하고 했잖아요.

자율규제는요. 수많은 장점과 논리로 포장해놨겠지만, 결국 규제받아야할 대상이 받았어야할 규제를 안 받게 해주는 게 그 본질입니다. 자율규제 하지 않으면 게임사가 과도한 이익을 벌어들일 여지가 있단 걸 알면서도, 규제 안 하고 고양이한테 생선 맡기는 거예요. 당연히 자율규제 시행 초기에야 다들 잘 지키려고 하겠지만요. 막대한 이익을 벌어들일 기회가 버젓이 열려 있고, 그 유혹이 계속되기 때문에, 결국 누군가는, 언젠가는,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선을 넘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기가 일어날 가능성을 원천 차단할 정도의 투명성을 갖추지 못하면, 사기는 결국 일어나기 마련이에요. 누가 그 사기를 쳤는지, 언제 그 사기가 일어났는지의 차이만 있을 뿐 결국 사기는 일어나고 피해는 발생합니다. 언젠가 결국 소비자 피해가 일어날 수 있단 걸 알면서도, 알아서 잘 한다니까 믿어주자면서 내 버려 두는 게 '자율규제'인거죠. 더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시행 초기에야 초심을 담아 잘 지키는 거고, 나중엔 뭐 니들 알아서 선 아슬아슬하게 넘나들며 돈 벌라고 사회가 합법적으로 허용해준 거나 다름없습니다.

사기가 언젠가는 필수불가결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걸 알면서도 자기들 알아서 규제하라고 하는 현행 자율규제 방식이 계속되는 한, 확률형 아이템이 있는 게임 하실 때는 사기당할 걸 알고, 그걸 감수하고 거기에 돈을 쓰셔야 합니다. 그 게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언젠가 조작당하고 사기당할 수 있단 걸 알고서도 게임을 하셔야 실망을 안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일이 사실 다 이렇습니다 여러분.

나이 들어 어른이 될수록

세상에 계속 실망하게 돼서 더는 기대를 안 하게 된다는 얘기 들어보셨겠죠.

세상이 다 이래서 그래요.

이게 잘못이다, 이게 본질이다 가지고 싸우는 것보다 더 급한 건,

일단 당장 현실은 이렇다는 걸 본인은 알고 계셔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이런 세상을 고쳐주시는 소위 '영웅'이 되어 주셨으면 더 좋겠고,

적어도 일단 당하고 실망하지는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보처럼 당하지 않는 법2. 나쁜 놈이 제일 문제지만, 그 놈이 나쁜 짓을 하게 내버려두는 것도 문제다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로
'중국 견제'가 꼽히는데요.

정권교체에 성공한 민주당과 바이든 대통령조차
트럼프 전 대통령의 중국 견제 노선을 유지하고 있는 걸 보면,
'중국 견제'를 전면에 내세웠던 트럼프의 선거 전략은 유효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트럼프가
단순히 중국에 대한 적개심 표출로 미국인들을 선동해서 대통령이 된 건 아닙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자 했던 이유,
미국인들이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선택했던 이유를 한번 보시죠.

“

중국이 환율을 조작하여
미국 기업들로부터 막대한 이익을 훔쳐가고 있다.
미국 기업은 중국 기업과의 계약에서 계속 지고 있으며,
이런 와중에도 중국은 미국의 각종 기술력·인력을
셀 수도 없이 많이 훔쳐가고 있다.
이건 분명 문제이고 중국은 잘못했다.

하지만,
중국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내버려둔
미국 정부와 정치권에게도,
그리고 미국인들에게도 잘못이 있다.

중국이 이렇게 해도 관찮을 거라고 생각하게 만든 건,
중국이 내놓고 이렇게 하도록 만든 건,
다름 아닌 미국 자신이다.
그러므로 미국은 더는 위대하지 않다.

나는 대통령이 되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것이다
Make America Great Again

”

트럼프가 그저 '중국은 나쁜 국가고 미국은 피해자다'라고만 말하고 다녔다면
그는 아마 대통령이 되지 못했을 겁니다.
트럼프는 대통령이 되어서도 국제연합(UN) 등 국제기구에
'중국은 나쁜 국가니까 피해 받은 미국을 도와주세요.'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고,
직접적으로 무역보복까지 해가면서,
중국이 더는 미국으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얻지 못하게 했습니다.

미국의 군사력 원조를 협상 카드로 활용해
우방국들이 미국을 도울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중국을 외교적으로 고립시켰습니다.

트럼프라는 사람에 대한 제 개인적인 평가가 그리 좋지는 않습니다만,
적어도 트럼프는 굉장히 똑똑한 '프로'입니다.

트럼프의 이러한 '프로'다운 행동들이
바로 트럼프 행정기 경제 부흥의 원동력이 되었으며,
국제정치라는 냉혹한 현실 문제에서
미국이 주도권을 가져오는 실질적인 힘이 되었습니다.

나쁜 짓을 한 놈, 사기 친 놈이 제일 문제입니다.
하지만 그 놈이 그렇게 나쁜 짓을 할 수 있도록 내버려둔 정부, 제도, 사회도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더 똑똑해지셔서
나쁜 사람들이 나쁜 일을 하고 싶어도 아예 할 수 없는, 그런 투명한 구조를 만들어 주세요.

응원하겠습니다.
하루하루 파이팅

하루하루 남기다 보면 늘어가는 국어

#210 상식

[환율과 경상수지]

환율은 외화 1단위와 교환되는 원화의 양으로, 외화 1달러가 원화 1000원으로 될 경우, 환율은 1000원입니다. 경상수지는 상품·재화·서비스의 수출액에서 수입액을 뺀 결과입니다. 수출액이 수입액보다 클 때는 흑자, 작을 때는 적자로 구분하구요. 일반적으로 환율의 상승은 경상 수지를 개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환율이 상승하면 수출액에서 수입액을 뺀 결과가 개선된다는 것입니다. 적자가 줄어들거나, 적자에서 흑자상태로 전환되거나 흑자가 늘어나는 등 기존 값보다 증가하면 개선 경상수지가 개선된다고 표현합니다.

국내 기업은 수출에서 벌어들인 외화를 국내로 들여와 원화로 바꾸어 수출액을 계산합니다. 국내 기업이 자신들이 생산한 상품을 수출하는 나라에서 그 나라의 화폐인 외화가 아닌 한국 원화를 받겠다고 하면 그 나라 사람들이 사는데 불편하겠죠. 그러니 외국에서 우리나라 물건을 팔 때는 외국 화폐로 표시해서 팔아야죠. 삼성이 갤럭시폰을 미국 현지에서 팔고 싶으면 원화가 아닌 달러로 팔아야 합니다. 그러나 외국에서 상품을 팔아 외국화폐를 받았다고 해서 우리나라 기업 삼성의 수출액이 아닌 게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삼성의 수출액을 판단할 때는 달러로 벌어들인 수입을 한국원화로 환산하여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환율이 1000원일 때, 삼성이 갤럭시폰을 미국 현지에서 외화표시가격 100달러에 팔았다면, 원화 환율로 환산한 수출액은 100(달러)*1000(원) 해서 10만원입니다.

환율이 상승한 경우에는, 외국에서 우리 상품의 외화 표시 가격을 다소 낮추어도 수출량이 늘어나면 수출액이 증가합니다. 예를 들어, 환율이 1000원에서 1250원으로 오르면, 미국에서 삼성이 갤럭시폰을 100달러가 아닌 80달러에 팔았어도, 80달러를 원화로 환산하면 80(달러)*1250(원) 즉 원화 10만원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외화표시가격을 100달러에서 80달러까지 낮추어도, 환율이 증가하여 수출액 그대로네요. 그러므로 환율이 상승한 경우에는 외화표시가격을 100달러에서 80달러 사이의 가격으로 낮추어도 오히려 상품 1개당 수출액은 기존의 10만원보다 커집니다. 그러므로 외화표시가격을 다소 낮추어도 수출량이 증가하면 수출액도 증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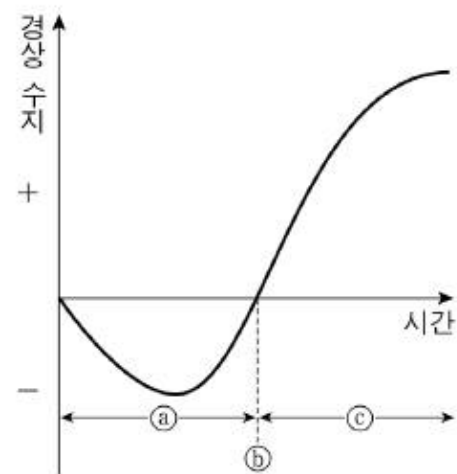
환율이 상승하면, 동시에 수입 상품의 '원화' 표시 가격은 상승하여 수입품을 덜 소비하므로 수입액은 감소합니다. 애플이 아이폰 가격을 800달러로 정했다면, 한국에서 팔 때는 원화 환산하여 아이폰의 원화표시가격, 즉 한국 판매가격을 정합니다. 환율 1000원일 때 아이폰의 가격은 800\$*1000₩으로 80만원이었지만, 환율이 1250원으로 오르면 800\$*1250₩, 즉 원화표시가격이 100만원으로 상승합니다.

원래 한국에서 80만원에 팔리던 아이폰이, 그 실질적인 가치는 여전히 변하지 않았음에도 환율 상승으로 인해 20만원 오른 100만원에 팔린다면 더 이상 아이폰을 사지 않는 소비자들도 생길

수 있겠죠. 아이폰에 대한 최대지불용의가격이 80만원이었던 사람들은, 100만원이 된 아이폰을 더 이상 사지 않을 테니까요. 80만원이어도 겨우 살까말까인데, 100만원으로 오르면 아무리 아이폰이어도 안 사겠다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수입품 아이폰을 덜 팔릴 것이고, 덜 소비되겠죠. 그럼 미국회사 애플로부터 적은 양의 아이폰을 수입할 것이므로 수입액이 감소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J커브 현상]

이와 같이 환율 상승이 항상 경상 수지를 개선할 것 같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환율이 올라도 단기적으로는 경상 수지가 오히려 악화되었다가 점차 개선되는 현상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를 그래프로 표현하면 J자 형태가 되므로 'J커브 현상'이라고 합니다.



J커브 현상에서 경상 수지가 악화되는 원인 중 하나로, 환율이 오른 비율만큼 수입 상품의 가격이 오르지 않는 것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는 환율 상승 후 상당 기간 동안 외국 기업이 매출 감소를 우려해 상품의 원화 표시 가격을 바로 올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애플도 환율이 1000원에서 1250원으로 오르면, 한국 판매가격을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려야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곧바로 올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애플도 이렇게 원화 표시 가격이 올라가면 한국 소비자들의 소비가 줄어들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국내 소비자의 수입 상품 소비가 가격 변화에 따라 줄어들기까지는 상당 기간이 소요됩니다. 반대로 국내 기업이 수출 상품의 외화 표시 가격을 낮추더라도 외국 소비자가 이를 인식하고 소비를 늘리기까지도 다소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J커브의 형태가 보여 주듯이, 당초에 올랐던 환율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상품의 가격 및 물량의 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경상 수지가 개선됩니다. 환율이 바뀌었다고 해서 해당 상품의 가치가 바뀌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전 800\$ 가치 즉, 환율 1250원으로 환산하면 100만원에 팔 수 있는 아이폰을 애플이 계속 80만원에 팔 수는 없겠죠. 결국 상품

의 가격 조정이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제대로 이루어질 것이고, 소비자들이 가격이 올랐음을 인식하게 되면 수요의 감소 즉, 물량의 조정 역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J커브 현상과는 별도로 환율 상승 후에 얼마의 기간이 지나더라도 경상 수지의 개선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첫째, 상품의 가격 조정이 일어나도 국내외의 상품 수요가 가격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수요 구조에 따라 경상 수지는 개선되지 못하기도 하거든요. 아이폰의 한국 판매 가격이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랐더라도, 살 사람들은 또 사기 때문입니다. 아이폰처럼 소비자들의 브랜드 충성도가 높아 재구매 의사가 높은 제품인 경우, 가격이 올라도 계속 아이폰을 사는 소비자들이 많습니다. 아이폰의 가격 변화에 민감하지 않은 소비자들, 애플과 아이폰에 대한 충성도·호감도·신뢰도가 높기 때문에, 아이폰에 대한 최대지불용의가격이 오른 가격보다도 더 높은 소비자들은 계속 아이폰을 구매합니다.

심지어 아이폰처럼 스마트폰 전체 제품 중에 가장 고가의 제품으로 소비자들에게 인식되고 있는 프리미엄 제품은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그제서야 더 사고 싶어지는 소비자들도 있습니다. 가격이 오른 아이폰을 본인들이 구매한다면, 아이폰의 한국가격이 올라서 더는 사지 못하는, 사지 않는 다른 한국 소비자들과의 차별화가 가능해지기 때문이죠.

정리해보죠. 환율의 증가에 따라 국내 상품의 외화 표시 가격, 즉 외국 현지 판매 가격이 감소하여 외국인들의 수요가 증가해 수출량이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환율이 증가하면 외국 상품의 원화 표시 가격, 즉 국내 판매 가격이 증가하여 국내 소비자의 외국 상품에 대한 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수입량이 감소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수출량이 증가하고 수입량이 감소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하더라도, 경상 수지가 그다지 개선되지 않거나 오히려 악화될 수도 있는 경우 역시 존재한다는 겁니다.

둘째, 장기적인 차원에서 수출 기업이 환율 상승에만 의존하여 품질 개선이나 원가 절감 등의 노력을 계속하지 않는다면 경쟁력을 잃어 경상 수지를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삼성은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는데, 환율이 상승함에 따라 똑같은 가치의 갤럭시를 더 싼 가격에 더 많이 팔 수 있게 되어 수출액이 증가했다면 분명 삼성에게는 좋은 일입니다. 다만, 삼성이 노력해서 잘해서 좋은 성과를 낸 것이 아니므로, 자신들이 노력하지 않아도 성과가 좋아진다면 방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자성어 '수주대토(守株待兔)'가 떠오르네요. 기둥을 지키며 토끼를 기다리다 낭패를 본 송나라 농부의 이야기가 담긴 사자성어입니다. 하루는 농부가 밭을 가는데 토끼 한 마리가 달려가더니 밭 가운데 있는 그루터기에 머리를 들이받고 목이 부러져 죽었다고 해요. 뜻밖의 횡재를 한 농부는 그때부터 농사일을 내팽개치고 하루종일 나무 기둥에 토끼가 달려와 부딪혀 죽는 요행을 기다렸습니다만, 그런 요행은 평생에 한번 일어날까말까 한 운이기 때문에 이후 농부는 단 한 마리의 토끼도 얻지 못했다고 합니다.

삼성이 갤럭시폰의 품질을 개선해 갤럭시폰의 실질 가치를 높이고, 같은 가치의 갤럭시폰이라고 할 지라도 더 싼 비용을 들여서 만들어 내는 원가 절감을 해내지 못한다면 갤럭시폰의 경쟁력과 실질 가치는 떨어질 것입니다. 그럼 아이폰보다 갤럭시폰의 실질가치 및 경쟁력이 더 떨어지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되면 환율의 유불리로도 줄일 수 없는 격차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환율은 외환 시장에서 결정되나, 정책 당국이 필요에 따라 간접적으로 외환 시장에 개입하는 환율 정책을 구사합니다. 경상 수지가 적자 상태라면 일반적으로 고환율 정책이 선호되겠죠. 환율이 높아지면 수출액은 증가하고, 수입액은 감소하여 경상수지가 개선될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이상에서 언급한 환율과 경상 수지 간의 복잡한 관계 때문에 고환율 정책이 경상수지를 개선시키지 못하고 도리어 악화시킬 수도 있으므로 정책 결정은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합니다.

※ 2011학년도 2010년 고3 9평 28 ~ 31번 비문학 지문 참조

하루하루 남기다 보면 늘어나는 국어 #211 문법

<보기>

학생: 선생님, ‘짧음’은 사전의 표제어인데, 왜 ‘늘음’은 사전의 표제어가 아닌가요?

선생님: 사전의 표제어인 ‘짧음’은 파생 명사입니다. 반면에 ‘늘음’은 파생 명사가 아니라 동사 ‘늘다’의 명사형입니다. ‘늘음’은 ‘늘다’의 활용형이기 때문에 표제어가 아닙니다.

학생: 둘 다 ‘-음’으로 끝나는데, 무엇이 다른가요?

선생님: 사전의 표제어 ‘짧음’은 어근 ‘짧-’에 명사를 만드는 접미사 ‘-음’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말로 관형어의 꾸밈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늘음’은 어간 ‘늘-’에 명사형 어미 ‘-음’이 결합한 말로 문장에 쓰이면 서술하는 기능이 있고 부사어의 꾸밈을 받을 수 있어요. 다음 문장의 밑줄 친 말들 중에서 사전의 표제어가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문제] <보기>의 선생님 물음에 대한 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그녀의 소줍음은 늘 티가 났다.
- ② 나는 가진 돈이 전혀 없음을 깨달았다.
- ③ 그녀가 많이 먹음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 ④ 그는 경력이 남들보다 많음을 자랑스러워했다.
- ⑤ 내가 늘 빨리 걸음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이다.

※ 2016년 고2 3월 12번 문법 문제 참조

하루하루 남기다 보면 늘어나는 국어

#211 정답 및 해설

<보기>

학생: 선생님, '젊음'은 사전의 표제어인데, 왜 '늙음'은 사전의 표제어가 아닌가요?

선생님: 사전의 표제어인 '젊음'은 파생 명사입니다. 반면에 '늙음'은 파생 명사가 아니라 동사 '늙다'의 명사형입니다. '늙음'은 '늙다'의 활용형이기 때문에 표제어가 아닙니다.

학생: 둘 다 '-음'으로 끝나는데, 무엇이 다른가요?

선생님: 사전의 표제어 '젊음'은 어근 '젊-'에 명사를 만드는 접미사 '-음'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말로 관형어의 꾸밈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늙음'은 어간 '늙-'에 명사형 어미 '-음'이 결합한 말로 문장에 쓰이면 서술하는 기능이 있고 부사어의 꾸밈을 받을 수 있어요. 다음 문장의 밑줄 친 말들 중에서 사전의 표제어가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문제] <보기>의 선생님 물음에 대한 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그녀의 수줍음은 늘 티가 났다.
- ② 나는 가진 돈이 전혀 없음을 깨달았다.
- ③ 그녀가 많이 먹음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 ④ 그는 경력이 남들보다 많음을 자랑스러워했다.
- ⑤ 내가 늘 빨리 걸음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이다.

[현장독해]

- 명사파생접미사 '-음', 명사형전성어미 '-음' 구분하는 문제. 함정 조심. **[출제요소 파악]**

- 사전의 표제어 -> 젊음의 '-음'은 명사파생접미사 vs

- 표제어 아님 -> 늙음의 '-음'은 명사형전성어미

[평소 공부해왔던 내게 편한 방식으로 지문 분석]

- 명사파생접미사 '-음'과 결합하여 품사가 체언으로 바뀐 '젊음'. 관형어 수식받지.

vs 명사형전성어미 '-음'과 결합하여 품사가 여전히 용언인 '늙음'. 부사어 수식받지.

[평소 공부해왔던 내게 편한 방식으로 지문 분석]

- 사전의 표제어가 되는 것 = 젊음 = 파생명사 = 명사파생접미사와 결합한 것 = 관형어 수식받는 것 찾자

[지문 앞뒤의 유사한 표현 연결]

[정답 및 해설] ①번

① '그녀의' = 관형어. 관형어 수식받는 '수줍음'. 파생명사. 명사파생접미사 '-음'. 정답 ①번.

② '전혀' = 부사어

③ '많이' = 부사어

④ '남들보다' = 부사어

⑤ '빨리' = 부사어

★★★ 종합적 판단 ★★★

명사파생접미사 '-음' vs 명사형전성어미 '-음'을 간편하게 구분하는 단 하나의 만능 방법은 없습니다. 명사파생접미사인지 명사형전성어미인지 헷갈리신다면 아래의 다양한 구분법을 사용해보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정답의 확신성을 높이기 바랍니다. 마치 영어 문법의 '능동태vs수동태' 판단과 유사합니다. 뒤에 by가 있는지, 동사가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 해석상 당하는 건지 아닌지, 뒤에 목적어가 있는지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능동태를 써야하는지 수동태를 써야하는지 판단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명사파생접미사'와 '명사형 전성어미' 구분하는 문제도 **종합적 판단'을 통해 정답의 확신성을 높이기 바랍니다.**

1. '서술성'이 없으면 '명사파생접미사' vs 서술성이 있으면 '명사형전성어미'

- '서술어'의 기능을 하여 문장을 종결시키면 서술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명사형전성어미'로 봅니다. '잠을 잠'이라는 문장에서 문장의 끝에 있는 뒤의 '잠'이 서술어로 쓰였고 문장을 종결시켰으므로 서술성이 있는 겁니다.
- + '안긴-안은 문장' '이어진 문장' 등 겹문장 구조에서는 문장의 제일 끝이 아니라 문장 가운데에도 쓰이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 + 하지만 실전에서 '서술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주관적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전에서는 애매할 수 있습니다.

2. 사전에 '명사'로 등재되어 있으면 '명사파생접미사' vs 사전에 등재되어 있지 않으면 '명사형전성어미'

- 사전에서 '명사'로 본 기억이 확실히 떠오를 때는 '명사파생접미사'라고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 + 근데 그 단어가 사전에 등재되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다 외우고 문제 풀겠어요. 항상 쓸 수 있는 방법은 아닙니다.

3. 앞에 '관형어'의 수식을 받으면 '체언' '명사파생접미사' vs 앞에 '부사어'의 수식을 받으면 '용언' '명사형전성어미'

- + 앞에 '관형어'인지 '부사어'이지만 가지고 판단하기도 힘듭니다. 앞에 수식의 기능을 담당하는 '관형어' '부사어'와 같은 문장성분이 아예 없을 수도 있으니까요.
- + 앞에 관형어나 부사어가 없다면 스스로 '관형어'나 '부사어'를 붙여보시면서 말이 되는지 판단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걸 본인 스스로가 한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확신하기는 힘들 수 있겠죠.

4. 앞말이 '용언'이 아니면 '어간'은 아니니까 '명사형전성어미'는 못 붙는다. vs 용언 '어간'에는 '어미'가 붙으니까 '명사형전성어미'?

- vs 용언 '어간'이 '어근'의 역할을 하는 경우 '명사파생접미사'가 붙을 수 있습니다. 명사파생접미사나 명사형전성어미가 붙는 앞말이 용언인지 아닌지로만 판단하기는 힘듭니다.

5. 뒤에 '조사'가 붙으면 앞말이 '체언'인 거니까 '명사파생접미사'?

- + 위에 문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②③④⑤ 명사형전성어미가 붙은 용언의 명사형에도 '조사'는 붙습니다. 이걸로만 판단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역시나 종합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지문]

일반적으로 법률에서는 일정한 법률 효과와 함께 그것을 일으키는 요건을 규율한다. 이를테면, 민법 제750조에서는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 배상 책임을 규정하는데, 그 배상 책임의 성립 요건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고의나 과실’로 말미암은 ‘위법 행위’가 있어야 하고, ‘손해가 발생’하여야 하며, 바로 그 위법 행위 때문에 손해가 생겼다는, 이른바 ‘인과 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 요건들이 모두 충족되어야, 법률 효과로서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생기는 것이다.

소송에서는 이런 요건들을 입증해야 한다. 소송에서 입증은 주장하는 사실을 법관이 의심 없이 확신하도록 만드는 일이다. 어떤 사실의 존재 여부에 대해 법관이 확신을 갖지 못하면, 다시 말해 입증되지 않으면 원고와 피고 가운데 누군가는 패소의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이런 불이익을 받게 될 당사자는 입증의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고, 이를 입증 책임이라 부른다.

대체로 어떤 사실이 존재함을 증명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것보다 쉽다. 이 둘 가운데 어느 한 쪽에 부담을 지워야 한다면, 쉬운 쪽에 지우는 것이 공평할 것이다. 이런 형평성을 고려하여 특정한 사실의 발생을 주장하는 이에게 그 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 책임을 지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상대방에게 불법 행위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는 소송에서 원고가 되어, 앞의 민법 조문에서 규정하는 요건들이 이루어졌다고 입증해야 한다.

그런데 이들 요건 가운데 인과 관계는 그 입증의 어려움 때문에 공해 사건 등에서 문제가 된다. 공해에 관하여는 현재의 과학 수준으로도 해명되지 않는 일이 많다. 그런데도 피해자에게 공해와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 관계를 하나하나의 연결 고리까지 자연 과학적으로 증명하도록 요구한다면, 사실상 사법적 구제를 거부하는 일이 될 수 있다. 더구나 관련 기업은 월등한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훨씬 더 쉽게 원인 조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기에, 피해자인 상대방에게만 엄격한 부담을 지우는 데 대한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공해 소송에서도 인과 관계에 대한 입증 책임은 여전히 피해자인 원고에 있다. 판례도 이 원칙을 바꾸지는 않는다. 다만 입증되었다고 보는 정도를 낮추어 인과 관계 입증의 어려움을 덜어 주려 한다. 곧 공해 소송에서는 예외적으로 인과 관계의 입증에 관하여 의심 없는 확신의 단계까지 요구하지 않고, 다소 낮은 정도의 규명으로도 입증되었다고 인정하는 판례가 등장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인과 관계가 인정되면 가해자인 피고는 인과 관계의 성립을 방해하는 증거를 제출하여 책임을 면해야 한다.

[문제]

28.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소송에서 양 당사자에게 부담을 공평하게 하려는 고려가 입증 책임을 분배하는 원리에 작용한다.
- ② 원칙적으로 어떤 사실이 일어났을지도 모른다는 개연성이 인정되면 입증이 성공하였다고 본다.
- ③ 민법 제750조에서 규정하는 요건들이 충족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은 소송에서 피고에게 있다.
- ④ 위법 행위를 저지르면 고의와 과실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더라도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 배상 책임이 성립한다.
- ⑤ 문제되는 사실이 실제로 일어났는지 밝혀지지 않으면 그 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 책임이 없는 쪽이 소송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29. 밑글을 바탕으로 <보기>에서 대법원의 입장을 추론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다음은 어느 공해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에 관한 내용이다.

공장의 폐수 방류 때문에 양식 중이던 김이 폐사하였다고 주장하는 어민들은, 해당 회사를 상대로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폐수의 방류 때문에 김이 폐사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가 모두 자연 과학적으로 뚜렷이 밝혀져야 할 것이다. 1)방류된 폐수가 해류를 타고 양식장에 도달하였다. 2)그 폐수 안에 김의 생육에 악영향을 미치는 오염 물질이 들어 있었다. 3)오염 물질의 농도가 안전 범위를 넘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폐수가 해류를 따라 양식장에 이르렀다는 것만 증명하면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데 충분하다고 인정하였다.

- ① 피해자인 어민들이 원고로서 겪게 되는 입증의 어려움을 완화시켜 주려 한 것이다.
- ② 인과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연 과학적 연결 고리가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 ③ 공장 폐수가 김 양식장으로 흘러들었다는 사실을 어민들 쪽에서 입증하라고 한 것이다.
- ④ 위법 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 관계가 존재한다는 데 대한 입증 책임이 회사 쪽에 있다고 인정한 것이다.
- ⑤ 공장 폐수 속에 김의 폐사에 영향을 주는 물질이 들어 있지 않다는 사실은 회사 쪽에서 입증하라고 한 것이다.

※ 2014학년도 2013년 고3 6평 A형 28 ~ 29번 비문학 지문 참조

- 스스로 정답을 정하고, 그 근거도 정리해본 후에, '정답 및 해설'을 보셔야 합니다 -

#212 정답 및 해설

[지문]

I 일반적으로 법률에서는 일정한 법률 효과와 함께 그것을 일으키는 요건을 규율한다. 이를테면, 민법 제750조에서는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 배상 책임을 규정하는데, I 그 배상 책임의 성립 요건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I '고의나 과실'로 말미암은 '위법 행위'가 있어야 하고, '손해가 발생'하여야 하며, 바로 그 위법 행위 때문에 손해가 생겼다는, 이른바 '인과 관계'가 있어야 한다. II 이 요건들이 모두 충족되어야, 법률 효과로서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생기는 것이다.

III 소송에서는 이런 요건들을 입증해야 한다. 소송에서 입증은 주장하는 사실을 법관이 의심 없이 확신하도록 만드는 일이다. IV 어떤 사실의 존재 여부에 대해 법관이 확신을 갖지 못하면, 다시 말해 입증되지 않으면 원고와 피고 가운데 누군가는 패소의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이런 불이익을 받게 될 당사자는 입증의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고, 이를 입증 책임이라 부른다.

V 대체로 어떤 사실이 존재함을 증명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것보다 쉽다. 이 둘 가운데 어느 한 쪽에 부담을 지워야 한다면, 쉬운 쪽에 지우는 것이 공평할 것이다. 이런 형평성을 고려하여 특정한 사실의 발생을 주장하는 이에게 그 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 책임을 지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상대방에게 불법 행위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는 소송에서 원고가 되어, 앞의 민법 조문에서 규정하는 요건들이 이루어졌다고 입증해야 한다.

그런데 VI 이들 요건 가운데 인과 관계는 그 입증의 어려움 때문에 공해 사건 등에서 문제가 된다. 공해에 관하여는 현재의 과학 수준으로도 해명되지 않는 일이 많다. VII 그런데도 피해자에게 공해와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 관계를 하나하나의 연결 고리까지 자연 과학적으로 증명하도록 요구한다면, 사실상 사법적 구제를 거부하는 일이 될 수 있다. 더구나 관련 VIII 기업은 월등한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훨씬 더 쉽게 원인 조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피해자인 상대방에게만 엄격한 부담을 지우는 데 대한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IX 공해 소송에서도 인과 관계에 대한 입증 책임은 여전히 피해자인 원고에 있다. 판례도 이 원칙을 바꾸지는 않는다. X 다만 입증되었다고 보는 정도를 낮추어 인과 관계 입증의 어려움을 덜어주려 한다. XI 곧 공해 소송에서는 예외적으로 인과 관계의 입증에 관하여 의심 없는 확신의 단계까지 요구하지 않고, 다소 낮은 정도의 규명으로도 입증되었다고 인정하는 판례가 등장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인과 관계가 인정되면 가해자인 피고는 인과 관계의 성립을 방해하는 증거를 제출하여 책임을 면해야 한다.

[현장독해]

I 법률 효과를 일으키는 '요건'이 중요해 보이네 [키워드 파악]
= 배상 책임의 성립 요건
= 고의나 과실 + 위법 행위 + 손해 발생 + 인과 관계

[비슷한 표현 연결해 읽기] [개념-예시 연결해 읽기]

II 4개 요건들을 '모두' 충족 [절대적 표현 주의]
-> 손해 배상 책임

III 요건 '입증'으로 키워드 바꾸고. [키워드 파악]
- 입증 = 법관이 확신하도록 만드는 일

IV 그니까... 패소의 불이익을 받게 될 당사자가 사실의 존재 여부에 대해 법관이 확신할 수 있도록 하는 입증 책임이 있다는 거네. [나만의 편한 표현으로 핵심 정리]

V 쉬운 쪽 = 존재함을 증명하는 것
= 사실의 발생을 주장하는 이 [비슷한 표현 연결해 읽기]

= 불법 행위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인 원고가 입증 [비슷한 표현 연결해 읽기]

VI 요건 중에 '인과관계'로 키워드 바뀜 [키워드 파악]
+ '공해...?' 소음공해할 때 그 공해? [용례로 의미 추론]

VII 그니까, 현대 과학 수준으로도 입증 불가능한 걸 피해자인 원고 보고 증명하라고 하는 건 원고보고 그냥 재판 지라는 거나 다름없다. 원고 구제 거부하는 거나 다름없다 이 말이네.

[직관적으로 이해 안 되는 표현은 멈춰서 그 의미 생각해보기]
[나만의 편한 표현으로 핵심 정리]

VIII 기업이랑 피해자 중에 피해자가 불리하다 [나만의 편한 표현으로 핵심 정리]

IX 여전히 피해자인 원고가 입증 책임. 원칙 안 바뀜
X 입증 책임 정도를 낮추는 것, 인과 관계 입증 어려움을 덜어줘서 형평성 문제 해결. 불리한 피해자가 덜 불리하게. 예외네.

[예외 파악]

XI 일반 소송 : 의심이 없는 확신 = 입증
vs 공해 소송 : 다소 낮은 정도의 규명 = 입증 [차이점 파악]

XII 아 그니까, 불리한 피해자인 원고가 낮은 수준이라도 입증하면 공격과 수비가 바뀌어서 가해자인 피고가 입증이 틀렸다, 인과관계가 틀렸다는 증거를 제출하게 되는.

[나만의 편한 표현으로 핵심 정리]

[문제]

28.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소송에서 양 당사자에게 부담을 공정하게 하려는 고려가 입증 책임을 분배하는 원리에 작용한다.
- ② 원칙적으로 어떤 사실이 일어났을지도 모른다는 개연성이 인정되면 입증이 성공하였다고 본다.
- ③ 민법 제750조에서 규정하는 요건들이 충족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은 소송에서 피고에게 있다.
- ④ 위법 행위를 저지르면 고의와 과실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더라도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 배상 책임이 성립한다.
- ⑤ 문제되는 사실이 실제로 일어났는지 밝혀지지 않으면 그 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 책임이 없는 쪽이 소송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29. 밑글을 바탕으로 <보기>에서 대법원의 입장을 추론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다음은 어느 공해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에 관한 내용이다.

I 공장의 폐수 방류 때문에 양식 중이던 김이 폐사하였다고 주장하는 어민들은, 해당 회사를 상대로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II 폐수의 방류 때문에 김이 폐사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가 모두 자연 과학적으로 뚜렷이 밝혀져야 할 것이다. III 1)방류된 폐수가 해류를 타고 양식장에 도달하였다. 2)그 폐수 안에 김의 생육에 악영향을 미치는 오염 물질이 들어 있었다. 3)오염 물질의 농도가 안전 범위를 넘었다. 이에 대해 IV 대법원은 폐수가 해류를 따라 양식장에 이르렀다는 것만 증명하면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데 충분하다고 인정하였다.

- ① 피해자인 어민들이 원고로서 겪게 되는 입증의 어려움을 완화시켜 주려 한 것이다.
- ② 인과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연 과학적 연결 고리가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 ③ 공장 폐수가 김 양식장으로 흘러들었다는 사실을 어민들 쪽에서 입증하라고 한 것이다.
- ④ 위법 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 관계가 존재한다는 데 대한 입증 책임이 회사 쪽에 있다고 인정한 것이다.
- ⑤ 공장 폐수 속에 김의 폐사에 영향을 주는 물질이 들어 있지 않다는 사실은 회사 쪽에서 입증하라고 한 것이다.

[정답 및 해설] 28.①, 29.④

- ① 3문단에서 양 당사자 중 입증이 더 쉬운 쪽에게 입증 책임을 지움. 4문단 공해문제의 경우는 반대로 피해자인데 입증이 어려운 경우도 있어서, 5문단에서 피해자 입증 부담을 낮추기도 함. 부담 적은 애가 부담해라, 부담 많은 애는 좀 봐줘라. 이게 양 당사자에게 부담을 공정하게 하려는 고려에 따른 입증 책임 분배. [문단 간 사례 연결하여 정답의 확신성 높이기] [나만의 편한 표현으로 핵심 정리] [정답의 확신성이 높은 정답이 나왔으므로 넘어가기]
- ② 원칙적으로는 개연성이 아니라 반대인 필연성에 더 가깝지. 개연성 = 절대적으로 확실하지 않으나 아마 그럴 것이라고 생각되는 성질 [기초 어휘] vs 지문 4문단 '인과관계를 하나하나 그 연결고리까지 자연 과학적으로 증명해야' [반대의 경우를 떠올려보기] + 원칙 = 인과관계, 예외 = 개연성. 5문단 공해 소송에서는 예외적으로 인과 관계의 낮은 정도의 규명으로도 입증 인정
- ③ 입증 책임은 피고가 아니라 피해자인 원고 [반대의 경우가 정답은 아닌지 떠올려보기]
- ④ 1문단 요건 '모두' 만족해야 책임 성립. 고의와 과실이 '없다면' 요건 모두 만족한 것이 아니라 책임 없음.
- ⑤ 법관이 사실이 실제로 일어났는지 확신하지 못하면 입증 책임이 있는 원고가 불리하겠지. 원고가 불이익을 받아 패소할 수도 있는 vs 입증 책임이 없는 쪽인 피고는 소송에서 유리

- '대법원의 입장' 주의 [문제의 추가 출제 요소 파악]

I 공장의 폐수 방류 때문에 양식 중이던 김이 폐사 = 이게 '공해'네. 폐수공해? 공공에 광범위하게 해를 끼치는.
 II 과학적. 근데 현대 과학으로 입증하기 힘들어서 입증 책임이 있는 피해자가 불리하다 이런 얘기 나오겠지.
 III 폐수가 양식장에 도달해서, 폐수 속에 김을 죽게 만든 오염 물질이 있어야 하고, 오염 물질 농도가 안전 범위 넘어섰는지 '모두' 충족해야 인과관계 맞는 건데
 IV 피해자가 불리하니 입증 책임의 부담을 낮춰서 도달한 것만 증명하면 그때부터는 농도가 안전 범위 안 넘었고, 김에 악영향 안줬다는 걸 입증하는 건 공장 책임이겠지

[<보기>를 읽으며 지문과 관련된 내용 연결해 떠올려 보기]

- ① 4문단 5문단 내용. 어민들이 과학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우니 부담 완화.
- ② (절대적으로) 존재는 하는데, (상대적으로) 어민들은 개연성 정도만 입증하시면 되요~ [절대적vs상대적인 것 엄밀히 파악]
- ③ 선택지 '흘러들었다'는 사실 입증 = <보기> '이르렀다'는 것만 증명하면 인과관계 입증하는 데 충분. [선택지-<보기> 연결]
- ④ 입증 책임은 원칙대로 피해자 원고 책임(절대적) 그 입증 책임의 부담을 예외적으로 낮춰준 것(상대적). 거짓. [원칙vs예외 엄밀히 구분] [절대적vs상대적 엄밀히 구분]
- ⑤ 5문단 마지막. 인과 관계가 인정되면 가해자인 피고는 인과관계의 성립을 방해하는 증거를 제출하여 책임을 면해야.

하루하루 남기다 보면 늘어나는 국어

#213 작문

[지문]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작문 상황

제13회 교내 백일장

- 글제 : 안개, 내일, 촛불
- 분야 : 운문, 산문
- 장소 : 운동장
- 일시 : 2017년 9월 6일 오전 9시~11시
- 유의사항 : 인터넷이나 책 등을 이용할 수 없음.

○○ **고등학교 국어교과부**

(나) 초고

눈 내린 뒤라 열린 구름이 끼어 있어서 보름달이 어스름하였다. 중학교를 졸업한 지 어느덧 일 년이 지났다. 고등학교 생활은 중학교와 달라 힘들었다. 친하게 지냈던 선생님이 보고 싶어졌다. (㉠) 늦은 시간이었지만 중학교 때 고전문학반을 담당하셨던 선생님 댁을 찾아갔다. 선생님께서 댁에 계시려나 생각하며 골목에 들어섰다. 마침 선생님 서재의 창문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이 보였다.

사모님께서는 반갑게 맞아주시며 선생님께서 계신 서재로 안내하셨다. 선생님께서는 책을 보고 계셨다. 그때 갑자기 정전이 되었다. 촛불을 켜다. 촛불에 비친 내 그림자가 어지럽게 벽에서 춤추고 있었다. 촛불을 대하고 마주 앉으니 고등학교 생활로 힘들었던 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았다.

선생님과 말씀을 나누다 문득 창문을 보니 창밖에 무엇인가 흔들리는 빛이 있어서 나는 선생님께 물었다.

저것은 무엇이냐는 내 질문에 선생님께서는 웃으시며 나의 곁을 한번 보라고 말씀하셨다. 내 앞에 있는 촛불이 꺼지려고 하면서 불꽃이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것이었다. 나는 그제야 방금 전에 본 현상이 촛불 때문에 그랬다는 것을 알았다.

곧 초가 다 타 버려 마침내 컴컴한 방에 두 사람이 있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도 태연하게 웃으며 이야기하였다. 나는 이런 말씀을 드렸다.

“선생님과 한동네에 살 때, 눈 오는 밤에 찾아빈 일이 있었어요. 선생님은 손수 차를 끓이셨고 저는 화로에 떡을 노릇노릇 굽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불기운이 화끈 올라와 손이 뜨거워지는 바람에 떡을 화로에 떨어뜨렸잖아요. 선생님과 저는 서로 쳐다보며 몹시 즐거워했죠. 그런데 몇 년 새에 선생님의 머리는 눈처럼 허옇게 세고 저 역시 수영이 거뭇거뭇 돌았네요.”

이 말끝에 서로 한참을 바라보았고 선생님은 내게 흐뭇한 미소를 지어 보이셨다. 나는 아직도 선생님께서 손수 끓여주셨던 차의 온기처럼 따뜻했던 그 미소를 잊을 수 없다.

[문제] 오지선다

7번 다음은 학생이 (나)를 쓰기 위해 적은 것이다. ㉠~㉥를 활용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 구성 ㉠
- 순차적 구성 : 독자를 자연스럽게 글의 내용에 차츰 빠져 들게 한다.
- 역순행적 구성 : 결말에 대한 독자의 흥미를 불러일으킨다.

○ 문학에서 중요한 것은 형상화

- 시공간적 배경이나 사건 등을 통해 주제를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

○ 표현 효과

- 감각적 표현은 독자에게 강한 인상, 공감을 이끌어내기 쉽다. ㉢
- 공통점·차이점을 이용해 대상의 의미를 잘 드러낼 수 있다. ㉣

○ 선생님에 대한 기억 ㉤

- 친구들에게 아픈 친구를 위해 문자를 보내자고 하신 일
- 선생님 댁을 혼자서 방문한 일

- ① ㉠에서 순차적 구성을 택하여 시간적 순서로 글을 썼다.
- ② ㉡에 주의하여 주제어를 글에 사용하지 않았다.
- ③ ㉢에 따라 시각, 촉각 등의 감각적 표현을 사용했다.
- ④ ㉣를 고려하여 대조적인 시간과 공간을 배경으로 설정했다.
- ⑤ ㉤에서 선생님에 대한 기억 중 개인적 경험을 소재로 했다.

9번 <보기> 고려할 때, ㉦에 들어갈 문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선생님에 대한 기억을 사물의 속성을 이용하여 대구로 표현하고 싶어.

- ① 어디선가 들려오는 종소리같이 선생님에 대한 내 기억은 파도처럼 밀려오더니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있었다.
- ② 구름을 벗어난 보름달은 선생님을 보고파하는 내 마음을 아는 지 사방을 환하게 비춰 주었다.
- ③ 사방이 쥐 죽은 듯 고요하여 눈길을 걷는 내 발자국 소리가 천둥소리처럼 크게 느껴졌다.
- ④ 시간에 점점 무디어져 가는 선생님에 대한 기억을 오늘밤 새록새록 깨우고 싶어졌다.
- ⑤ 눈길이 미끄러워 처음엔 토끼처럼 빠르게 뛰다가 나중엔 고양이처럼 조심히 걸었다.

※ 2017년 고1 9모 6 ~ 10번 작문 지문 참조

- 스스로 정답을 정하고, 그 근거도 정리해본 후에, '정답 및 해설'을 보셔야 합니다 -

하루하루 남기다 보면 늘어나는 국어

#213 작문 정답 및 해설

[지문]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작문 상황

제13회 교내 백일장

- 글제 : 안개, 내일, 촛불
- 분야 : 운문, 산문
- 장소 : 운동장
- 일시 : 2017년 9월 6일 오전 9시~11시
- 유의사항 : 인터넷이나 책 등을 이용할 수 없음.

○○ **고등학교 국어교과부**

(나) 초고

눈 내린 뒤라 열린 구름이 끼어 있어서 보름달이 어스름하였다. 중학교를 졸업한 지 어느덧 일 년이 지났다. 고등학교 생활은 중학교와 달라 힘들었다. 친하게 지냈던 선생님이 보고 싶어졌다. (㉠) 늦은 시간이었지만 중학교 때 고전문학반을 담당하셨던 선생님 댁을 찾아갔다. 선생님께서 댁에 계시려나 생각하며 골목에 들어섰다. 마침 선생님 서재의 창문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이 보였다.

사모님께서서는 반갑게 맞아주시며 선생님께서 계신 서재로 안내하셨다. 선생님께서는 책을 보고 계셨다. 그때 갑자기 정전이 되었다. 촛불을 켜다. 촛불에 비친 내 그림자가 어지럽게 벽에서 춤추고 있었다. 촛불을 대하고 마주 앉으니 고등학교 생활로 힘들었던 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았다.

선생님과 말씀을 나누다 문득 창문을 보니 창밖에 무엇인가 흔들리는 빛이 있어서 나는 선생님께 물었다.

저것은 무엇이냐는 내 질문에 선생님께서는 웃으시며 나의 곁을 한번 보라고 말씀하셨다. 내 앞에 있는 촛불이 꺼지려고 하면서 불꽃이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것이었다. 나는 그제야 방금 전에 본 현상이 촛불 때문에 그랬다는 것을 알았다.

곧 초가 다 타 버려 마침내 컴컴한 방에 두 사람이 있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도 태연하게 웃으며 이야기하였다. 나는 이런 말씀을 드렸다.

“선생님과 한동네에 살 때, 눈 오는 밤에 찾아뵈는 일이 있었어요. 선생님은 손수 차를 끓이셨고 저는 화로에 떡을 노릇노릇 굽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불기운이 화끈 올라와 손이 뜨거워지는 바람에 떡을 화로에 떨어뜨렸잖아요. 선생님과 저는 서로 쳐다보며 몹시 즐거워했죠. 그런데 몇 년 새에 선생님의 머리는 눈처럼 허옇게 세고 저 역시 수영이 거뭇거뭇 돋았네요.”

이 말끝에 서로 한참을 바라보았고 선생님은 내게 흐뭇한 미소를 지어 보이셨다. 나는 아직도 선생님께서 손수 끓여주셨던 차의 온기처럼 따뜻했던 그 미소를 잊을 수 없다.

[현장독해]

- 백일장, 안개 내일 촛불, 운문 산문 다 되고, 인터넷 책 쓰지 말고 [<보기> 읽으며 지문 읽으면서 확인할 내용 파악]

㉠ 보고 싶어져서 찾아갔다 사이에 뭐가 들어가려나... 접속부사 '그래서' 넣어라? 그냥 안 넣어도 말 되는데;; 넘어가 [지문 읽으며 밑줄의 의미, 빈칸의 내용 스스로 생각해보기] [주관식으로 풀기]

- '정전' 키워드
- 불명. '촛불' 보면서 힐링. [나만의 편한 표현으로 상황 파악]
- 글제 '촛불'이네. '산문'이고 [<보기>-지문 연결]
- '창밖에 흔들리는 빛' = '촛불에 비친 내 그림자가 어지럽게 벽에서 춤추고' 비슷하네 [문단 앞뒤 비슷한 표현 연결]

- 촛불이 원인이었네 [나만의 편한 표현으로 상황 파악]

- 촛불 보면서 선생님과 추억 생각
- 시간의 경과. 둘 다 나이 듦 [나만의 편한 표현으로 상황 파악]
-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 따뜻하네.

[문제] 오지선다

7번 다음은 학생이 (나)를 쓰기 위해 적은 것이다. ㉠~㉣를 활용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 구성 ㉠
 - 순차적 구성 : 독자를 자연스럽게 글의 내용에 차츰 빠져 들게 한다.
 - 역순행적 구성 : 결말에 대한 독자의 흥미를 불러일으킨다.
- 문학에서 중요한 것은 형상화
 - 시공간적 배경이나 사건 등을 통해 주제를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
- 표현 효과
 - 감각적 표현은 독자에게 강한 인상, 공감을 이끌어내기 쉽다. ㉢
 - 공통점·차이점을 이용해 대상의 의미를 잘 드러낼 수 있다. ㉣
- 선생님에 대한 기억 ㉤
 - 친구들에게 아픈 친구를 위해 문자를 보내자고 하신 일
 - 선생님 댁을 혼자서 방문한 일

- ① ㉠에서 순차적 구성을 택하여 시간적 순서로 글을 썼다.
- ② ㉡에 주의하여 주제어를 글에 사용하지 않았다.

- ③ ㉢에 따라 시각, 촉각 등의 감각적 표현을 사용했다.
- ④ ㉣를 고려하여 대조적인 시간과 공간을 배경으로 설정했다.

- ⑤ ㉤에서 선생님에 대한 기억 중 개인적 경험을 소재로 했다.

9번 <보기> 고려할 때, ㉠에 들어갈 문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선생님에 대한 기억을 사물의 속성을 이용하여 대구로 표현하고 싶어.

- ① 어디선가 들려오는 종소리같이 선생님에 대한 내 기억은 파도처럼 밀려오더니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있었다.
- ② 구름을 벗어난 보름달은 선생님을 보고파하는 내 마음을 아는 지 사방을 환하게 비춰 주었다.
- ③ 사방이 쥐 죽은 듯 고요하여 눈길을 걷는 내 발자국 소리가 천둥소리처럼 크게 느껴졌다.
- ④ 시간에 점점 무디어져 가는 선생님에 대한 기억을 오늘밤 새록새록 깨우고 싶어졌다.
- ⑤ 눈길이 미끄러워 처음엔 토끼처럼 빠르게 뛰다가 나중엔 고양이처럼 조심히 걸었다.

[정답 및 해설] 7.㉣, 9.①

7번

- 순차적 구성 썼고
- 역순행 아니지. 시간 순서 순행적.
- 밤에 촛불 보면서 힐링하고 옛 추억 떠올리며 따뜻함 간접전달
- 촛불의 모습, 촛불이 만들어낸 빛 모습, 허영계 셴 선생님 머리
- 촛불이 만들어낸 빛과 그림자 공통점
- 아픈 친구 얘기는 없고 선생님 댁 혼자 방문한 일이지

[<보기>를 보며 지문과 연결해 읽기]

- ① 시간적 순서 = 순차적 구성. 밤늦게 보다고 가서 힐링. 참.
- ② 주제어... 글제 촛불은 글에 엄청 썼는데... 주제어랑 글제랑 다른건가. 그리고 보니 서'재', 제'재'도 아니고 글'제'? 애매한데... 일단 패스하고 나머지 선택지도 봐야겠다.

[애매한 건 세모, 판단보류하고 넘어가서 명확한 정답 찾기]

- ③ 촛불 흔들리는 모습, 허영계 셴 성생님 머리 등 시각 많고.
- ④ 대조적인 시간과 공간...? 과거 현재로 시간대는 다른데, 둘다 겨울밤이긴 하고. 공간도 선생님 댁이니까 공간 대조는 확실히 없네. ②번 애매한데, ④번이 확실히 틀림. 정답은 ④번.
- ⑤ 선생님 집에 간 것 개인적이지.

9번.

- 선생님에 대한 기억, 사물의 속성, 대구법 3가지

[<보기> 읽으며 출제 요소 파악]

- ① 종소리 들리다 사라지고, 선생님에 대한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오다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사물 속성 나왔고. ~처럼 ~하더니, ~처럼 ~하다. 대구법. 3개 다 있네. 정답 ①번.
- ② 보름달이 환하게 비춰 주는 거 있고. 선생님을 보고파하는 내 마음은 선생님에 대한 기억은 아니네. (구름)을 (벗어)난 (보름달)은, (선생님)을 (보고파)하는 (내 마음)을 이것도 대구라고 보려면 볼 수 있는데 애매하고. 확실한 ①번 짝자.
- ③ 선생님에 대한 기억 없고. 사물의 속성 없고. 대구 없고.
- ④ 선생님에 대한 기억 있고. 사물의 속성... 시간이 갈수록 기억이 무뎠다는 속성을 '사물'로... 일단 대구 없고
- ⑤ 선생님에 대한 기억 없고. 눈길이 미끄러운 속성 있고. ~처럼 ~하다가 ~처럼 ~했다 대구 있고.

★★★ 헛갈려도 객관식에서 점수는 얻는 법 : 애매한 건 세모치고 넘어간 후 가장 확실한 정답 1개 찾기 ★★★

7번에 ②번, 9번에 ②번이 애매했을 수 있습니다. 작문 문제인데 9번은 오답률이 70%에 가깝고, 7번도 오답률 50%가 넘습니다.

- 9번 선생님을 보고파하는 마음이 결국 선생님에 대한 기억에서 나오는 것이니까 ②번도 맞아보일 겁니다. ①번에 대구법이 문장 전체적인 구조로 있지 않고 뒷부분에 짧게 있다 보니 정답의 확실성이 떨어졌을 수도 있겠구요.
- 7번 ②번도 '주제어'를 '촛불'로 생각했다면 지문에 촛불을 엄청 썼기 때문에 글에 사용하지 않았다는 ②번은 엄청 틀려 보일 겁니다. 출제자분이 별도의 해설을 남겨놓지 않아 그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저도 힘듭니다만, 사전에 찾아보면 '글제'는 '글의 제목' 이랍니다. '촛불'이 주제어는 아니라고 보신 듯하고, <보기> ⑥에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으니 주제어, 예컨대 '예나 지금이나 따뜻한신 은사님과의 힐링 타임' 뭐 이런걸 글에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신 듯합니다. 중요한 건 그래서 ②번을 푸시면서 애매하다는 느낌을 받으시고, 그 애매한 느낌의 근거를 찾아보시면서 '글제'와 '주제어'가 같은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시고, 따라서 정답의 확실성이 떨어지므로 답으로 찍지 말고 일단 넘어가자는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확실히 틀린 ④번을 답으로 찍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애매한 진술에는 성급하게 OX 치지 마시고 '판단 보류△'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제 3의길, 삼길) 그리고 '가장 확실'한 정답이라고 생각되는 선택지를 단 하나의 정답으로 찍어야 객관식에서 못받을 점수도 받을 수 있고, 받을 점수를 확실히 챙길 수 있습니다.**
- + 시험 현장에서 <보기>-지문-선택지 표현끼리 잘 연결되고, 주제의식과도 맞고, 단순사실판단으로도 판단이 가능해서 둘다 정답처럼 보이는 선택지들이 있다면, 그때 **'출제자'는 뭘 정답으로 하고 싶어 했을 지까지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올해 수능 '문학' 영역에서는 정답과 오답의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도록 해 애매함을 가중시킴으로써, 학생들의 시간·멘탈·페이스를 잃게 만들려고 할 것입니다. 극단적으로는 이번 화작 7번 9번처럼 매력적이지만 애매한 오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추후에 복수정답이 될지라도, 일단은 출제자의 입맛까지 고려해서 정답만큼은 맞힌 후에 많이 애매했었다고 지적하는 것이, 틀리고 난 다음에 시간·에너지 써가며 스트레스 받아가며 조목조목 따지고 비판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두 선택지 싸움의 끝에는 '출제자가 더 좋아할만한 것, 출제자가 답으로 하고 싶어할만한 하나'까지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혹은 이게 정답이 아니면 출제자를 고소할 정도로 확실히 자신이 있는 선택지, 즉 객관적으로 맞고 틀린 것을 판단하는 것이 가능한 선택지를 답으로 고르셔서 어떻게든 점수와 멘탈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 + 선택지가 죄다 애매해서 다 △면 어떻게 하나구요? **△를 1개 이내로 만드는 실력까지는 갖추셔야** 합니다. 수학도 모르겠는 문제는 넘어가서 시간관리·멘탈관리 하라고 하지만, 몰라서 넘기는 문제가 5개가 넘어가면 그 시험은 그냥 망하는 거잖아요. 실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입니다.

바보처럼 당하지 않는 법3. 심적 여유를 되찾은 후에 중요한 판단을 하자

9월 전후로 수능 준비에 중대한 변화를 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갑자기 수시 논술을 신청하여 부랴부랴 준비하고,
재종반을 갈아타고, 파이널 강사를 바꾸고,
수능응시장소를 바꾸고, 탐구과목을 투과목으로 바꾸는 등
수능에 큰 영향을 끼칠 중요한 의사결정을 갑자기 하시려는 겁니다
이때는 꼭 심적 여유를 가지고 한번 더 생각하신 후에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실수하지 않으실 수 있고 후회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키 크게 해준다는 약 광고 많이 보셨죠.
모델이 몇 달 약 먹는 모습 보여주고
키 잼더니 168에서 173으로 5cm 크고 우와아~~
예..... 허위 과장 사기 광고죠
수천만 원을 들여 철심을 박고 몇 달을 앓아 있어야 되는 수술을 받아도
3cm가 자랄까 말까한 게 사람 키 입니다.
파격 세일로 59000원에 판다는 그 약 매일 먹어서
키가 그렇게 클 수 있는 거였으면
저는 그 약 매일 한 움큼씩 퍼먹고 있었을 겁니다.

광고 보시면서 여러분도 아마 속으로
누가 저런 말도 안 되는 광고에 바보처럼 속아서 돈을 쓸까?
역시 국민 평균 5등급이 이런 건가? 하실 겁니다.
평소라면 아무도 안속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말입니다.

어느 날 회사에서 키 큰 다른 직원이란 다투게 됐는데,
본인이 키가 작아서 막 올려다 보면서 얘기하다 하니
기 싸움에서 밀려 속상했던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안그래도 키 때문에 맘 상해 있는데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키가 작다며 헤어지자고 해요.
붙잡아도 보고 깔창도 더 깔아보고 했지만 결국 헤어졌습니다.
마치 이 모든 불행이 키 때문인 것만 같아 너무 힘들고
그래서 술도 막 퍼먹게 되고
그렇게 정신 반쯤 나가서 유튜브 보고 있는데
전에 봤던 키 크는 약 광고가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는요
제 아무리 현명한 사람이라도 그 약 주문 안하기가 힘듭니다.
심적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는
허위과장 광고인 걸 알면서도,
본인이 지금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다는 게 어렴풋이 느껴지면서도
혹시 나는 다르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들어
속는 셈 치고서라도 주문하게 된다니까요.

우리 어머님·아버님들이 다단계 판매 행사장 가서서
옥장판 사오시고 이상한 홍삼 사오시고,
신천지같은 사이비 종교에 빠지시는 이유가요.
부모님들이 국민 평균 5등급이셔서?
옛날 사람이라 순진하셔서? 그런 게 아닙니다.

외로워서 그래요 외로워서
평소에 말 걸어주는 사람 하나 없고
할 것도 없고 놀 것도 없고
같이 뭘 할 친구도 없어서 너무 외로웠는데
누가 와서 말동무해주고 같이 노래 부르고 하니
간만에 신이 나시니까 흥이 나서 사시는 겁니다.

부모님이 이상한데 빠지지 않을까 걱정이 되시면요.
부모님 말동무가 되어 드리세요.
부모님이랑 가끔 영화도 보러 가고 같이 뭐라도 하십시오.
부모님이 심적 여유가 생기신다면
이상한 데 빠져서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게 되실 겁니다.

허위·과장·사기 광고에, 다단계·사이비에 낚여서
순간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하시는 분들은,
원래가 멍청해서 바보처럼 당하시는 게 아니라
삶이 너무 힘들고 여유 없는 와중에
안 좋은 일까지 겹치다보니,
순간적으로 판단력이 흐려져서 당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중요한 판단에서 실수하여 큰 손해를 보고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는,
허위 과장 사기에 바보처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심적 여유를 가진 후에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 회장도
기업에 중요한 의사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는
잠을 한 7시간 푹 자고 난 후,
한번 더 생각해보고 결정을 내린다고 합니다.

지금 이 시기부터
여러분이 수능 관련해서 하시게 될 의사결정들은
수능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실수하지 않으실 수 있고 후회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 여러분을 다양한 방식으로 많이 휘둘리게 할 겁니다.
광고, 선생님, 부모님, 친구, 커뮤니티 등 다양할 주체들이 여러분을 흔들 겁니다.
그때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지 마시고,
심적 여유를 가지고 한번 더 고민해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조지 애컬로프 저
Phishing for Phools: The Economics of Manipulation and Deception 참조

하루하루 남기다 보면 늘어가는 국어

#0 나가기 전에 : 제작 방향성

문제나 풀자

저는 독해법·풀이법·학습법·멘토링 등을 칼럼 형식으로 구구절절 설명하는 것에 지쳐 버렸습니다. 좋은 독해 습관, 좋은 풀이 습관들을 그저 소개만 해서는, 아무리 쉽고 재밌게 얘기하더라도 한계가 있더군요. 제가 여전히 많이 부족한가봅니다. 자신의 안 좋은 습관은 고치고, 좋은 방법들은 최대한 많이 자기 습관으로 만드는 그 실질적 행동 방법. 그 실천 지향적인 **실질적 액션 플랜**을 제시하는데 집중하고자 했습니다. 수많은 국어 고수들의 그렇게 잘나고 멋들어진 풀이를, 결국 학생 스스로가 시험 순간에 해낼 수 있게 만드는, 그 실질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이 자료의 목표입니다.

그러므로 전, 좋은 방법들을 그저 소개만 하고 있을 시간에, **학생들이 한 문제라도 더 풀게 하고자** 했습니다. 지나가다 우연히 한 문제를 푸는 학생조차도, '좋은 자극, 좋은 긴장감'을 얻을 수 있도록 문제를 엄선하고 해설을 쓰고 있습니다. 최고난도·최다오답 문제뿐만 아니라, 공부 잘한다는 학생들도 가끔씩 실수하는 문제, 누구나 한번쯤은 틀려가며 배우는 문제, **좋은 습관대로 푼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을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는 문제** 등을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별 생각 없이 그냥 풀어봤는데 틀려서, 독이 바짝 오른 상태에서 해설을 읽으며, 자연스럽게 좋은 독해법·풀이법·학습법·멘토링을 얻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학생들에게도, 제게도, 시간적으로도, 실질적으로도, 더 나으리라 믿습니다.

도전하여 내 것으로 만들자

이 자료의 문제들은, 국어 기초 개념, 즉 '고전 어휘 및 고전 독해법'과 '문법 개념' 등을 1회독 한 학생. 윤혜정 선생님의 [개념의 나비효과], 이해항 선생님의 [국어의 기술]과 같은 **기초 개념서를 1회독 이상 한 학생이라면 누구든지 도전 가능한 것들**입니다. 저는 수업 설명회에서도 학생·학부모님들과 이 문제들을 함께 푹니다. 수업 커리큘럼·계획서·분석 자료를 그럴듯하게 발표하는 것만큼이나, 눈앞에서 지문을 읽고 문제 푸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더 큰 공감을 얻더군요. 중학생·고1·고2·고3·N수·학부모 등의 틀에 스스로를 가두어, 이 자료는 내가 풀 게 아니라고 편견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다 맞힐 수 있는 실력을 갖추자는 마인드로, 해당 자료의 문제들을 다 맞히고 막힘없이 설명해내는 것에 도전해** 보세요.

스스로 설명해보자

활용 방법은 간단합니다. 문제 풀고 해설 읽는 거죠. 다만, 남들보다 질적으로 높게 이 자료를 활용하여 경쟁에서 이기고 싶다면, 스스로에게 **설명해보는데 집중**하세요. 스스로에게 정답과 근거를 설명해본 후 해설과 비교해보세요. 하루하루 그렇게 해나가다 보면, 어느새 자신의 안 좋은 습관은 안하게 되고, 좋은 습관은 해내게 될 겁니다.

굳이 이 자료를 복습해야만 한다는 부담감을 갖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그보다는, 여기서 알게 된 좋은 습관들과 방법들을 평소 국어 문제 풀 때 적용해보려고 하세요. 또는 몇 달 혹은 1년 후에, 똑같은 문제를 스스로에게 다시 설명해보면서 자신이 성장했는지를 점검해보셔도 좋습니다.

물론, 해설에서 공감 가는 부분, 스스로 잘 안됐던 부분은 시간차를 두고 몇 번이고 다시 복습하면 더욱 좋기야 하겠지요. 반복의 지루함을 인내하고 복습하는 자가 결국 인생에서 성공하는 겁니다. **원래 내 것이 아니었기에 어색했던 것을, 마치 처음부터 내 것이었던 것만큼 편하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반복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지루하다고 복습 잘 못하거든요. 복습만 잘 해도 대한민국 90%는 이길 수 있습니다.

색다르게 해보자

일반적인 국어 문제들을 풀다 지쳐 토할 것 같을 때, 공부하기는 너무 싫은데 그래도 뭔가는 해야 마음이 편할 때, 그럴 때마다 가끔씩 들춰보고 또 몇 문제 풀어 보세요. 문제도 유형도 영역도 형식도 평소 풀던 것들과는 좀 다르겠지만, 인생에 걸쳐서 도움이 될 좋은 독해 습관과 좋은 풀이 습관을 얻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결국 벌을 받더라